



星武

제35호 | 2007. 7.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CMYK

세계 제1의 광전자 전문제조업체. (주)이오시스템은
맑은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드는 최첨단 기업입니다.

■ 휴대용 주야간 관측장비



기관총 주야간 조준경



단안형 야간투시경



휴대용 주야간 관측장비



열영상조준경



EBR 쌍안경

■ 사격통제장비 및 렌즈/프리즘류



야간잠망경



주간잠망경



렌즈/프리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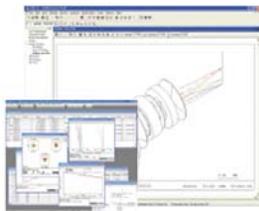
(주)이오시스템
EO System co., Ltd.

404-25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2-7
TEL : 032-290-1400 FAX : 032-290-1600
dhshin@eosystem.com www.eosystem.com

“프리시전옵텍스는 초정밀 광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 광학계 설계 및 개발

- * 열상 장비용 광학계 설계 및 평가



※ Infrared 광학계 설계

❖ Infrared 광학부품 제작

- * Diamond Turning Machining
- * 비구면 가공
- * IR 주·야간 광학 부품 제작



※ DTM Lens 가공

❖ Infrared 대물렌즈 제작

- * 열상 광학 모듈
- * 광학 모듈 기구부 설계
- * 광학 모듈 기구부 제작



※ Hybrid Surface 외 제품



※ 열상렌즈 F/# 1.2(Telephoto lens)

Capabilities

- 최대가공 직경 : Ø450mm
- 형상정도 : λ/4@633nm(직경 Ø150mm 기준)
- 비구면 형상정도 : PV 0.1um 이하
- 표면조도 : RA 10nm 이하
- 평행도 : 10sec of arc 이하



(주)프리시전옵텍스
PRECISION OPTECHS CO.,LTD.

500-460 광주시 북구 월출동 970-5
TEL : 062-973-3601~3 FAX : 062-973-3604
E-mail : master@p-optechs.com http://www.p-optechs.com/

세계 속의 자원부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KORES

Korea Resources Corporation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007년 6월 5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KORES"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자원, 이제 KORES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 속의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을 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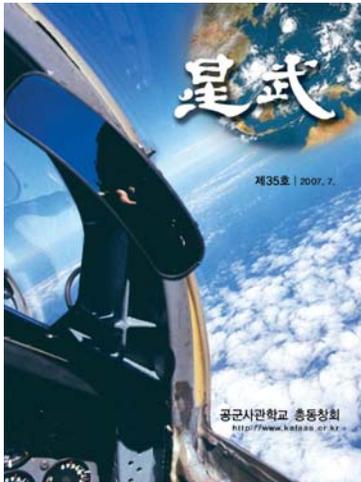


생각의 크기가 에너지의 크기가 됩니다. 지구 반대편 페루, 브라질에서 베트남,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SK는 24년간 세계 14개국 25개 유전에서 석유를 개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SK의 석유·화학 제품은 국내 5대 수출품목으로서 2006년 한 해만도 매출액의 절반수준인
11조원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생각이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星武

Contents



성무 제35호 표지



진해사관학교 시절



Radar

공군소식

모교소식

총동창회 소식

홈커밍 행사

기획특집 I 교육환경의 변화

- 김 포 :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고
- 진 해 : 옛 보금자리를 돌아보며
- 대방동 : 추억과 희망
우리의 영원한 방향
- 청 원 :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남(男)과 여(女)

- 편집실 | 36
- 박병순 | 46
- 김도식 | 49
- 박종권 | 53
- 강성구 | 59
- 편보라 | 63

기획특집 II 분야별 근무경험

- 조출만퇴와 항공기
- 사기 드눴었던 시절
- IT 강군 대한공군
- 모두가 잠든 그 시간...
- 에너지의 절약은 미래의...
- 교육장교 시절의 회고와...
- 작은 행복

- (정비) 나지훈 | 65
- (무장) 김진익 | 70
- (정보) 김용환 | 73
- (관제) 전수진 | 78
- (시설) 최규철 | 81
- (교육) 진윤섭 | 85
- (관리) 이수연 | 89

회원논단

한·중·일 성장 동력산업 **박종선 | 92**
 전쟁과 경영, 그리고 전략 **김세영 | 100**

회원기고

비행기 **서병권 | 110**
 또 하나의 날개 **이봉길 | 111**
 달리고 또 달린다 **이형걸 | 114**
 아프리카 여행기 **허규열 | 117**

각 기생/지회 동정

1~14기 동정 | 125
 지회 동정(대한항공·미주) | 130

총동창회 알림

정기총회 | 135
 평생회비 적립현황 | 141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 146
 전역자 현황 | 147
 결혼/부음 | 149
 주소변경 | 150
 기수별 동기생 임원 | 153
 편집후기/기고안내 | 155



열병행사



독립기념관 방문



총동창회기 이양

제30대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대장 취임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군참모총장 등 군 인사와 역대 공군참모총장, 가족 및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김은기(55세, 공사 22기) 대장은 연합사 정보참모부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특히 기획과 정책, 정보 분야 등에 정통한 지휘관으로서 공군의 혁신을 선도할 최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총장은 전 공군 장병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 작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군(3S : Small but Smart & Strongest)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게 된다.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강이 바로서고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두며 합동성을 증시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믿음직한 공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시하였다.

한편, 김성일 前총장은 이날 이임 및 전역식을 끝으로 전투조종사로서 보낸 39년간의 군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명예롭게 전역하였다.



한국 공군을 사랑합니다

공군대학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고급지휘관참모과정을 졸업한 외국군 장교 초청행사 (Home Coming Day)를 개최하였다.

공군에서 처음 실시한 이번 Home Coming 행사는 지난 '83년부터 '03년까지 졸업한 외국군 장교 62명 중 미국, 일본, 베네수엘라 등 8개국 장교 30명을 비롯해 총 56명(가족 포함)이 참가했다.



'83년 3월 외국군 장교로서는 최초로 공군대학 고급지휘관참모과정에 입학했던(당시 소령) 하나피 아스난(Hanafie Asnan) 예비역 대장은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20여년 만에 다시 공군대학을 찾게 돼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사정에 모두 정통한 아스난 (예)대장의 역할로 국산기본훈련기 KT-1 인도네시아 수출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최초로 해외에 KT-1 훈련기 7대를 수출하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재 공군대학에서는 매년 1차수씩 고급지휘관참모과정을 운영(총 48주)하면서 3~7명 정도의 우방국 장교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 탑건에 김재민 소령 등극



「06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공대공 부문 만점을 비롯해 지상 6km 상공에서 시속 1,000km로 비행하며 1m의 지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공대지 사격부문에서도 930.4점(1,000점 만점)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159전투비행대대소속 김재민(공사 44기, 주기종 : KF-16) 소령이 최고의 전투기량을 과

시하며 '하늘의 제왕' 탑건(TOP GUN)에 등극했다.

영예로운 보라매 사격대회에 올해로 벌써 3번째 참가한 김 소령은 이미 지난 2001년 첫 참가 때 공대지 사격부문에서 보라매사격대회 사상 최고점수를 갱신하여 그해 전체 2위와 신인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한바 있다.

김 소령이 다른 조종사들보다 한 차원 높은 사격기량을 보이는 비결은 다름 아닌 비범한 집중력에 있다. 바람, 고도, 속도, 진입각 등 변수가 많은 공대지 사격 시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은 김 소령만의 타고난 '킬러본능' 이다.

최적의 사격타이밍을 위해 늦은 밤까지 비행영상기록장치(AVTR : Airborne Video Tape Recorder)로 자신의 비행기록을 분석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부단히 연구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에어쇼 팀



공군특수비행 블랙이글스팀은 1월 26일 태백산 눈꽃축제에서 첫 에어쇼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멋진 에어쇼를 펼쳐 보이겠다.”고 특수비행대장 이철승 중령은 말했다.

블랙이글스는 최근 5년간 무려 100회의 에어쇼를 펼치면서 군 주요행사, 지역축제 등 화룡점정의 순간이 꼭 필요한 곳에는 항상 함께했다. 각종 사전 훈련 및 전개 기간까지 고려하면 평균 일주일에 하루 꼴로 에어쇼를 위해 전국을 누빈 셈이다.

기동도 빅 하트(Big Heart, 2기의 항공기가 하늘에 하트모양을 그리는 기동)와 태극(2기의 항공기가 하늘에 태극문양을 그리는 기동) 등 기존 23개의 기동 외에도 현재 구상 중인 10개 가량의 새로운 기동을 하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우수한 성능의 국산 기본훈련기

터키 방위사업청 소속 항공기 선정 평가팀 12명(팀장 : 사두만 아지즈(Saduman Aziz))은 자국의 T-37 기본훈련기 교체 대상기종 중 하나인 KT-1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방한했다.



공군은 2월 5일부터 9일까지 제3훈련비행단에서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합동으로 터키 공군 훈련기 평가팀의 국산 기본훈련기 KT-1 시험평가를 지원하였다.

최초 여성 전투기 편대장 탄생



제8전투비행단 소속 박지연(28세, F-5E, 총 비행시간 652시간) 대위는 2월 22일 비행단에서 실시한 편대장 승급 최종평가를 무난히 통과함으로써 전투조종사 임무를 시작한 지 4년 5개월 만에 여성 최초로 전투기 편대장 자격을 획득했다.

박지연 대위는 ‘여성 전투기 편대장’의 신기원을 달성했다는 기쁨보다는 편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몸소 느낀다면서 “믿음을 주는 편대장, 편대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편대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9기 사관생도 입교



선배들의 축하와 격려속에 가입교 예비생도들의 행진

제59기 예비생도들은 5주간의 훈련(제식, 사격, 총검술, 화생방, 체력단련)과 인성교육, 군대 생활 적응훈련 등 가입교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성공적인 생도생활을 위한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



59기 대표생도의 입교 선서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제59기 공군 사관생도 입교식이 2월 23일 오전 10시, 이찬(공사 21기, 중장) 공사 교장을 비롯한 신입생 학부모와 친지, 선배 사관생도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대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학교장 이찬 중장은 “낮선 환경과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정식 사관생도로 출발하는 신입생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명예, 강인한 체력, 리더로서의 자질, 그리고 미래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공군사관학교 제55기 졸업 및 임관식 거행



공군사관학교 제55기 졸업 및 임관식이 3월 14일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대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17명의 여생도와 태국 위탁교육 생도를 포함한 187명의 55기 졸업생들은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는 물론 전원 군사학사 학위를 함께 수여받았다.

염지운 소위가 전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오제일 중령, 오만학 소위 부자를 비롯한 4가정이 군인가족으로 탄생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현대전은 장거리 정밀 화력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음으로 조기 경보체계와 고성능 전투기 정밀 유도무기를 통한 공중우세 전력을 확보, 운영할 수 있는 첨단항공우주군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하였다.

제38대 공사교장 이임



2005년 11월 8일 제38대 공사교장으로 취임하였던 이찬 장군은 1년 반의 재임 기간 동안 국내 최고의 군사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운영체계 개선과 생도 자율성 함양 등 사관학교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2007년 4월 24일 이임하였다.

제39대 공사교장 취임

2007년 5월 2일 제39대 공군사관학교 교장에 박종현(53세, 공사 24기) 소장이 취임하였다.

신임 교장은 제20전투비행단장, 합참 인사/군수본부 인사부장, 공본 전력기획참모부장을 역임하였고, 각종 작전·교육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인 정예 사관생도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세권 교수 NASA와 공동연구

공사 산업공학과 교수이며 공사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인간성능(Human Performance) 연구실에 재직 중인 박세권(공사 32기) 중령이 현역 군인으로서 처음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주로 '인간공학의 항공 분야 적용'을 연구해 온 박 중령은 '우주환경에서의 적응 훈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NASA 에임스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실험실 책임자인 패트리샤 커윅즈 박사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에임스 연구소는 심리-생리학 실험실로 인간의 우주 적응과정을 연구하는 곳으로 공중과 우주라는 낯선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나는 조종사들의 심리-생리학 특성을 분석해 우주공간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박 중령이 스트레스와 피로에 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본 공동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중령은 "이번 연구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공군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선진 우주기술과 노하우를 최대한 습득하여 국가 우주력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공사생도 한국 공사 방문

인도네시아 공군사관학교장 및 3학년 생도 60명이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사관학교 방한단

방한단은 이번 방한기간 동안 고인쇄박물관, 독립기념관, 제3훈련비행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도 방문하여 한국과 한국공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1일에는 인도네시아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공군본부를 방문, 김성일(공사 20기, 대장) 참모총장을 예방하기도 했다.

한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은 항공기 수출을 비롯한 방산협력과 참모총장 교류 등 두터운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군사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박물관을 견학하는 인도네시아 공사생도들

공사 총동창회장상 수여



3월 14일 제55기 임관식에서 공사 총동창회 이억수 회장은 이재환 소위에게 총동창회장상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는 동기생 중에서도 신망이 높아 동기회장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급수송 분야에서 군무를 수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상으로는 전통화된 메달로서 순금 10돈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임관식에서는 서동혁(23세, 남), 장인화(22세, 여) 소위가 동문과 하객들의 축하 속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약혼식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성무지 기고회원 대화마당

공사 총동창회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지 '성무 제34호'를 발간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원고를 기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함을 전하고자 2007년 1월 24일 기고하신 선후배님들을 초청하여 편집위원들과 함께 편집방향의 설정, 원고청탁, 원고교정, 편집과정에 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군무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참석하여 기고 시의 고민, 어려움을 토로 하였으며 진통 끝에 훌륭한 작품이 되었음을 모두가 기뻐했다.



부대 위문



공사 총동창회에서는 조종, 정비, 정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였던 임원들로 편조를 구성 공군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을 위문하고자 2006년 12월 27일에는 8전비를, 2007년 4월 5일에는 19전비를 방문하였다.

각각의 비행단에서 동영상으로 부대현황을 청취하고, 전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장병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든든하였다.



예비역 전환 후배기수 임원들과의 대담



제14차 총동창회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동창회 참석 활성화 유도활동의 일환으로 예비역으로 전환하는 후배기수 임원들과의 대담시간을 12월 6일 수원체력단련장에서 가졌다.

각 기생 대표 총 11명, 운영기수 임원 10명이 참석하여 오찬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총동창회 소식, 협조사항을 전하고 후배들의 소식도 들었다. 총동창회에서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한편 후배임원들의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평생회비 납부의견이 운영기수 이사회에 반영되어 한달간의 추가 홍보기간을 가졌고 후배기수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공사 총동창회는 2007년 6월 21일 공군회관에서 '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및 예산결산 보고와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총동창회 알림' 참조).



이어서 제15차년도 공사 총동창회장으로는 김주식 장군을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14차 운영기수가 맡아 수행하였던 총동창회 업무는 15차 운영기수가 맡게 되었으며, 앞으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15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회 장 : 김주식
부 회 장 : 최용환, 이길환, 차정열,
배양용, 조국현, 김평람,
최광섭, 임용원, 권기동,
엄익준, 정청구
감 사 : 양승묵, 김덕훈
사무총장 : 최영상
후 원 : 공사 15기 사관 일동

이 임 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회원님, 그리고 14기 이사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14기 총조직원들이 공사 총동창회 운영을 맡아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선후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4기생이 '모교발전과 총동창회 활성화'에 역점을 맞추어 의욕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5기 사관에게 총동창회 운영을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14차년도 운영기수는 먼저 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역 및 현역 선후배 모든 동문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원로 선배님을 모신 대담, 그리고 예비역 및 현역 후배 기수 임원, 민간항공 직장동창회원 등 여러 모임의 선후배들과 대화 기회를 마련하여 동창회 활동과 관심사항을 알리고 여러 가지 협조 사항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졸업기수들이 참가하는 홈커밍 행사와 함께 5기생의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비롯하여, 30주년, 20주년, 10주년의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선후배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총동창회원들의 참여의식이 크게 고조되고, 평생회비 적립도 예년보다 5배나 증가되어 총동창회의 재무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번에 35호가 발간되는 우리 동창회지는 그간 11, 12, 13차년도 운영기수 선배님들이 '종이의 질'을 바꾸고, 회지 명칭을 '성무'로 정하고, '편집'을 현대화하는 등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저희 14기는 각 계층의 동창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고와 기고자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인 모교와 공군에서의 우리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작전, 훈련, 일반 업무로, 그리고 전시 김포에

서 시작하여 청원에 이르기까지 교육환경과 생도생활문화의 변화를 특집으로 실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알고 싶은 과제를 염두에 둔 논고 난을 만들었고, 1기에서 50대 기수 동문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기고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인관계로 기별 명단 파악이 미비했던 것을 공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완전한 회원명부를 작성했으며 13차년도에 만들어 놓은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는 미비점을 보완 함으로써 전역자를 위한 취업정보와 공군소식 공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군 사관학교동창회와 교류를 증대하고 전작권반대 등 안보환경변화에 공동대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수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제 14차년도 운영기수의 임무를 마치면서 15차 후배기수에게 영광보다는 해야 할 많은 일을 넘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창회원들은 총동창회의 주인으로서 원로선배님들의 애교정신을 본받아 현역 동창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유도활동 및 모든 동창회원의 애교심 고취활동을 지속하여야 겠으며, 모교발전의 영원한 역할수행을 위해 재무능력 확보에 적극 협력하고, 자유민주주의 조국수호의 기수로서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신임 김주식 회장에게 운영을 인계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5차 운영기수 여러분과 함께 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키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동안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창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반세기동안 다져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14차 운영기수 이사로 함께 애써온 총조회 이용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의 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모든 정성을 다해 총동창회 업무를 관장해 온 김길상 사무총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6월 21일

이임 총동창회장 이 억 수

취 임 사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동창 여러분!

금번 공사 총동창회의 15차년도 운영을 15기 사관이 맡게 되고 부
족함이 많은 저에게 총동창회의 회장직을 맡도록 해 주신데 대해 개
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가 개교된 지도 벌써 반세기가 넘
는 역사를 간직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2001년도 49기부터 배출된
여성사관 123명을 포함 8,300여명의 회원을 배출하였습니다.

모교를 졸업한 우리 회원들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숭고한 공사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국 영공수호
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신명을 다 바쳐왔습니다.

또한 우리 공군이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굴의 도전정
신과 선배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토대로 발전을 거듭하여 오
늘날 최신에 전투기인 F-16과 F-15K를 운용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과학군으로서 성장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총동창회의 발전된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에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선배회원님들
과 역대 회장님들의 덕분으로 생각되며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
니다.

이와 같이 공사 총동창회가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일에 중
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모교의 발전과 우리의 자랑
스런 현역후배들이 미래 공군발전의 새로운 장을 힘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우리 회원이면
누구나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군본부와 사관학교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회원 상호간 애경사는 물론 새로이 사회에 진출하는 후배회원님들의 관심사인 취업관련정보와 각종 홍보사항 등을 가능한 실시간 전파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제15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을 맡은 저와 15기 사관 일동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올인함으로써 모든 회원님들이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군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멋진 공사 총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회원님들과 특히 지난 1년간 총동창회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온 이익수 회장님과 14기 선배회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함께 기원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신임 총동창회장 김 주 식

축

존경하는 1기 사관 최규순 회장님과 역대 참모총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년간 우리 공군과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고 이임하시는 이억수 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

또한, 오늘 신임회장으로 추대되신 김주식 회장님과 임원을 맡게 되신 15기 선배님들께도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모교와 공군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현재 우리 공군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형 공군력 건설과 항공우주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군의 숙원사업이었던 F-X, E-X, SAM-X 등 주요 사업들이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우주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군 및 민간 우주기관과의 교류 확대, 선진 기술 획득을 위한 해외교육 등 그 기초를 차근차근히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차원에서도 전략집중형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Rainbow Project 등 총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공군력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관학교는 이러한 공군의 비전을 선도해 나갈 『정예 공군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수 사관생도 선발에서부터 교육 운영체계 개선, 교수 및 훈육요원 자질향상, 교육훈련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관생도들이 앞으로 훌륭한 공중지휘관이자 군사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총동창회가 더욱 더 발전하길 기원드리며, 현역에 있는 저희도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동창회의 2007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김주식 회장님이 이끄시는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1일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소장 박 종 현

공사 총동창회 홈커밍 행사



2007년 5월 18일 성무대에서 매우 뜻 깊은 홈커밍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공사 5기 사관을 비롯하여 30주년, 20주년, 10주년이 된 25기, 35기, 45기생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일반 졸업생 회원들도 모교방문을 통하여 선후배간 화합의 정을 다지고 모교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가졌다.

홈커밍 행사는 선후배들이 모교에서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지는 취지하에 12기 사관이 총동창회를 운영하던 2005년에 최초로 개최하였다. 다음해에 13기 사관 때에 학사일정과 성대한 행사를 고려 임관기념 행사와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14기 사관 때인 금년에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전 졸업생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예비역 졸업생 중심행사에서 현역 졸업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고 사관생도들도 즐거운 날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07 홈커밍 행사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약 1,000여명의 졸업생들이 참가하였다. 행사는 방문 선후배 영접으로 시작하여 사관학교장, 총동창회장 및 임원단이 성무원에서 회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이어 학교현황과 교육진흥재단 운영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도보로 성무원병장으로 이동하여 제1부 행사를 거행하였다.



약사 보고, 교장의 환영사, 5기 사관 동기회장의 축사, 그리고 총

동창회장 축사, 열병과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열병에는 5기 회장, 총동창회장, 25기, 35기, 45기 회장이 참석하였고, 분열에는 전 사관생도뿐만 아니라 임관 20주년을 맞이한 35기 사관 현역 및 예비역이 참여하는 이벤트(Events)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가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기상관계로 블랙이글의 축하비행을 볼 수 없게 되어 못내 아쉬웠다.

사관학교에서 준비한 하늘관 3층 오찬장에는 졸업생 선·후배 기수와 사관학교 지휘관 참모가 한자리에 모여 5기 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축하하는 1기 사관 회장의 건배로 오찬을 시작으로, 즐기면서 즐겁고 뜻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5기 선배님들을 위하여 총동창회에서는 블랙이글팀의 에어쇼 장면을 크게 현상한 사진을 증정하였다.

제2부 행사는 각 기생별 계획에 의거 동기생과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으로 이어졌다. 5기 사관은 한국도자기 공장과 독립기념관을 방문 후 공군회관에서 만찬을 곁들인 여흥으로 50주년 기념 대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25기생은 당일 사관학교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 후 만찬을 가졌으며, 35기생은 당일 생도식당에서 전 생도와 오찬을 함께하고, 45기생은 시내 호텔에서 오찬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홍거밍 행사



한편, 1기생은 전세 관광버스를 준비하여 초정약수터에서 온천욕과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귀경하였고, 운영기수인 14기생은 관광버스로 부부 동반으로 청남대, 대청댐을 거쳐 유성 스파텔에서 머무르고 익일 대전 국군묘지를 둘러 먼저 간 동기생들에게 헌화하고,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여 고난의 역사와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살피는 뜻있는 제2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일을 맞은 5기생 동기회는 일천만원을 공사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30주년, 20주년과 10주년 졸업 및 임관 기념일을 맞은 25기, 35기와 45기 사관도 모교발전기금을 기탁하여 모교를 사랑하는 선배들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원로 선배님 및 임관기념기수를 제외한 6기에서 54기생은 금일봉을 모아 사관생도들도 즐거운 날이 되도록 특별 다과 지원에 동참하였다. 사관학교에서는 기념 모자를 만들어 모든 참가 회원들에게 선물하였다.



환영사



존경하는 이억수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창회원님들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교 방문을 전 장병 및 사관생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선후배간 화합의 정을 나누는 홈커밍 데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로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신 5기 선배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공군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임관 30주년을 맞은 25기, 20주년을 맞은 35기, 그리고 10주년을 맞은 45기 동창회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회원 여러분!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1949년 6월, 김포의 황량한 들판에서 창설된 이래, 진해와 서울을 거쳐 이곳 청주기지에서 개교 5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숭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정예 공군장교 양성을 위한 선후배님들의 남다른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학교는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군의 튼튼한 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우방국과의 국제교류 확대, 생도 교육훈련 체계 및 환경 개선, 자율적인 생도 자치제 확립 등 끊임없는 교육체계 혁신을 통해,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예 공군장교의 산실로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공군 역사의 면면에 자리하며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신 선후배 동창회원 여러분들의 빛나는 업적과 노고에 재삼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무대 전 장병은 지난 58년간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자랑스런 역사를 밑거름으로 지성과 소양, 인성을 고루 겸비한 선진 정예 공군장교 양성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패기 있는 후배 생도들과 함께 모교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행사에 참석하신 동창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18일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소장 박종헌

경축사

- 공사 제5기 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 -



만물의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전 졸업생을 위하여 홈커밍 큰 잔치를 준비해주신 교장님을 비롯한 모교 성무대 전 직원과 생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관 50주년, 40, 30, 20 및 10주년 기념일에 해당하는 5, 15, 25, 35 및 45기 사관을 축하해서 특별초대해 주신데 대하여 5개 기생을 대신하여 총동창회 회장님과 사무총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고 원로선배이신 1기 사관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후배들의 임관기념일을 축하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1953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지 어언 54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곳 모교연병장에 정렬해 있는 씩씩하고 당당한 젊은 보라매 사관생도들을 대하고보니 50년 전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항상 공명정대하고 자기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사관생도의 명예를, 무용이라는 당시의 교훈과 용의단정, 청렴결백, 성심복종, 책임완수, 신의일관, 공평무사, 침착과감, 신상필벌, 솔선수범, 은위겸비하라는 공사십훈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했던 우리는 1957년 임관 후 지금까지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소중한 명예를 잊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자랑스런 사관생도 후배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들은 30여 년간의 현역생활에서나 전역 후 지금까지의 사회생활에서나 한 번도 성무대 공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명예를 잊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삶의 지표로 길이 간직해 나갈 것입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후배생도 여러분! 고희를 넘긴 여러분의 老 선배인 5기 사관들은 몸은 비록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공군사관 출신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소중한 명예정신은 이곳 성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2007년 5월 18일

5기 사관 회장 정 재 식

축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회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 5월에, 우리의 영원한 정신적 배움의 도장 성무대에서, 모교 전통수립에 초석을 다지고 모교와 공군의 발전을 위해 50여 년간 헌신해 오신 1기 선배님에서부터, 앞으로 항공우주과학시대의 선도자로서 새 문화와 전통을 창조해 나갈 올해 새로 공사인으로 입문한 59기 사관생도 후배님에 이르기까지의 성무인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후배간의 화합의 정을 다지고 모교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가지게 됨을 우리 모두 자축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영광스럽게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신 존경스러운 5기 선배님들께, 그리고 30주년, 20주년, 10주년을 맞이하신 25기, 35기, 45기 후배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모교방문행사는 금년으로 세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2기 사관 선배님들이 동창회 운영을 맡으셨던 2005년에 선후배들이 모교에서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는데 착안하여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행사는 13기 선배님들께서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50주년, 30주년, 20주년, 10주년 기념 졸업 및 임관기념행사를 사관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본 행사와 통합 실시함으로써 모교 방문행사가 더욱 성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인 올해 행사는 예비역 졸업생 중심행사에서 현역 졸업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사관생도 지원행사에도 동참, 모든 졸업기수들이 모교방문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성무인들은 ‘조국과 하늘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공사의 정체성을 신념으로 견지하면서 ‘국기를 위한 희생정신과 헌신봉사’를 삶의 기본가치로 삼고 살아갈 것을 모교 성무대에서 익혀왔습니다.

모교방문행사를 통해 이러한 ‘호국신념과 헌신봉사’를 우리 선후배가 공유해야 할 삶의 기본가치로 재인식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모임이 선후배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존중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모교가 명실상부하게 항공우주과학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리더로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공사문화를 창조하는데 보탬이 되고, 선후배 총동창회원님들께서도 상호 존경과 신뢰와 사랑이 샘솟는 보람된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5기 선배님, 25기, 35기, 45기 후배님의 뜻깊은 임관기념을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사관생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성대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주신 학교장 박종현 장군과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18일

공사 총동창회장 이 익 수

항공우주과학시대의 선도자를 찾으면서 60년간의 공군사관학교 발자취와 그 변화를 조명한다.

공군사관학교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2008학년도(제60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 입학원서

- 접수기간 : 2007년 7월 4일(수)~7월 18일(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www.afa.ac.kr

❖ 1차전형

- 시험일 : 2007년 8월 5일(일)
- 과목 : 언어(듣기 제외), 수리(문·이과 구분), 외국어(듣기, 말하기 제외)

❖ 2차전형

- 시험일 : 2007년 9월 3일(월)~9월 28일(금)
- 시험내용 : 신체검사, 면접, 논술, 체력검정

❖ 최종전형

- 기준 : 학생부(500점), 수능(400점), 면접(50점), 체력검정(30점), 논술(20점)
- 합격자발표 : 2007년 12월 19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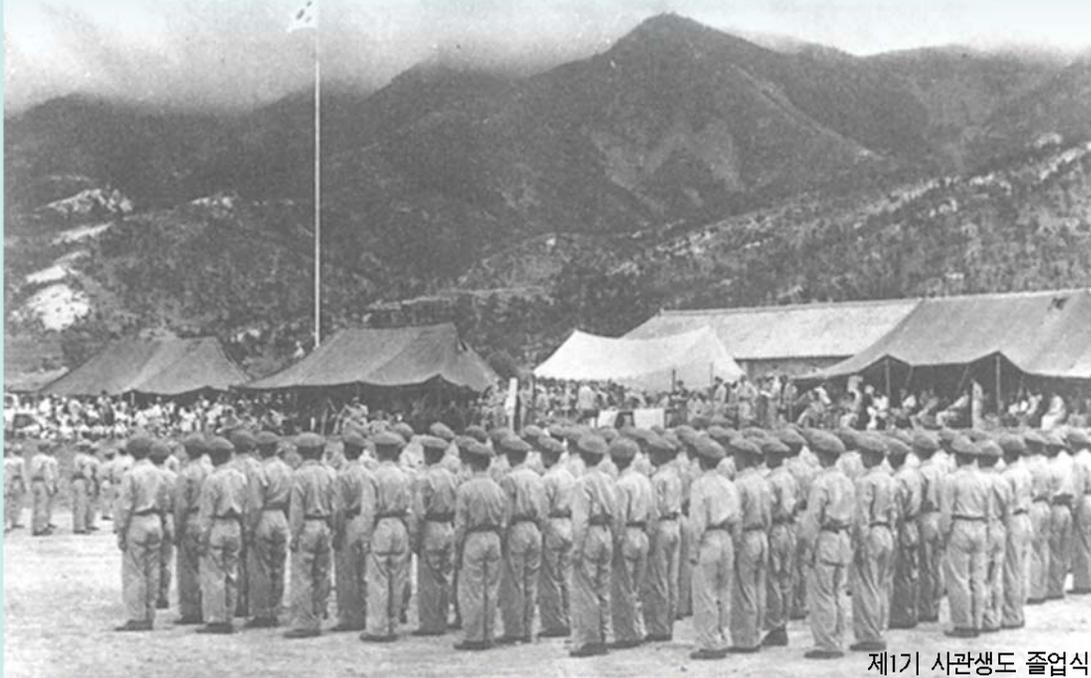
❖ 주요 신체기준

- 시력 : 조종분야 나안 0.5 이상, 정책분야 교정 0.7 이상
- 신장 : 162.5cm~195cm(여자정책분야 160cm~195cm)



1949년 개교 이래 공군사관학교는
 60년에 가까운 연륜을 쌓아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교육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였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초석을 다지던 김포·여의도 시절
 정규학사과정의 현 학제의 근간을 다진 진해 정착 시절
 전공 제도를 도입한 현대적 시설과
 교육체계를 운영한 대방동 시절
 항공우주과학시대의 꿈을 열어가는
 현재의 청원 시절로 구분하여
 사관생도의 생활문화는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살펴보고자
 본 특집을 마련해 보았다.

김포 시절에 대해서는 원로선배님들을 모시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해, 대방동, 청원 시절은 동문들의 **원고**를 취합하여 편집하였다.



제1기 사관생도 졸업식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고

편집실



■ 1기 사관선배들과의 대화

공사 총동창회에서는 공군사관학교가 내년이면 60기 사관생도를 맞이하는 회갑의 연륜이 됨에 따라 공군 역사의 깊고도 굵은 뿌리로서 공군과 우리모교를 오늘에 이르기 까지 성장발전시켜 오신 우리 공군인 모두의 원로이신 1기 사관 선배님들 몇 분을 모시고 지금의 후배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배들에

게까지 들려주고 싶고 남기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듣고자 대담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 선배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고 실감을 드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6일, 공군회관의 아늑한 접견실에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공사 총동창회장 이억수, 사무총장 김길상, 성무지 편집을 맡은 문광(이상 14기 사관), 그리고 대담기사에 도움을 줄 공사 신문기자인 50기생 김재현 등이 활짝 웃으면서 씩씩하게 들어오시는 1기 동기회장 최규순님, 그리고 김영환님, 이명휘님, 정해영님 네 분 선배님을 정중하면서도 반갑게 영접하였습니다.

먼저 공사 총동창회장이 인사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답사로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진행은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동창회 측에서는 회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대화 속에 궁금한 사항을 포함시켜 질문하고, 선배님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순서 없이 말씀하고 또 옆에서 침묵하거나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추가해 설명해주기도 하고, 서로 서로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수정해가면서 편안하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갔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다 보니 선배님들께서 대화내용에 시간적으로, 장소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그냥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정도로 파악해 달라는 말씀도 곁들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기탄없이 말씀하면서 장장 네 시간

반 동안 조금도 쉬는 시간이 없이 노익장을 과시하였습니다.

폭소, 미소와 흥분, 자랑스러움과 아쉬움, 그리고 교훈적인 말씀 등 여러 가지 감성이 묻어나는 대화였나 봅니다.

만찬이 너무 늦어지기에 아쉬워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동창회장의 감사인사로 긴 대화 시간을 끝내고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귀한 말씀 중에서도 꼭 함께 듣고 싶고 글로 남겨보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누구의 질문, 어느 분의 말씀이라는 구분 없이 정리하여 편집해 보았습니다.

■ 대 화

〈○ : 공사 총동창회장단의 질의내용

● : 1기 선배님의 응답내용〉

○ 오늘 모교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공군발전에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 1기 사관 대선배님 네 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1기 사관 동기회장을 오랫동안 맡으시면서 1기 동기회뿐만 아니라 공사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최규순 선배님, 공군과 공사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공군 참전유공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영환

선배님, 특히 저희들의 사관생도시절에 생도전대장님으로 오늘의 저희들이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주셔서 선배님으로보다는 마음속에서 늘 존경하는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명휘 선배님, 풍부한 학식과 지혜,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후배들에게 글과 말씀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주시는 정해영 선배님, 이렇게 네 분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공사총동창회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선배들에게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주어서 대단히 고맙네. 후배들에게 옛날의 기억을 살려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선배로서 매우 즐겁구만.
- 먼저 선배님들께서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여쭙어 볼까 합니다. 그 당시 해방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육·해·공군의 3군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군은 항공사령부로, 공사는 항공사관학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공군이나 항공기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원하셨는지요? 또 지원자는 어떤 분들이었으며 인원도 많았습니까?
- 당시 일반시민들은 태극기를 달고 있는 경비행기를 보고는 항공대가 편성되었구나 하고 얼핏 알고 있었을 뿐, 공군사관학

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몰랐고 무관심했었지. 해방직후라 자기 주변일이 아니면 신경쓸 여력이 없었던 거지. 나라가 그토록 어려우니 당연히 젊은이들도 뚜렷한 장래목표나 큰 희망을 키워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가 많았어.

그럴 즈음 사관생도 모집광고가 나돌고 그것을 보자 '그래 이거다' 싶었지. 우리처럼 피가 끓는 사나이들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라는 '멋'에 끌리고 공군장교가 되어 안정적으로 어려운 집안형편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현실문제의 타개'에도 마음이 움직였던 거야. 물론 그들 모두는 조국의 당시 실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힘이 조국부흥에 보탬이 되게 헌신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겠지.

입학시험을 생각해 보면 100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1,400여명이 되었다고 기억되는군. 15 대 1 또는 14 대 1 그랬으니까(?) 그 당시 모두 형편이 어렵고 갈만한 곳이 없었어. 공부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뭔가 진로를 열어야 할 입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았어.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었지. 예를 들면 흔히들 당시 명문학교라고 하던 서울중학교(현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아이들 40여명이 지원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6명만 합격했더라구. 우리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비교적 우수한 자원이 왔었어. 그래서 1기 합격자 이외 차점자라 하여 더 뽑아서 장교로 교육시켰지. 그 사람들도 공군에 많이 기여했어.

○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사관학교가 몇 차례 이전하여 오늘의 청원 성무대에서 웅지를 품게 되기까지 교육환경이 바뀌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관생도들의 생활문화가 많이 변천해 왔을 것입니다. 원로선배이시며 사관출신의 뿌리이신 1기 선배님들이 입교하실 당시 우리 공군사관학교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요?

● 한마디로 'Nothing' 이었어, 'Nothing' 최종 합격자가 97명이었는데 일단 입교식 날부터 가관이었지. 미군한테서 받은 군복과 군화가 규격과 치수에 상관없이 인원수대로 배당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군복 상하의를 입고 군화를 신어보니 제대로 맞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지.

또 학교 건물은 해방 직후 김포지역에서 주둔하던 미군부대의 부지에 현 건물을 보수하여 만든 콘크리트 건물 1동과 20여 개의 막사 등 가건물이 전부였던지라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말 그대로 맨땅에서 빈손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 더군다나 우리가 입교한 시기가 1949년 6월 10일인데 딱 1년 만에 6·25가 터지니까

대구, 진해, 모슬포, 사천 등지로 옮겨 다니며 근근이 군사훈련, 필수학과교육, 비행교육만 받고 졸업을 하다보니 제대로 되고 수준 높은 교양교육은 옹기 못 받은 거야. 전 국민이 현재의 아프리카 난민처럼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 우리 모두 진짜 이를 악물고 버텼지.

○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배님들이 입교한 후 1년 만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사관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김포에서 대구, 진해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6월 25일 이른 새벽부터 북쪽에서 대포소리가 들려왔어. 그날은 일요일이었어. 당시 교장이 최용덕 장군이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김포지구 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떠나시고 서한호 부교장께서 사관학교 지휘권을 승계 받았어.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6월 27일이지, 학교 연병장 상공에서 우군기(미 공군 소속 F-82전투기)와 적기(야크기)가 실제로 공중전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지. 적기 두 대가 모두 격추되었고 낙하산으로 탈출한 북한군 조종사가 학교방향으로 권총을 난사했는데 우리학교 측에서도 응사하여 사살하였지. 몇몇 사관생도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처음으로 적군을 보고 적개심을 불태웠지. 지

금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으로 전쟁을 크게 실감한 사건일 거야. 바로 그런 사실들이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우리들의 정신무장을 더욱 강하게 한 동기가 된 것 같기도 해.

바로 그날 저녁일거야,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갑자기 야간행군훈련을 떠나는데, 우리는 정말 훈련으로만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후퇴를 하는 거였어. 아끼던 옷들과 소지품 등을 몽땅 내무반에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낡은 군복 한 벌만 달랑 걸치고 행군을 떠나 수원으로, 그 후 대구로, 또 다시 진해로 떠났지. 그 때는 완전히 떠돌이 신세가 된 거지.

그러나 우리 1기생들은 후퇴하면서도 대구와 진해에서 미 공군 F-51 전투기 지상교육을 계속 받았지. 그해 겨울 소위 1·4 후퇴라는 2차 남하하는 대구, 진해를 거쳐 제주도 모슬포기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진해 캠퍼스로 와서 졸업했지. 그때부터 진해에 사관학교가 정착했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1기생들은 훈련만큼은 제대로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하루 열 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지. L-4를 타며 비행훈련도 받고 각종 이론 교육과 군사학 교육에 눈 코 뜰 새가 없었지. 특히 이 교육이 끝나면 전장으로 투입된다는 생각에 훈련과

정 하나 하나가 마치 실전과 같은 무게로 다가왔기 때문에 단 한 시간이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

- 입교 당시에는 교육체제와 제도의 미비점도 많았을 듯하며 더욱이 전쟁 중이라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교육 받으신 선배님들은 훌륭한 장교로서, 또 조종사로서 전시 국가보위를 위해 출격하시는 등 헌신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선배님들이 임관도 하시기 전 피교육자인 사관생도 시절부터 교관역할을 하는 교육자로서 많은 간부를 양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많은 임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을 지도하신 교수진 및 훈육관은 어떠하십니까?

- 환경은 열악하고 매사가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고 매서운 훈련과 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었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전쟁이라는 상황과 교육훈련의 효과로 우리들은 과업을 완수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지.

이렇게 강인한 정신무장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훌륭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사랑의 힘이었다고도 생각되는군. 많은 교수님들은 봉급도 받지 않으면서 무료강의로 헌신봉사 해주셨지.

그 때의 교수진은 대단했어. 해외에서 모셔온 분들도 많았으며, 몇 몇 분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나는군. 우리나라 헌법초안을 만드신 유진오 박사, 지리학의 대가이신 육지수 교수, 공사교가를 작곡하신 국민적 음악가 김성태 교수, 이름난 화가 장발 교수, 나중에 문교부장관을 지내신 윤천주 교수, 그 외에도 여러 유명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어. 당시의 교수진은 최고였지. 충실한 강의의 질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몸소 보여주신 사명감과 봉사정신은 사관생도들의 정신자세를 가다듬게 했지.

일본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교관들의 지도는 견디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강인한 군인정신함양과 심신단련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

아무튼 그분들로부터 배우고, 한편으로는 기술사관 후보생 등 다른 피교육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지. 모두들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쳤지. 그 당시 양성된 간부요원들이 훗날 공군의 핵심적 역할을 했지. 공군의 초창기였기에 피교육자가 교육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지.

○ 선배님들께서는 1951년도 졸업하시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게 참전하셨지만 많은 전공을 세우시고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참전역사를 최초로

열게 되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임택순 대위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께서 순국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될 수 있는 전장에 출격하실 때,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를 하셨는지요?

● 그 당시 한 명의 출격 가능한 조종사라도 빨리 배출시켜 전투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의 참모총장 김정렬 장군께서는 공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사관생도들은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마친 후 전투에 투입해야 한다고 방침을 세우시고 우리 1기생들을 보호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1952년 12월에 첫 출격을 하게 되었지.

우선 우리는 전쟁 상황에서 군에 복무했기에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와 영광도 있었던 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영광방위를 위해 출격하는 조종사의 마음과 각오는 똑같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조국과 하늘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 교육의 정체성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테니까. 다만 그 당시 우리에게만 바로 눈앞에 생과 사의 갈림길의 급박함이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 동기생 중에 6·25 당시 출격해서 전사하신 분들이 임택순, 장창갑, 김현일, 고흥수 이렇게 네 분인데, 다들 참으로 아까운 인물들이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지금도 그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

다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나이들이었어. 그저 하늘에 대한 동경과 애착,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정으로 뽄뽄 뭉친 사람들이었지.

특히 임택순 대위는 '100회 출격을 할 때까지는 천하의 미인이라고 해도 여자는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투임무 수행에 몸과 마음을 바쳤지. 조종하길 참 좋아했었지. F-51을 한 10회 정도 출격했을 때 일거야. 동해안으로 출격나간 친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 자신의 얘기와 함께 적진으로 돌진한 거야. 적의 총탄에 피격이 되어서 아마 더 이상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겠지... 우리들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했으리라고 봐. 아니 그건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교육 받았고 교육 받은 바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지.

- 1기 선배님들께서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국과 공군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공군이 오늘과 같은 정예공군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선배님들이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초석을 잘 다지시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하였으리라 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선배님들의 국가를 위하는 헌신적 정신을 일깨워 주셨듯이 1기

선배님들이 저희 후배들에게는 바로 표상이었습니다. 많은 1기 선배들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셨지만, 특히 저희 14기생들은 1960년대 생도전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직접 지도해주신 이명휘 선배님이 강조하신 '올바른 군인의 기본자세'는 4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은사님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배님들이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지도하실 수 있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처음 길을 열 때는 많은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당황스러운 일들도 겪게 되셨겠지요. 사관학교의 전통을 새로 열면서 부딪친 어려움들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1기 선배님들이 사관학교 졸업 후 특별한 마음가짐과 각오로 군 생활을 하신 결과일 것 같습니다. 졸업식 때의 감회라든가, 군 생활 중에 생각하시는 일화 등의 이야깃거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1951년 진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1기생 졸업식을 가졌지.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 모든 공군인과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지. 바로 그때 누군가가 1기생가의 가사 '피 끓는 젊음

을 하늘에 바치며 하늘을 날아다니리라'고 고함 질렀지. 바로 이 '가사 말'이 전쟁 중인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던 거야. 이 '가사 말'이 우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을 거야. 아무튼 '열심히 출격 준비하고 싸워서 이기자'는 정신무장을 하게 되었고 그 정신이 군 생활하는 내내 마음을 잡고 있어서 군인정신을 강조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 군 생활을 떠난 후에도 항상 정신을 맑게, 행동을 바르게, 명예를 존중하는 생활이 바람직하다고 늘 생각해 왔지.

우리 1기생 때는 여러 교수님, 그리고 공군 윗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가와 교훈의 제정, 편제와 조직을 정비하는 등 길모양을 갖추는데 열과 성을 다했지. 그 후 2기생, 3기생, 그리고 그 이후 기수들이 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협심노력하고 정진해서 점차 안과 같이 모두 좋은 모습으로 향상되어간 거지.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서, 외부간섭으로부터 대처하는 일, 좋은 문화를 만드는 일, 우리 내부의 자율적 절차탁마 등 어떤 일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것은 없었으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와 후배들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외부 압력을 막으려 노력하고 내적으로는 자체 환

경조성에 신경을 썼지. 1기생들의 내외부 환경보다는 2기생의 환경이, 그보다는 3기생의 환경이, 점점 나아져 갔다고 볼 수 있지. 그런 점에서 좋은 전통이 점차 늘어갔다고 해야겠지. 이것은 1기생의 공이 아니라 후배들이 잘 따라주었고 또한 후배기수들의 '발전시켜야겠다는 진정한 마인드'가 주효했다고 봐야지.

○ 1기 사관 동기회의 활발한 활동과 동기생간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 그리고 적극적인 총동창회 활동 등은 후배기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지도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겼고 군복을 벗으신 지도 30 내지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처럼 성공적으로 동기회를 이끌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뭐 특별한 게 있을까? 그저 추억이지 추억...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게 우리를 묶어주는 가장 든든한 끈이 아닐까? 그런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누구라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남다른 동기애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각자가 가지는 개별 추억보다 공유하는 추억이 더 많다고 생각해. 그러니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중요한 추억이 모두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생각도 비슷하지. 특별한 비결이 없는 거지.

뭐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우리 1기 회장이 엄청 부지런하게 동기회를 운영하지. 아들, 딸, 전 가족이 달려들어서 1기생 동기회를 돕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회장 하라고 하고 있지. 아무튼 국내에 머물면서 건강상 출석가능한 회원은 거의 다 모이고 있어.

- 네 분 선배님들께서 뜻깊고 유익한 말씀들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공사를 입교하신 지가 근 60년이 되어갑니다. 군문을 떠난 동창회원 후배들도 많고 현역 후배들도 많습니다. 모든 후배들에게 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현역 후배들에게 공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활력을 주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돌이켜 보면 시간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우리들은 전사이다보니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만으로 버텼으며 주어진 몫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었지. 이제 후배들은 과거와 달리 항공우주과학시대의 첨단 장비와 큰 조직을 리드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해.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무엇이 멋이냐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스스로 공군사관학교를

선택해서 공군장교로 청춘을 보낸 우리 동문들은 공군과 공사가 바람직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때 행복할 것이야. 따라서 우리들의 진한 추억이 담긴 공군과 공군사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도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도우미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멋진 삶이겠지.

아직 현역인 후배들은 나라와 공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에 대한 꿈을 펼쳐 보는 것이 좋겠어. 일할 기회는 한시적이며 찰나와 같이 쉽게 가 버리지. 화살은 내 손을 떠나기 전에 정조준을 해야 하고 힘과 기를 모아서 쏘아야만 명중시킬 수 있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군인답게, 그리고 공군인답게 멋있게 살아가길 바라네. 즉, 국가관이 투철한 정의로운 군인정신, 그리고 임무성격상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군다운 완벽함을 추구하는 책임완수,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멋진 삶은 '비전을 향하여 철두철미하게 사전 준비하고, 정의롭고 박력있게 실행하여 공익목표를 달성할 때' 이루어지겠지. 바로 이런 삶을 위해 일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또한 우리 동문은 공군의 리더로서 모든 공군장병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

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고 싶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포용과 사랑과 칭찬으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어야 되겠지. 아무튼 후배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길 바라고, 또한 인생을 멋있게 살길 바랄 뿐이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군. 이렇게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총동창회 이억수 회장을 비

롯한 회장단에 감사드리네.

- 팔순의 선배님들께서 장시간동안 후배들을 위해 천금같은 말씀을 들려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후배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니 고개 숙여집니다. 선배님들께서 들려주신 귀한 가르침을 잘 새겨서 저희들도 공군과 공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진해의 옛 보금자리를 돌아보고...



4기 사관 박병순

우리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할 무렵인 '52년도 4월은 한국전쟁이 38도선을 전선으로 하여 국군과 괴뢰군 사이에 밀고 밀리는 일명 '톱질전쟁(Saw war)' 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6·25전쟁으로 학교건물이 소실되어 허름한 창고바닥에서 가마니를 깔고 학업을 받아야 했던 고3생으로서 공군사관학교에 응시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요 어려움이었다. 공군사관학교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조차도 알아 볼 것도, 겨를도 없이 입교통지서를 챙겨 들고 진해시 장천동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갔다.

진해사관학교는 400여 평 정도의 목조건물이 두 줄로 나란히 10여 동 늘어서 있었고, 앞으로는 탁 트인 진해 바다를 안고 뒤에는 천자봉을 등지고 있었으며 좌우에는 나지막한 초가집들이 자리하고 있어 경치는 꽤 좋은 곳에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해방 후에 해군이 관리하고 있었던 곳을 공군사관학교가 임시교사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제4기 사관생도를 맞이하기 위해 목조건물 두 동을 신축하여 한 동은 중대본부와 교실, 나머지는 내부반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입교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4기생이 4년제 공군사관학교의 첫 기생으로 입교하여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창군 원로 선배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고생이 모여 이루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원로 선배님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시대에 3군사관학교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뿌리를 찾아보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본다.

공군의 뿌리는 1949년 6월 28일에 육군본부에 항공국이 설치됨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항공사령부란 산하부대가 전부였다. 그러나 창군 원로 선배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3개월 만인 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하여 공군으로 독립함으로써 드디어 공군이 독립적인 군으로 육·해군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 결과 항공사관학교에서 공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고 초대교장에 김정렬 장군이 취임하셨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괴군의 남침으로 김포기지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85명은 김포지역 방어 작전에 투입되었다.

전세가 악화되어 공군지휘부가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사관학교는 배움의 터전을 잃고 제1기 사관생도들은 불리한 전세로 인하여 피난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회고하건대 오늘날의 공군사관학교가 칭주에 영구기지로 자리 잡기까지는 고난과 역경의 6·25 피난시절, 진해 7년간은 사관학교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였으며, 서울에서의 36년간 대방동 시절은 3군사관

학교로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게 되었고 선진국 수준의 공군사관학교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의 공군사관학교 위상은 국제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항공우주군을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초급장교를 배출하는 보금자리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성무인들이 꼭 기억하고 간직할 사항은 6·25 피난시절에 잠시나마 공군의 총지휘부가 유명무실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사관학교는 피난길에 십여 차례의 자리이동으로 머문 기간이 단 2~3일 간이라 하더라도 공군사관학교 분교라는 확고한 명칭을 사용하였음은 당시 원로 선배들이 공군사관학교에 거는 기대와 생도교육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감히 짐작이 된다.

1952년 4월 10일 전쟁 중에 진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나는 고된 군사훈련과 학과교육, 체육활동, 그리고 내무생활 등 새롭고 처음 체험하는 하나하나 군 인격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어갔다. 생도생활 4년 동안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교훈충(忠)·용(勇)·근(勤)·검(儉)과 공사 심훈(空士+訓)이라고..

저 세상에 가는 날까지도 남기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또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교훈과 공사심훈이라고 외치고 싶다.

그리고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은사 한 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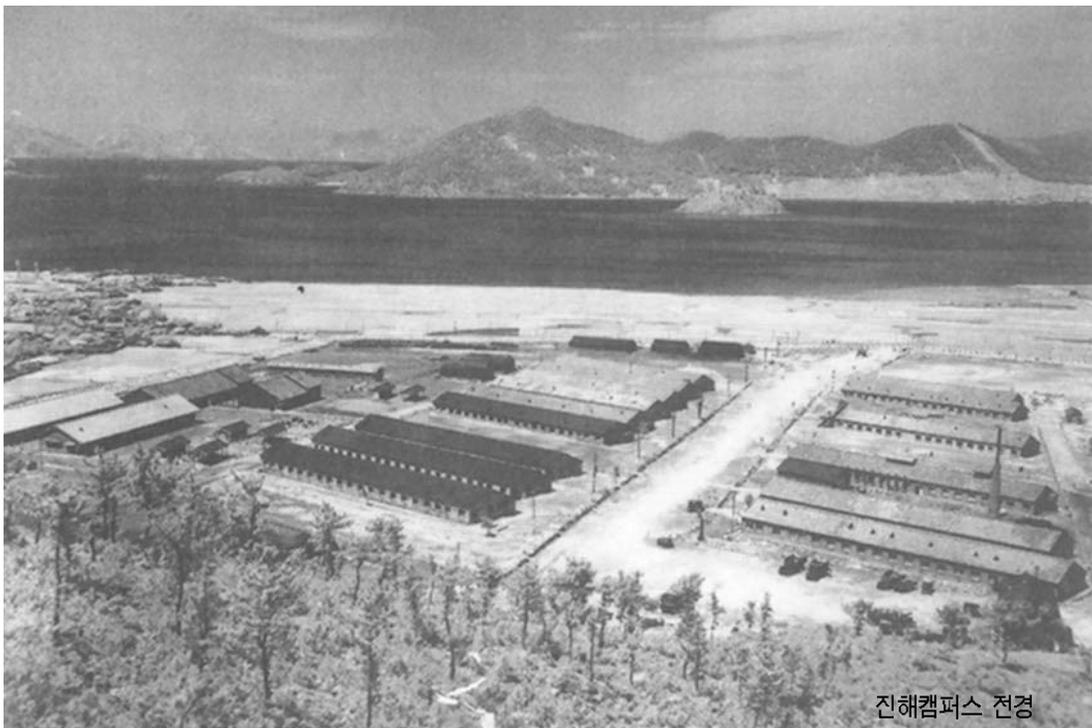
모신다면 생도대장으로 계셨던 한해남 선배님을 꼽고 싶다. 아버이 같은 인자함과 따뜻함이 천자봉 기슭에 고아처럼 떨어져 생소한 군 생활을 하는 4기생에게는 굳은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신 고마운 분이였다.

팔순을 넘으신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사 4기생의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계신다. 그분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말로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부끄럽게 한다.

지난 봄 진해가 벚꽃으로 뒤덮여 온 시가지에 꽃눈이 내릴 무렵 50여년 만에 장천동 공군사관학교 옛 배움의 자리를 찾아갔다. 놀랍게도 옛 보금자리는 풀밭으로 변했고,

겨울 방학이 다가오면 바닷가 돌 위의 얼음을 밟고 찬물로 뛰어 들었던 그 바닷가의 돌밭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는 군항으로 바뀌어 있었다.

수시로 뛰어 올라갔던 천자봉의 큰 바위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건만 옛 공사의 보금자리 뒤편 산자락엔 진해시청이 자리하고 있어 공사인의 꿈이 깃들어 있던 천자봉의 모습을 볼 수 없어 돌아서는 발길은 어딘가 허전하고 아쉽기만 했다. 모퉁이 어느 한 자리의 커다란 바위에 교훈과 공사심훈을 새겨 놓고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고 싶다.



진해캠퍼스 전경

추억과 희망



8기 사관 김도식

청운의 꿈

사람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산다고 한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미래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산다고 한다.
 내가 고 3때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워 대학이 까마득히 멀기만 했지만, 그래도 너도 나도 대학진학을 기대하면서 살았다.
 그 당시 국비로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에는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는 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는 황홀한 꿈의 유혹이었다.
 더구나, 푸른 제복에 반듯한 모자,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에 늙름한 자세로 단상에서 당당하게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는 순간,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부터 공군사관학교는 나의 희망이요, 기대의 전부였다.
 멋있는 생도제복과 절도 있는 몸짓은 선

(線)으로 시작되고 각(角)으로 이루어져 짧은 패기와 힘의 상징이었고, 염원에 불타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상 그것이었다.

1956.3.15.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을 보니 사방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남쪽지방인 진해에는 좀처럼 드문 일기에, 입교를 축복해 주는 하느님의 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모처럼의 설경을 감상할 겨를도 없이, 기대와 두려움으로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진해 공군사관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안내하는 군인들을 따라 약간 오르막의 경사 길을 걸었다.

건물들은 단층으로 검은 기와지붕을 하고 방직공장과 같이 죽 늘어서 있었다. 학교와 같은 빌딩은 없고, 우중충한 공장과 같아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안내받은 건물 안은 교실과 같은 마룻바닥에 군용침대가 양쪽 벽

을 따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급받은 의류와 생활용품들은 모두 미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그 시절 고교생들은 미군복 중고품을 검색하여 교복으로 고쳐 입곤하였는데 새군복을 그대로 입어도 되는 사관생도가 되었다는 신분변화가 놀람기까지 했다.

군대식으로 모두가 이발을 하고, 지급받은 보급품에 주기를 하고, 청소와 정리정돈, 총기수입 등 내무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부대행동, 제식훈련에 필요한 구령 부르기, 관등성명 복명복창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선배들은 친절하면서도 엄격했고, 전국에서 모여든 동기들은 모두가 미남들이고 성격이 활달하여 금방 친숙해졌다.

점호는 특별히 엄격했고,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침점호 때는 집합이 늦었다고 선착순 뺨뺨이는 다반사였고, 항상 늦는 사람에게는 막차라는 별명이 붙어 70이 넘는 현재까지도 막차라고 부르고 있다.

저녁점호는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목이 터질 듯 큰소리를 질러야 하는 복명복창, 군가 및 암기사항 낭송, 선배들의 가슴 밀치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야말로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특별히 계획하여 실시하는 불시점호는 의도적으로 후배들의 혼을 빼는 점호의 종합판

이었다.

각 내무반에서 들리는 관등성명 복명복창, 군가 부르기, 군인의 길 및 공사십훈 낭송 등의 고향소리, 가슴 밀치기로 캐비닛에 부딪히는 소리, 선배들의 기상천외한 착상에 의하여 변형된(?) 복장으로 침구류나 총기를 들고 건물 밖에 집합하는 등 시네마스코프라는 별칭의 난장판이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떠한 난관에 부딪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나 할까?

우리 8기생들은 훈련강도가 높다고 정평이 나있는 해병대에 파견되어 군사훈련을 받았다.

훈련기간 중 6·25 참전 교관들로부터 실전 경험담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군 생활에 필요한 군인정신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방아쇠를 당길 때는 처녀의 유방을 어루만지듯 하라”는 교관의 자세한 설명은 군문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젊은 우리들에겐 매우 인상적이었다.

새로운 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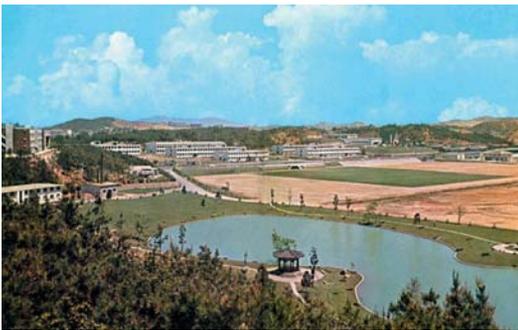
벽도 없이 사방이 확 트인 야외 세면장에서 차가운 바다 바람을 맞으며 찬물로 세탁을 하다 얼은 손을 녹이려고 입김을 불어 넣으면서, 가을이 되어 대방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 이런 고생은 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곤 했다.

1958년 가을 우리는 드디어 진해를 떠나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진해거리, 구보를 하며 지나가던 마진터널, 야회 훈련장인 천자봉 기슭, 진해 앞바다, 그리고 밤이면 유난히 반짝이던 등대불 등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떠나야 했다.

우리 동기생 졸업앨범에는 '바닷물은 짜고 설탕물은 달다'라는 것을 묻지를 말자라는 보편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진해에서의 생도생활의 단면과 힘들었던 사정들을 잘 함축하고 있는 명언(?)이다.



공군사관학교의 서울 대방동으로의 이전은 학교 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생도생활은 물론 생도들의 의식과 문화, 정신세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신축된 학교본부, 내무반, 강당, 식당, 체육관, 도서관 등은 현대식 영구 건물로 방직 공장이나 보급창고와 유사했던 진해시설과는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건물, 시설, 비품 모두가 내 것이라는 애착을 느끼게 하고, 국가와 국민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도생활을 보

다 충실히 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했다.

영화 '용팔이 상경기'에서 보았듯이 생도들에게도 수세식 변소가 예외는 아니었다. 용변을 보고 레버를 눌렀는데 물이 계속 세차게 흘러나오는 바람에 내가 고장을 낸 게 아닌가, 당황해 하던 일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관학교의 수도 서울로의 이전은 우수한 교관의 확보로 훌륭한 강의를 받을 수 있었으며, 문화활동의 참여 기회가 증대되고 인적교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시대변화의 흐름에 늦지 않게 합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간성인 장교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사관학교 4년 동안 교관, 훈육관,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몸에 익힌 것은 화랑도의 세속오계보다도 수행범위가 확대된 공사십훈의 가르침을 본받고 실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가의 간성인 장교 또는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군사교육 이외에도 많은 교양과목과 공학의 전 분야를 광범위하게 섭렵함으로써 기술공군의 주역인 장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게 하려고 시행했던 교육 과정은 생도에겐 그 당시 매우 힘들었지만, 임관 후 실무부대에서는 물론 칠순

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고생하며 배운 많은 지식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이제 59기 사관이 입교하였다 하는데, 공사정신의 바탕인 공사심훈의 가르침을 본받고 실행함으로써 보람되게 생도생활을 마치고, 훌륭한 장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희망과 기대

영겁의 세월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 흐르는 세월에 매듭을 짓는다.
정초는 반갑고, 그름은 아쉽다 하고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에 애뜻한 향수를 느끼고

마음 저리는 미련을 간직한다.
그러나 어찌랴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온다.
우리도 이 속에서 변해 간다.
격랑의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희망이다.
그 희망이 있기에 앞날을 기대하면서 살아 간다.
우리들의 희망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치려는 거룩한 정신의 후배들이다.'

마음으로 듣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변명하는 사람과 결과를 얻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변명형 인간은 일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찾지만
결과형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

- 엘런 코헨 -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망향

- 진해 공군사관학교 시절을 회상한다 -



9기 사관 박종권

공사 9기생으로 보라매 동지를 틀다

공사 합격통지서를 안고 진해 공군사관학교의 교문을 들어서던 때가 1957년 2월 초순이던가, 흘러간 세월만도 반 백년이 넘는다. 빨간 마후라의 사나이가 되기 위해 새파란 젊은 나이에 전국 8도 강산에서 모여든 93명의 꿈나무들, 하늘을 날겠다는 포부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초 긴장감을 안고 진해로 모여 들었던 그때가 어언 50년이 지났지만 진해 시절의 몇 가지 추억은 오랫동안 남아 있다.

열악했던 교육환경 속에서도 보라매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힘든 하루 하루를 인내하며 보내던 당시의 생동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추억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들 9기생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기간은 군대의 초년병으로 겪어야 했던 메추리 시절이었다. 마치 망망대해의 격랑을 헤쳐 가듯 두렵고 불안했던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되돌아

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산고의 아픔이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처음 학교를 찾아든 그날은 몹시 추웠다. 정문에서 보이는 불과 500m 지척거리의 장정동 마을 앞바다는 검푸르렀고 하늘은 새털구름으로 덮혀 있었으며 바람은 차가웠다.

그날 진해에서 바다를 처음 봤다는 친구도 있었고 기차를 처음 탔다는 친구도 있었다. 서로를 촌놈이라면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각자 운명의 길인 공군사관학교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로 머리를 뺨뺨 짚고 맞지도 않은 전투복과 군화를 서로 바꿔 입은 후 30명씩 3개 대대에 편성되어 지도근무 생도 지휘하에 들어갔다. 1주간에 걸쳐 군인 복무규율과 군인 기본동작을 익혔고 공군가와 교가 및 조종사의 노래 등을 익힌 후 신입생 기본군사훈련과정이라 하여 기지를 떠났는데 그곳

이 서부의 황야와도 같은 야산으로 해병대 상남 훈련장이라 했다.

5주간의 지옥 같은 집체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 기간 중 목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며, 6시 기상점호를 마치면 단체로 개울가로 나가서 전날 먼지를 덮어 쓴 얼굴을 씻어내곤 했다. 그래도 그때 그 개울물은 아주 맑았고 신선했다. 교관은 해사출신의 젊은 엘리트 해병 중위로서 우리가 장차 이 나라 하늘의 주인공이 될 사관생도라며 격려하던 그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관생도 초년병의 진해 시절, 이때 9기생들은 기생회의 명칭을 하나의 별이 아닌 폐무리 별들로 은하회로 정하였으며, 나는 별무리 은하를 주제로 9기생가를 작사했고 작곡은 음악가 현종권 씨가 맡아 주셨다. -검은 구름 헤치고 굽힘이 없이 -하늘을 지켜가는 은하를 보라 -군세게 한데 뭉쳐 깃을 펼치어 -나라와 겨레위해 이몸 바치리 -강직한 보라매들 공사 9기생-

메추리 1기생으로 시작하다

진해 사관학교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은 고통스러웠던 메추리 생활 1년 동안의 고달픔과 그 탈을 벗었을 때의 기쁨과 환희라고 할 수 있다. 메추리라는 이름은 신입생에게만 붙여지는 고유한 새로운 이름이었다. 9기생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별칭이며, '메추리'

라는 호칭과 함께 직각식사, 직각보행 등 3가지 기본 동작의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 3월초 보내온 공사신문에서 국가에 충성을 맹약하는 선서를 하며 입교식을 가졌다는 기사를 읽고 50년 전의 메추리 생활이 생각나 새삼 감회로웠다.

- 제59기 신입생들, 멋진 사관생도로 태어나다 -(2007년 2월 23일) 공사신문 1면 톱기사이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공군사관학교 제59기 생도들이 5주간의 메추리 강화훈련을 마치고 정식으로 선배들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교식을 가졌다는 내용인 공사신문을 보고 하늘을 날으는 꿈의 도전에 메추리 1기생 대선배로서 50기 후배에게 경의로운 찬사를 보낸다.

이제 시작이지만 하늘을 날게 되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극복해야 하며 그 인고의 노력으로 지금은 날지 못하는 가냘픈 새 메추리이지만 보라매로 변신하여 봉정만리 호국 비천하는 독수리가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공군사관학교는 보라매의 요람이지 메추리의 둥지가 아니다. 메추리는 새지만 가장 작고 연약한 새, 바닷가 먹이만을 찾아다니는 갈매기에도 비유가 되지 못하는 정신없는 약한 새가 메추리다.

메추리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교육은 1년 동안 계속되었다. 다음 해 신입생에게 물려주는 기쁨과 흥가분함은 2계급 승진 이상이

라 할 것이다. 메추리 명명식과 내재된 정신 교육은 사관학교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 있다 할 것이다. 1년 동안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세계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입생을 메추리라 이름한 것이다.

메추리들은 조인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하늘로, 우주로 가는 새로운 등지를 틀어야 했던 것이다. 4년의 생도생활에서 첫 1년은 생도의 호칭이 아닌 이름 끝에 메추리가 붙어 다녔는데, 이름과 함께 하는 행동양식은 장래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한 자율성 있는 군인을 만들려 했던 것이 기본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메추리는 이와 같이 스스로 차별화된 신분 속에서 인내심과 자율성 및 성실성을 쌓아 나가면서 자기극복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변신한다. 1년 동안 인고의 눈물겨운 생활은 더는 메추리 생도가 아닌, 이름하여 보라매 생도로 태어나는 것이다.

메추리 날개는 그렇게 보라매로 변화해 갔고 부리는 그렇게 조금씩 익세어 가는 것이다.

어느 때쯤이면 보라매 등지를 떠난 새는 드디어 구만리 장천을 날으는 독수리가 되어 봉정만리를 설새 없이 날게 되는 것이다. 난공불락의 마지노 성벽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신념의 조인이 되는 것이다. 메추리 칭호에 관한 의미와 사유가 그러하며 그러한 뜻깊은 의미에서 공사 9기생은 메추리 1기생으로 공

지를 가지고 있다.

영원한 메추리가 아닌 메추리! 하늘로 우주로 향하는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그들에게 있다.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청원으로 옮겨 왔을지라도 보라매의 정신은 변할 수 없으며 그 정기를 이어 받을 새로운 메추리의 호칭과 길들임과 보라매 생도로의 새로운 탄생의 전통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공사 9기생은 자랑스런 메추리 1기생!

진해 공사시절 그 캠퍼스와 그 하늘

공군생활 50년 추억의 시작은 진해 사관학교이고 그 추억의 밑바닥에는 학교 캠퍼스와 내려다 보였던 바다와 우리들의 영원한 망향인 하늘이 넓게 자리해 있었다 할 것이다.

공사 9기생은 진해사관학교에서 4년 중 2년을 보냈다. 남은 2년은 서울로 옮겨 와 보냈는데, 지금은 서울 시민의 아늑한 휴식공간이 된 보라매공원이 그 자리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관악산과 대방동 그 언저리를 지나간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펼쳐지는 학교본부, 교수부, 생도대 내무반, 연병장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본다. 이 때의 추억 못지않게 어려웠던 진해 시절을 떠오르게 하고 그 바다와 그 끝 하늘을 못 잊게 한다.

영하 10도의 차가운 겨울 M-1층을 집중한 채로 연병장에서 나와 진해 장춘동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공군기와 교가를 불러대며 기상을 높이던 일, 죽음의 행군이라 했던 마진터널까지의 왕복 구보 훈련, 천자봉 산중턱까지의 야밤중의 담력 키우기 타이거 트레이닝,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전교생들이 열차로 서울에 올라와 광화문 거리에서 국민에게 나라지킴을 다짐하던 시가행진, 뒤이어 3일간의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등은 잊을 수 없는 진해 시절의 추억들로 남아 있다. 학교의 위치와 건물들은 열악했어도 훌륭한 교관들의 교육 열기와 생도들의 젊은 기상은 지평선과 수평선을 너머 멀리 높은 하늘로 함께 이어져 있었다.

진해의 공사 정문을 들어서게 되면 좌편에 연병장이 있었으며, 그 연병장 입구 모퉁이에는 6·25당시 100회 이상의 출격으로 이름 높았던 무스탕 전투기(P-51)가 전시되어 있었고, 연병장을 안고 학교 본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신상철 장군님이 학교장으로 계셨으며 생도들에게 큰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셨다. 학교 교정에 무스탕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무스탕 전투기 동체

에는 신념의 조인(信念의 鳥人)이라 쓰여져 있었는데 그 글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조인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키워 주었다.

나는 외출했다가 귀영할 때는 항시 조금 일찍 들어와 전투기 좌석에 들어가 앉아 보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좌측 콘솔 패널에 널려 있는 수없이 많은 스위치를 신기하게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였으며, 엔진 마스터 스위치를 온 한다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마스터 스위치를 눌렀는데 그만 그동안 죽어있던 사자가 살아나듯 푸두둑 프로펠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무스탕 전투기가 시동이 걸리면서 살아났던 것이다.

흔비백산하여 나도 모르게 캅피트에서 뛰쳐 나왔으며, 옆에서 프로펠러를 잡고 사진을 찍던 동기생도 나동그라졌지만 천만다행으로 다치지지는 않았다. 다시 좌석으로 들어가 모든 스위치를 꺼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의 일을 계기로 나에게서는 운명적으로 전투기와 일심동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본부는 배터리를 제거하였고 무스탕은 더 이상 생명을 얻지 못했다. 이 때부터 동기생들은 나에게도 도깨비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우연의 일치인가 그 후 10년이 지나 한국 최초의 팬텀기(Phantom-도깨비라는 뜻) 도입을 위한 인수 조종사의 일원이 되었으며, 게다가 팬텀기를 타게 되므로 도깨비가 도깨비를 탄 격이 되었다.

이렇듯 메추리의 꿈은 헛되지 않았으며, 훗날 한국공군이 보유했던 모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에어쇼 팀으로 선발되어 ‘공군의 날’ 한강에서 국민에게 공군력을 과시할 수 있었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의 실현이었다. 그 정신력과 실천의 배경에는 사관학교 시절에 형성된 강인한 정신과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서 죽는다’는 전투 조종사의 사생관과 그 길을 열었던 선배들의 위대한 유산에 힘입었다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산과 바다와 하늘은 그리운 향수이다. 나에게도 남해라는 작은 섬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기에 지평선과 수평선 너머 먼 하늘이 영원한 망향이라면 바다는 가고픈 고향 길이고 그리운 향수였다. 진해 교정에서나 강의실에서 내려다보면 언제나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 푸른 하늘이 맞대어져 있어 미지의 세계인 하늘을 나는 꿈을 펼치곤 했다. 잊지

못할 진해만의 캠퍼스는 그 때의 자취는 없어졌을지라도 창공의 역사 속에 영원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기지 공군사관학교

1950년대 후반은 6·25전쟁으로 시골이나 도시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웠던 때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꿈나무들은 사관학교를 많이들 지망했고, 이들 지망생들은 모두 훌륭한 군인이 되어 위국헌신하며 입신양명하고자 했다. 입학 경쟁률은 30 내지 40 대 1이나 되었다. 공사 9기생들 또한 면면을 살펴보면 명문 대학으로 가지 않고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펼쳐보기 위하여 공사를 선택하였기에 그 기상과 용지는 참으로 대단하였다.

당시 공군사관학교의 환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정문 입구에는 공군사관학교라는 간판이 걸려있을 뿐 보잘 것 없었다. 그리고 위병소 옆에 책상하나를 놓고서 모병관이 들어오는 학생 하나 하나를 확인하며 맞이해주었다. 그분은 훗날 국무총리가 되셨던 이현재 대위님이었는데 당시 공사 교관으로서 경제학을 가르치셨고 9기생들의 1차 합격자들을 면접한 최종 면접관이기도 했다.

그분은 나를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던 교교 담임선생처럼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긴장감을 풀어 주었으며, 처음 들어 보는 메추리라는 호칭을 내 이름에다 붙여 불러주셨다. “박종권 메추리 잘 왔어! 박종권 메추리

는 남해 출신으로서 공군사관학교 최초의 입학생이다.”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최초의 남해 출신이자 공사 9기생이요 최초의 메추리1기생이 되었다.

바다와 하늘, 하늘과 바다, 그것은 대칭적이면서도 면을 같이 해 지평선과 수평선이 하나를 이룬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대지는 바다의 시작이고 바다의 끝은 하늘이다. 돌이켜 보면 육지에서 또 바다에서 하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준했었다. 훗날 나는 전투조종사를 위한 헌시인 <불새>라는 시에서 이렇게 독백했다.

- 누가 너의 진실을 아는가, 누가 너의 사랑을 아는가, 그 누가 너의 고독을 아는가, 그래서 그렇게 떼지어 나는 불새들인가, 나는 느끼노라, 이 빠른 음속에서 너의 신념을, 이 높은 고도에서 너의 의지를, 빛나는 너의

눈동자에서 깊은 애수를, 나는 헤아리노라, 목덜미 붉디붉은 빛깔에서 피보다 진한 망향을, 태양보다 뜨거운 너의 정열을, 활화산처럼 치솟는 너의 생명을, 그래서 너를 빨간 마후라라 이름 했다. -전투조종사를 위한 헌시 불새 중에서-

우리의 영원한 기지 공군사관학교.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했던 공군사관학교의 정신 1958년 늦은 가을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진해 사관학교 교정과 내려다보였던 바다와 그 너머 하늘에 펼쳐졌던 꿈들, 그리고 보라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신념의 조인이 되고자 했던 추억들은 노을져오는 서쪽 하늘이 그러하듯 우리에게 영원히 아름답게 남아 있을 것이다.

2007. 4. 10. 관악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헌집 즐겁게 새집 다오



35기 사관 강성구

진정한 노년을 몇 살부터라고 분류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대략 70세 언저리를 노년이라고 칭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년들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한 다문화 체험세대라 할 수 있다. 그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던 시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그 삶의 형태는 문화의 향유란 거의 있을 수 없었던 참담한 시대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그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풍요로운 문화강국이 되었다. ‘한류’로 일컬어지는 우리 대중문화의 국제적 인기는 분명 우리의 문화가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선도할 만큼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의 궁핍함과 함께 첨단 정보통신을 즐기는 기쁨을 당대에 다 경험한 아주 특별한 세대다. 지금의 노인들이 이렇게 큰 편차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군사관학교 동문들 중 이러한 다중문화를 경험한 세대를 꼽으라면 나는 대방동에서 입교하고 청주에서 졸업한 35기부터 37기까지 3개 기수라고 생각한다. 물론 진해에서 소금국에 고구마를 먹으면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대방동으로 이사한 선배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겪은 문화적 충격은 절대로 우리들(35기~37기)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비교적 배고픔 없이 따뜻하게 청소년기를 보냈던 우리들에게 대방동 공사의 환경은 결코 감동적이지 않았다. 물론 아름다운 조경 등 유서 깊은 역사의 정취는 느낄 수 있었지만 환경이 척박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공사 개교 이래 최대 인원을 선발했던 35기(300명)는 한 내무실에 5~6명을 수용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수

준이었다. 아교로 마무리한 내무실 창문은 아름다운 달빛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차가운 겨울바람도 함께 제공되는 '낭만이 배려된' 공간이었다. 30년이 다된 건물은 그 응집력을 잃었는지 벽으로도 바람이 들어오는 듯 했고 '탕탕' 총 소리를 먼저 내면서 가동되는 난방용 스팀은 소리는 요란했지만 결코 그 찬 바람을 죽이지는 못했다. 혹 어떤 선배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참 군인이 된다고 하실지 모르나 선배들처럼 사회에서도 어렵게 크다가 그대로 어려운 환경에 편입된 세대들과는 차이가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 추위와 문화적 가난은 성품만 버리기 십상이 아니었나 싶다. 풍요롭게 성장한 아이들이 사실은 더 베풀 줄 알고 더 너그를 줄 아는 법이다.

2학년 때던가, 한 겨울에 스팀이 나갔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수리가 되지 않았다. 침대 두 개를 붙이고 서로 껴안고 잠을 자기를 며칠... 생도전대장님의 훈시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끓음의 열기로 추위를 이기기 바란다..." 지금 생각해도 명언이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그 당시 그 말씀을 하신 전대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해가 된다. 아마도 공사의 청주 이전 계획때문에 대방동쪽에는 시설보수 예산을 넉넉히 배정받지 못해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도들 훈육을 책임진 전대장님 입장에서는 먹

고 자는 기본적인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 든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제 곧 우리가 최신식 시설을 갖춘 청주 캠퍼스로 이사를 간다는 희망이 점차 현실로 다가온다는 기대감이었다. 박용태 교장님을 비롯한 당시 지휘관 참모들은 공사 이전이라는 복잡한 사업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85년 12월, 우리는 대방동 공사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서울시, 특히 그 땅을 공원으로 관리해 나갈 녹지과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했지만 교정의 나무들 수백 그루를 뿌리채 뽑아서 청주 캠퍼스로 이사를 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생도시절 2대대 소속이라 신입생도 가입교 훈련이 있을 때마다 침대 하드보드에 살림살이를 얹고, 이고지고 1대대로 이사를 해본 경험은 있었지만 엄청난 규모의 수송차량이 동원된 이전작전은 대규모 작전이었고 장관이었다. 대방동 내무실에 익숙했던 우리가 2인 1실의 청주 내무실에 짐을 풀었을 때의 감동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리오. 따뜻한 온풍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난방하면 '탕탕' 소리가 나아만 되는 줄 알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날 소리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따뜻한 바람은 성령이 하늘



에서 임하시는 것만 같은 감격이었고 행복이었다. 나는 잠시 목이 메어 왔다. 그것은 추위를 많이 타던 내가 그 고행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후배들은 내무실에 들어와서까지 추위에 고생하지 않겠구나 하는 어른스러운(?) 마음이었다(지금 생각해도 대견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어디 그뿐이던가, 학과장은 도대체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이 사통팔달의 구조로 교실을 꾸며놓았고 인체의 구조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최고급 바이오 책걸상이 짜~악 깔려 있었다. 이런 곳에서 학과시간에 공부를 등한시하고 줄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죄악이요,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그런데 사실 또 즐기는 했다). 학과장 옆에 이상하게 생긴 건물(성무문화관)에 들어가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호세 카레라스가 독창회를 해도 될 듯한 최신 시설의 무대를 갖춘 대강당이 턱 하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것이고 이 곳을 내 학교라고 불

리도 되는 것인가.

생도회관, 체육관, 종교센터, 박물관 등등 나는 마치 마법의 성에 와 있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의 4학년 생활은 그렇게 큰 문화적 충격 속에 꿈을 꾸듯 지나갔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환경이 제 공해 주는 문화의 등급은 그 사람의 등급이 된다고 생각한다. 공사의 청주이전을 기점으로 우리 공군은 분명 새로운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쓰는 계기를 맞았다. 인간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경험한 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35기들은 우리 스스로 만든 계획은 아니었음에도 생도시절에는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뭇 들어 올 놈'들이 들어왔다는 힐난을 받았었다. 사실 내가 그렇다. 그리고 10~20대 기수나 40~50대 기수보다 우리 기수가 입교 성적이 처지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도자기는 빛을 때가 아니라 가마에서 구어져 나올 때가 훨씬 중요하다. 나는 우리 30대 중반 기수들이 청주 캠퍼스의 훌륭한 교육환경과 그 환경에 걸맞는 교육을 전수하려고 애썼던 많은 선배들의 노력으로 뜻밖에도 파격적(?)으로 잘 구어진 도자기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선후배님들께서 대방동과 청주캠퍼스를 모두 경험한 그 특별한 세대를 조용히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분명 그 기수

들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들은 낙후된 환경이 주는 열등감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훌륭한

한 환경이 준 영양분을 먹고 놀랍도록 크게 성장한 아주 특별한 행운아들임을 분명 알게 되지 않을까 싶다.

Life is an opportunity, benefit from it.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Life is a beauty, admire it.

삶은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찬미하십시오.

Life is bliss, taste it.

삶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십시오.

Life is a dream, realize it.

삶은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십시오.

Life is a challenge, meet it.

삶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대응하십시오.

Life is a duty, complete it.

삶은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Life is a game, play it.

삶은 놀이입니다. 이 놀이에 함께 하십시오.

Life is costly, care for it.

삶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대하십시오.



What is life?

- Mother Terese

Life is wealthy, keep it.

삶은 풍요롭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지키십시오.

Life is love, enjoy it.

삶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Life is mystery, know it.

삶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십시오.

Life is a promise, fulfill it.

삶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십시오.

Life is sorrow, overcome it.

삶은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십시오.

Life is a song, sing it.

삶은 노래입니다. 삶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Life is a struggle, accept it.

삶은 투쟁입니다. 이 투쟁을 받아들이십시오.

Life is a tragedy, confront it.

삶은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대적하십시오.

Life is an adventure, dare it.

삶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대하십시오.

Life is luck, make it.

삶은 행운입니다. 이 삶을 행운으로 만드십시오.

Life is too precious, do not destroy it.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 이 삶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Life is life, fight for it!

삶은 삶이니, 멋진 삶을 위하여 투쟁하십시오.

남(男)과 여(女)



49기 사관 편보라

처음 여생도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또한 49기로 입교했던 내가 졸업한 지도 6년이 지났다.

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아무 것도 몰랐던 것 같다.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었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면에서 내가 생각했던 바와 현실은 180도 달랐다. 입교한 다음부터는 나 혼자만의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공군의 많은 선배님들이 보고 계셨고 마스크가 있었고 그를 통해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사관학교의 여생도는 굉장히 튀는 존재였던 것 같다.

남생도들과는 다르게, 가는 목소리가 그랬고 긴 머리가 그랬다.

남생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

전혀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다들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내가 입교하기 전에는 학교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여생도가 처음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쇼크였는지 잘 몰랐다.

생각해보면 정말 큰 변화였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여생도들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만의 오랜 문화가 사라질 것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어쨌든 처음 사관학교를 들어온 나로서는 말 그대로 이제 학교에 들어온 '신입생'일 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비행훈련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생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사그러들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생도들과 마찬가지로 생도 생활을 즐기면서 장교가 되기 위한

소양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국 남생도들과 다른 것은 생도생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던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사관학교를 보면 많은 것이 바뀐 것 같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이나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성숙된 것 같다.

군대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실제 군에 있는 '여자'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존재들이다. 그들 마음에 군대에서 '여자'는 하나의 성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군인'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너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과 여'가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우리가 관심있게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그 '다름'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당연히 여자들도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관심을 받는 사실에 조금 힘들었다면 이제는 책임감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택한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과 여 양쪽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고 좌시하고 있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관학교는 공군 장교의 요람이다. 그 안에서의 성숙한 교육과 문화는 자연스럽게 군 생활에 반영된다. 그 점을 생각하면 사관학교 문화의 성숙된 변화는 공군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관학교의 '남과 여'를 기대해 본다.

마음으로 듣기

노(NO)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ON)이 된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어라.

- 노먼 빈센트 필 -

조출만퇴와 항공기



45기 사관 나지훈

나는 청운의 꿈을 안고 공군사관학교 45기로 입교하여 졸업한 후 이제 만 10년하고도 두 달이 더 지난 '고참대위'다. 남들은 나를 가리켜 '환태평양 최고참 대위'라고들 하지만, 한 기수 위의 소령(진)인 고참대위도 아직 건재할 뿐더러, 한참 윗 기수인 영관장교 선배들도 계시니, 군대라는 조직에 완전히 흡수된 '참'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본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처음 항공무기 정비장교로 특기를 부여받은 후, 소위로서의 업무를 배움과 동시에, 선배 장교들로부터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혹독한 정신교육을 받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던 그 조출만퇴(아침 일찍 별들이 아직도 하늘에서 빛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출근하여 저녁에 그 별들이 다시 빛을 발해야 퇴근을 한다는 뜻)의 시기는 정말 왜 그리

도 길게 느껴지던지, 지금 생각해도 암울 그 자체였다.

그렇게 정신없던 와중에도, 사관생도 시절부터 간직한 내 신조들, 그리고 임관 후에 지키고자 했던 장교로서의 자부심과 멋이 있었기에, 20대 초반의 앳된 지휘관으로서 나름 대로의 위엄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하던 기억도 있다. 한편으로는 일선정비사들의 노력과 혼을 담은 정비 덕분에 항공기가 아무런 이상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항공무기 정비 분야가 공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얼마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차차 알아가는 시기였다.

당시 첫 부임지로 인연을 맺게 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은 그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모든 비행단을 통틀어 가장 군기가 엄하고, 분위기도 전투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최전방 비행단이기에 그런 분

위기는 수그러들 줄을 몰랐고, 다른 기지에 근무하던 동기생들과 연락을 할 때면, 동기생들 역시 수원비행단 소속의 내 안부를 걱정해 주기 일쑤였다. 소위라는 내 신분과 비행단 분위기를 비롯한 나를 둘러싼 환경들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었고, 그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강력한 리더십(남들은 어색한 실수투성이 초임장교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을 발휘하고 있었다.

항공무기 장교는 그 당시 대부분 일선정비중대의 정비장교라는 보직으로 시작하여 몇 개월간(길게는 1년 이상) 수련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나 역시 정비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다. 4년 선배인 중대장 밑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숙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 때에, 거칠고 순박한 중대 정비사들과 부대껴야만 했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특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던 내 모습이 다른 중대원들의 눈에는 마냥 어설피 초급장교로만 보였나보다. 누구나 그맘 때면 비슷한 고민을 해봤겠지만 부사관들과의 호칭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내 경우에는, 중사 이상의 부사관에 대해서는 존칭, 그리고 하사는 나이에 따라 손위, 손아래를 구분하여 호칭을 하고 있었다. 나만의 규칙을 지켜 나가며 부사관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했지만, 한 번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중대장은 비행지원에 바쁜 관계로, 대부분의 사역이나 인원동원에 관련된 업무는 정비장교인 내 몫이었는데, 그 날 역시 공군의 영원한 일거리, 제초사역 업무가 떨어졌다. 중사 이하 부사관들에게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집합시간에 맞추어 인원 파악을 위해 해당 장소로 향했다.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 명단을 부르는데 한 명이 없었다. 나보다 두 살 어린 하사였는데 평소 활발하지 않고 과묵하여 별로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늦는가 보다 생각하던 사이 1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종이컵에 들은 무언기를 훌쩍훌쩍 마시며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고 있었다. 중대장님인가? 아님네. 중대장님치고는 너무 여유 있게 걸어 오시는데. 대대장님? 전대장님? 정체를 모를 사내가 점점 다가오고, 드디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럴수가! 어슬렁 어슬렁 분위기를 잡고 걸어오던 그 사내는 제 시간에 집합하지 않은 그 하사가 아닌가!

그래도 장교는 부하들 앞에서 직설적이고 일차적인 감정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늘 배워왔던 기억이 있었던터라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셨다. 지금 생각으로도 그 때 그런 교육내용을 떠올린 것은 나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다. 금방이라도 전투모에 덮여져 있던 머리 뚜껑이 땀~하고 열릴 것만 같았지

만, 온힘을 다해 그 뚜껑을 짓누르며, “이 하사, 종이컵 버리고 부대에 열중해라!” 라고 최대한 엄숙하고 차분하게 얘기했다. 웬만한 덕장이 아니고서야 그 상황에 그런 침착함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사는 바닥에 침을 한번 탁 뱉으며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걸로 기억되는 말로 낮게 중얼거리며 대열에 열중하는 것이 아닌가! 100만 파운드의 힘으로 겨우겨우 차단되어 있던 내 뚜껑이 마하 3.5의 속도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자제력을 잃은 나는 험한 말을 써가며 호통을 쳤고, 그 장소에서 집합해 있던 다른 부사관들 역시 그 분위기에 당황했는지 어느 누구도 한 마디 못한 채, 나와 그 하사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나를 항상 웃고 다니는 그냥 어설픈 초임 장교로 생각하던 그 하사는 나로부터 그런 표정과 호통이 나오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듯한 모습이였다. 결국은 건물 안에 있던 중대장님과 나이 지긋하신 준사관분들이 나와서 말리는 상황까지 이어지고서야 현장에서의 사태가 일단락됐다.

물론 나는 중대장실에 불려가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경솔하게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하사 역시 준사관에게 녹초가 되도록 야단을 맞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 그래도 나는 그 상황에서서는 나 말고 다른 어떤 장교라 하더라도 그

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그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여줬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에 야단을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오히려 내가 중대장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될 뿐이었다. 나중에 그 하사와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그 하사는 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근무지인 자신이 속해 있는 중대로 보임된 혈기왕성하고 비슷한 연배로서 상당히 친근감 있는, 친해지고 싶은 장교로서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 같은 하사들보다는 고참 부사관들과 대화를 많이 했고, 자신은 조금씩 관심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이가 몇 살 적다고 하여 같이 지낸지 얼마되지도 않았음에도 존칭을 쓰지 않는 부분 등 여러 가지로 불만 아닌 불만도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나름대로의 호칭이라든가 기타 중대원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사려 깊고 호감이 가는 장교라고 착각하며 생활했던 것이었다. 그 하사는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일선 정비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성격 자체가 워낙 내성적이고 나를 보는 관점이 그리하니 더욱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나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풀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막 임관한 나로 하여금 장교로서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교라고 불리는 자는 모름지기 먼저 자신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을 깨닫고, 휘하에 수많은 부하들은 이끌어가고 지휘해 나가야 하는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 조직 내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말이나 행동, 생각까지 정비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초급 장교로서 자리를 잡아가려던 시기에, 중대한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97년 8월경, 201정비중대 야외 항공기 공운전(Run-Up)장에서 항공기 엔진 추력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다. 에프 파이브이(F-5E) 항공기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굉음을 내뿜는 엔진에 모두들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중대에 소속되어 있던 정비사(당시 막 진급한 김 상사)가 항공기 시동요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엔진을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주위에 있던 중대장님, 나, 그리고 다른 정비사들도 당황하며 항공기 주위로 가서 그 정비사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 정비사는 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 앞쪽을 가리키며 결함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모두들 정확한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자, 그 정

비사는 작업사다리를 가져다 직접 결함이 의심나는 부위로 올라가더니 나를 불렀다. 항공기에 올라가 보니 시스템 차단 밸브(System Shut-Off Valve) 부위에서 뜨거운 기체(Hot-Gas)가 새어나온 흔적이 보였다. 품질관리실 검사관들이 정밀점검을 해 본 결과, 해당 부위의 공기 통풍로(Air Duct)가 2인치 정도 균열이 가서 그 틈으로 Hot-Gas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최초 발견자인 김 상사가 주의 깊게 기체를 살피지 않고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시켰다면, 치명적인 비행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결함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항공기 동체에 불이 붙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군다나 당시 중점적으로 점검이 되던 부위가 아니었던 터라, 김 상사의 발견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 상사는 작전사령관 안전표창을 수여받게 되었고, 우리 정비중대 역시 엄청난 재난의 위기를 벗어나, 오히려 책임감 있고 실력있는 단체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만약 그때 항공기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엄습해오는 아찔함을 막을 수 없는 큰 사건이었다.

얼마 전에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를 만났다. 후배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배가 나에게 물었다.

“선배님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 무기정비.”

“네?”

내가 무기정비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하자, 후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유인즉, 무기정비라고 하면 바쁘고, 거칠다는 인상이 강하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 후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항공무기정비라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쁜 생활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칠다고들 생각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위험 속에서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런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

의 끈을 항상 붙들고 있게끔 만들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긴장하며, 정신을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거칠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바쁨과 긴장 속의 생활로 인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고, 조종사 역시 마음 놓고 비행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공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은, 항공무기 정비 종사자들의 커다란 자부심이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 그 순간, 영공의 방패 역시 뚫리고 말 것이다. 그런 바쁨과 긴장이라는 묘미가 있기에 항공무기 정비에 종사하는 일이 보람있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마음으로 듣기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 존 호머 밀스 -

사기 드높았던 시절



2기 사관 김진억
전 코리아 헤럴드,
내외 경제신문 사장

나는 매년 1월 2일과 8월 5일이면 어김없이 큼지막한 난 화분을 받고 무척 행복해 한다. 나와 집사람의 생일을 잊지 않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전우애를 이어주는 C사장의 감동어린 이벤트 덕이다. 결코 여유롭지만은 않을 법한 전자관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과거 내가 어떤 사업의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또 어떤류의 특혜도 베풀어 준 적이 없는 순수한 10전투비행단 무장전자 대대장 때의 인연 때문이다.

F-86F 제트 전투기가 도입될 무렵 몇몇 초급 장교들이 화력제어계통(Fire Control System) 정비교육을 위해 미국 공군 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어느 누구도 F-51전투기 교범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무슨 소방 관계일거라고 덩치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웃어 떠벌리던 우리는 그것이 레이더를 이용한 고

속 전투기의 조준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교육이 한참 진행된 이후의 일이었다.

6·25전쟁 시 고정식 조준 장치로 장비된 소련제 전투기 MIG-15에 비하여, 미국의 F-86F는 예상 탄착점을 프리딕션 앵글(Prediction Angle)로 정확히 산정, 레이더에 시현하여 줌으로써 적보다 10배 이상의 격추율을 보였다. 레이더 장비가 성능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그 우수성을 지키기 위한 정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워 우수한 인적 자원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정비 하사관을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시의 난제를 해결하였는데 C사장은 바로 그 그룹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나와 인연의 전부이다. 그 당시의 많은 동료들은 후에 장교로 임관되어 대령까지 승진했는데, C사장은 하사관으로 예편 후 일선 경험을 잘 살려 현재 전자 관련 업종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노년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 로터리 클럽 모임에선 점심을 같이 하고 명사 한분을 초빙하여 강연을 들곤 하였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역사의 권위자이며 중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중국 땅에 있는 위대한 고구려의 역사적 흔적과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일찌감치 그들의 <동북 공정>을 일깨워 주며 걱정하고 있던 한 대학 교수인 그가 강연 도중 나와 한참 시선을 마주치더니 큰 소리로 “혹시 김 대대장님 아니십니까?” 하는 것이다. 웬만하면 유명 교수 체면에 모른 척하고 지나칠 법도 한데 50년 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옛 대대장 재직 시 부하였던 신병과의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

서울 대학 출신이니 우수한 재원일 것이라고 섬유 공학 전공자를 화력 제어 계통의 난이한 정비 문제를 담당시키고, 미국 유학 교육을 보내 연장 복무케 하며 전자 레이더 전문가로 만들어 일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한 사연으로 당시 10전비 무장대대의 S대위와는 지금도 가족처럼 서로 존경하며 왕래하고 있다.

매월 골프모임으로 옛 전우들과 끈끈한 캐릭터를 새삼 느끼곤 하는데 아마도 옛 무장전자 분야 동지들이 타 특기에 비해 식구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했더니, 이젠 그 인원수로 볼 때 공군 특기 중에서도 장성급들도 여럿 배출한 몇째가는 대기족으로 컸고, 신예기의

무장전자 시스템은 날로 발전하여 최첨단 장비들로 대체되고 있어 자공심 또한 커지고 있지만 지금도 동지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늘 실감한다.

F-86D의 전천후 E-4 레이더의 성능 저하는 곧 전투 능력의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지금은 대부분 반도체의 박스 모듈 시스템으로 정비가 훨씬 용이하겠지만, 당시 가동률 저하의 주된 원인은 너무도 복잡 정밀한 전자장치의 본래의 특성에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공에서의 기압 차이로 발생한 극복할 수 없는 진공관 기본 성능의 문제였던 것을 이해하지 못해 일선 조종사들이나 지휘관들의 불만을 많이 받았다. 어설피지만 자전거 타이어 펌프를 개조해 계통의 공기압을 조절해가며 얻어낸 웃지 못할 성과도 생생하다.

F-5 도입 초기에 처음으로 주기장 보어사이트(Boresight) 한답시고, 미 공군 고문관 사무실을 향해 기관포를 집중 사격한 바람에 새파랗게 질려 고문단장실로 달려가 그만 주저 않고 밀었다. 정통으로 명중한 고문관실 콘셋 구멍을 보고 놀랐고 다행히 토요일 오후인지라 아무도 사무실엔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안도감에 그만 궁둥이로 주저앉고 밀었다.

ARC-27 통신기 주파수를 이용하여 유도탄 사격 훈련용 플레어(Flare)를 점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소방차를 대기시키며 이를 지상 활주로에서 실연한 것, 레이더 교란계통

(Jamming System)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고문관들에게 최초로 시연하여 그들의 환성과 박수를 자아내게 한 것 등은 기억에 생생하다.

일선 대대장이 체면도 안 가리고 미 공군 비행사단을 찾아가 훈련탄을 조달하는가 하면, F-5F의 조준장치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노스롭(Nothrop) 회사에도 보다 정밀한 조준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논리를 주장하고 다녔다.

많고도 많은 기술지시(Technical Order)와 미 공군교범/규정 등을 하숙방 가득히 채워놓고 밤새워 섭렵하고, 역으로 고문단이나 기술자/파견 요원들에게도 지지 않고 설교하는 용기는 어떻게 나왔는지? 미 공군교범에 관한한 최고의 권위는 나라고 자부하고 한 줄 한 줄을 훤히 외우고 다니던 그 시절이 아련하다. 아마도 우직하리만치 일에 전력을 다하고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기가 창출해낸 능력이었다고 회고된다.

박봉에다 처절할 정도의 처우밖에 못 받는 부대원들을 채찍하며 새 지식에 대한 성취욕구를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복지후생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부대원들 모두의 끈끈한 단합과 사기를 높인 근원이 되었다고 짐작된다. 늘 최우수 부대라는 칭송을 받고 소리를 높혔던 그 기상이 전통의 캐릭터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여긴다.

리더십은 발휘한다고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휘하요원들이 받아줘야 생성된다. 고정관념과 안주를 거부하는 용기가 항상 발전을 가져온다. 그 시절이야말로 작지만 크게 꿈꾸며 그 꿈을 모두 이룩해낸 귀중한 전력투구의 기간이었기에 그 역사들은 이후 이어진 30년간의 내 생애 최고경영자 생활의 기반이 되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현대 전쟁의 형태를 시시각각 영상으로 많이 보아왔다. 레이더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레이저, 적외선, 감마선, 초음파, 현장영상 모두가 조준 에너지로 활용되는 미래의 무장은 그야말로 정밀하게 정비 유지될 때에만 정녕 본래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전의 열쇠는 공군력에 달렸고, 그 중에서도 무장전자 장비의 능력이 곧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앞으로는 무장전자 분야의 발전이야말로 곧 공군력의 발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의심치 않고 있다.

역사는 늘 강한 자를 대변하였고, 승자의 논리가 중심이 되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킬 사명이 있고, 또한 공군전력을 정예화 하는 임무가 우리무장전자분야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지 여러분은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분발하여 앞서 뛰어가야 하겠다.

IT 强軍 대한공군, 다이만의 정보통신



34기 사관 김용환

“여보세요! 나야, 잘 도착했으니까 걱정 말고 또 전화할게.
 여보! 나야, 잘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도 잘 있지.
 여긴 조금 있으면 저녁 먹는데 거긴 한밤중이지, 잘 자.”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 처음 도착한 날 저녁, 장병들이 고국의 가족들에게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다. 쿠웨이트의 다이만 부대, 한국과는 6시간의 시차, 전세기로 12시간이 꼬박 걸리는 약 1만여 km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리운 가족들의 목소리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동안 이역만리 열사의 땅, 쿠웨이트에서 부여된 임무수행에 전념을 다하는 다이만 부대의 활약상은 주로 항공작전 위주로 소개된 바가 많지만, 여기서는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 분야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쿠웨이트에서도 한국처럼...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 처음 도착

했을 때, 뜨거운 온도만큼이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본국과 생생한 감도로 통화할 수 있게 구축된 전화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할 때와 다름없는 전자문서 체계, 인트라넷체계, 전자우편 등의 업무환경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만큼은 국경이 없음을 실감나게 한다. 이는 각종 정보체계, 통신 체계, 인터넷 운영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첨단 위성통신과 군의 정보통신 기반으로 한국과 쿠웨이트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 다이만 부대는 항공기 자원관리, 항공기 운영 등 항공작전에 필수인 작전 정보 체계와 인사기록 관리를 위한 인사정보체계, 자원 확보 관리를 위한 보급정보체계, 국내

외의 공문서 소통을 위한 국방전자문서체계 및 전자우편 시스템, 인트라넷 홈페이지 운영 등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파병장병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장병들도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편리한 인트라넷 메일 환경은 본국과의 업무 협조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있고 최신 업무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 환경은 60~70년대 월남파병 시절과 비교하여 생각한다면 격세지감을 느끼고도 남을 지경일 것이다. 아마 미군은 이러한 유형의 고도화된 정보통신 체계를 갖고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지휘통제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정보통신 장병들

또한 미군과 협조하여 미 국방교환망(DSN : Defense Switched Network) 전화와 인트라넷/인터넷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비비화 인터넷망(NIPR-NET : Non-secure Internet Protocol Route Network) 및 항공임무

명령서(ATO : Air Tasking Order) 접수를 위한 범세계연합 C4I체계(CENTRIX : Combined Enterprise Region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등을 설치 운영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작전·정보 수집과 동맹군과의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작전통신체계로는 항공작전을 위한 UHF, VHF 및 지상작전을 위한 기지작전 무전기(TRS : Trunk Radio System) 등의 무선체계와 전화·FAX 등의 유선체계가 24시간 가동되고, 만일의 유·무선통신이 불통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지휘통제통신 보장을 위해 인마셋, 이리돔 등의 위성통신 체계를 모두 완비하고 있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 운항 항공기에 대한 항법지원을 위해 전술 항법장비(TACAN : Tactical Air navigation)를 이라크 자이툰 부대 주둔지역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장병들에게 인터넷 사용은 필수이기에 휴게실에는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일과 시간에는 업무를 목적으로, 일과 외에는 자기계발, 여가시간 활용 및 가족친지간 연락 등을 위해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임무 외 장병 사기 및 복지지원에서도 다이만 부대에서의 정보통신의 역할은 유용하다.

지난해 2006년 월드컵 당시에는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차원으로 축구경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응원이 가능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화상회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이국땅에서도 월드컵을 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IT강국 대한민국의 대한공군에 걸맞게 규모만 작을 뿐이지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 환경은 우리나라의 비행기지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사막의 여름은 섭씨 50도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통신·전산 장비실의 냉방장비를 최대한 가동시켜도 실내 온도는 30도를 오르내린다. 정보체계장비는 온도에 민감하여 반드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과 주변의 높은 온도가 더해져서 내부적으로 과열, 과부하 등이 발생해 부품손상 및 성능저하를 야기하고 결국에는 작동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 장비의 작동이 중단되면 이는 곧 지



현재 기온, 섭씨 53도
(화씨 128도)

휘통제기능의 마비이자 작전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능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부대 뒤로 거대한 사막폭풍이 닥치는 모습

정보통신 장비 운영에 있어 환경적 요소는 주요 고려요소 중 하나이기에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막지역에서의 정보통신 장비 운영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막의 무더위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주간에는 적정수준의 장비운영으로 장비자체에서 발생시키는 열을 최소화시키고, 야간에는 실내온도를 최저로 낮추어 주간 시간대에 작열하는 태양열로부터 장비실 온도상승을 지연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더욱이 20도 이상의 높은 기온차는 낮에는 반팔로, 밤에는 야전상의를 입고 근무해야 할 정도이기에 근무자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열사의 고온이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한다면, 주기적인 사막폭풍에 의해 쌓이는 미세

먼지 또한 경계 대상이다. 첨단 컴퓨터 장비와 통신장비들은 사막의 미세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장애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고 예방정비를 통해 고장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업무를 수행 중인 일과 시간에는 장비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모두가 잠든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마치 우렁각시처럼 밤새워 먼지 제거와 자료 백업을 완료하고 새벽녘에 잠을 청하곤 한다.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요원들은 정보통신운영이 곧 작전운영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파병 이래 정보통신 무중단 운영 및 고장률 Zero라는 기록달성을 지키고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보람 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First In, Last Out’ - 6명의 정보통신 팀 -

정보통신은 부대나 병력이동시 가장 먼저 전개지로 이동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철수한다. 말 그대로 ‘First In, Last Out’이다. 이는 정보통신 수단 없이는 지휘나 작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또 부대가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통신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의 역할은 사실상 작전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이만 부대의 쿠웨이트 전개 시에도 다이만 부대 정보통신 요원

들은 선발대로 들어가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여 본대 전개 시 원활한 임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 요원들은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 주둔하는 동맹국에 비해 소수의 인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대에 편성된 인원은 통신과장을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군이 총 인원 200여 명 중 통신분야 근무인원이 16명에 이르고, 미군이 PC, Network 등 정비요원만 중대급으로 편성된 것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인원이다. 그렇지만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 요원들은 어느 동맹군보다도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정보통신 요원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주임무 외에도 필요시에는 다른 분야를 넘나들며 멀티플레이어로 임무수행의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자이툰 쿠웨이트 지원대, 이라크 아르빌 파견대까지 국경을 초월한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팀 6명이 없이는 작전수행을 위한 한 통의 전화도, 메일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 요원들은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부여된 임무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기반으로 파병장병들의 임무 및 업무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고, 동맹군들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 또 고국의 가족들과 반가운 소식을 나누며 장병들이 한층 더 사기를 얻었을 때 등 다이만 부대원들이 움직이고 생활하는 곳곳에 정보통신 기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다이만 부대의 정보통신 요원들은 큰 보람을

갖는다. 또한 다이만 부대원으로서 ‘이라크 자유 작전’ 임무수행에 대한 뿌듯한 자긍심을 갖고, ‘먼저 들어와, 나중에 나가는(First In, Last Out)’ 굳은 마음자세로 정보통신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잃고 살 것인가 얻고 살 것인가

뇌물은 용기를 잃고	청정은 용기를 얻는다.
거짓과 속임은 신의를 잃고	신의는 이웃을 얻고
멸시와 천대는 이웃을 잃고	자비는 천상천하를 얻고
게으름과 태만은 살 곳을 잃고	성실은 설 곳을 얻고
음란과 방탕은 가정을 잃고	곧은 성품은 자유를 얻고
두 말과 변명은 자기를 잃고	용기는 능력을 얻고
사리와 사욕은 정의를 잃고	정의를 만인을 얻고
분노와 분쟁은 자비심을 잃고	용서는 평안을 얻고
오만과 허영은 의로운 스승을 잃고	겸손은 의로운 스승을 얻고
허영과 허욕은 진실을 잃고	실행은 열매를 얻고
원망과 불평은 기쁨을 잃고	사랑은 기쁨을 얻고
간사와 이침은 진심을 잃고	인내는 지혜를 얻는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 놓칠 수 없는 작전



50기 사관 전수진

“뵙~” 야간의 정적을 깨트리는 부저소리이다.

야간근무의 피곤함과 자꾸 감기려고만 했던 눈꺼풀의 무거움은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어? 무슨 일이지?” 하며 잠시 내려놓았던 헤드폰(Headphone)을 귀에 끼고 콘솔을 보았다.

“○○기지 이북항적(NORTH KOREA)입니다. 현재 고도는 ○천피트, 속도는 ○KTS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CON-FERENCE)를 올리는 격양된 공중감시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선임통제장교의 조치가 이어졌다. “○○기지 좌석대기 놓자” 이어 들리는 작전실 내의 페이징(주의환기 방송)과 함께 무기팀에서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각자 맡은 일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통제기사는 비행단에 전화를 하고, 무기배정장교는 통제사에게 임무배당을 하고, 통제사와 통제기사는 임무수행을 위하

여 관제콘솔과 임무주파수를 세팅하였다.

“NORTH KOREA가 지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출동(Scramble)을 겁니다.”

북한항적이 지속 남하하면서 분위기는 더 긴장되었다. 몇 분 뒤 기지에서 비상출동하여 이륙한 이북항적이 콘솔에 깜빡깜빡하면서 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어 “○○, ○○ airborne check inbound”라고 조종사의 최초 교신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칠혹같은 어둠을 뚫고 이륙한 조종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통제사의 목소리는 노련함과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작전실에서 힘든 근무를 하면서 많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침착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통제사는 이륙한 항공기에게 북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군기가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북한항적은 남하와 북상을 반복하더니 착륙하였고, 우리 전투기도 임무전환되어 초계비행을 유지하다가 기지에 착륙하였다.

한바탕 긴장된 순간이 지나간 후 잠시 쉬는 시간을 내어 작전실 밖으로 나왔다. 상황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상황이 종료되고 나니 눈은 더 뻑뻑해지고 피곤이 몰려온다. 새벽 3시, 한겨울 찬바람의 힘을 빌려 잠을 쫓아본다. 20년을 넘게 밤에 잠을 자고 낮에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항공통제 특기를 받으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야간 근무에 적응할 만도 한데, 5년 전 야간이나 지금의 야간이나 새벽 3시가 넘어가면 잠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와 항상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니 내가 전술항공통제본부에 근무하면서 야간 근무뿐 아니라 생소한 경험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처음의 어색함을 무너뜨려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희열도 느껴보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 실망도 느껴보았다. 실제로 비교적 쉬운 임무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 기상악화로 인하여 갑자기 다른 임무로 전환되어 고생도 했었고, 조종사에게 관제를 잘못해서 항의를 받아 본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임무를 담당하여 관련규정과 교범을 숙독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임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나 민항기와 전투

기간의 분리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비행관제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통제사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

항공통제특기를 받고 교육사에서 10주간 특기초급교육을 마치고, 나는 MCRC로 배속을 받게 되었다. 전입신고를 하고 처음 들어선 작전실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약간 흐릿한 조명 아래 뻑뻑하게 비치되어 있는 콘솔, 콘솔 앞에 앉아 관제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만 했다. '저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거야? 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무엇을 하는거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곧 나도 그 사람들처럼 콘솔에 앉아 임무를 하나 둘 배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깜빡깜빡하는 점들과 익숙해져야 했고, 다양한 각종장비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무렵 요격 관제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가상적기가 침투하는 상황에서 우군기가 공격을 들어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전투기 기종의 특성과 성능, 무장, 요격전술 등 배워야 할 이론과 규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렇게 10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평가를 통해 방공무기통제사 흉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과 포부에

가득찬 소위의 바람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달랐다. 수료 후에는 더 많은 임무를 준비하여 실제관제를 해야 했고, MCRC의 전반적인 임무에 대해 파악해야 했다. 통제가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복잡하고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임무까지 배워야 했고, 통제사 개인의 역할에서부터 한팀의 전술조치관의 역할까지 하나둘 밝아나갔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MCRC 내에는 나처럼 방공무기통제사인 장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통제사와 손발을 맞춰 일하는 통제기사를 포함하여, 공중감시와 식별임무를 담당하는 부사관들도 많았다. 물론 군대의 계급구조로는 내가 상관이겠지만, 몇십년 동안 공중감시 및 식별분야에서 일해 온 그들에게 내가 배울 것은 너무나 많았다. 공중감시팀은 어떻게 보면 공군 작전의 시작을 담당하는 중요한 파트였다.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지까지 공중감시의 임무를 맡고 있는 MCRC에서 공중감시 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항공작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최초포착이라는 어려움과 공군작전의 제일 중요한 최초단계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어느 누구도 쉽게 털어주지 못하는 짐이었다. 그

런 분야를 모르고서는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팀워크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해야 했다. 비슷한 임무에 같은 사람들이 임무를 하다보면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중상황은 실시간으로 작전은 기상변화와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라, 그리고 북한 및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기본적 욕구인 잠과 싸우면서 피곤한 야간 근무와 눈코뜰새 없이 바쁜 주간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다는 생각만으로 어깨를 늘어트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끔찍한 어둠을 뚫고 올라온 조종사에게 통제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항적이 지속 남았다면? 이런 상상은 공군 작전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보람으로 나를 다시 근무에 임할 수 있게 해준다. 찬바람을 맞으며 잠을 쫓던 잠시의 휴식을 마치고 작전실로 다시 들어왔다. 몇 시간만 있으면 다음 통제대가 와서 교대를 해줄 것이다. 누군가 와서 교대를 해준다는 기대감과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밝아오는 해를 기다리며 힘든 근무를 버티게 해준다.

에너지절약은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

발등의 불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8년뿐'



24기 사관 최규철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하지만 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도심을 밝히는 아름다운 불빛 하나에도 그 만큼의 비용이 든다.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이용되는 예는 모두 꼽을 수 없을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2002년에는 323억불, 2004년 496억불, 초고유가 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2006년엔 800억불을 돌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약 35%이고 국방비의 4배 규모이다. 우리가 다소 풍부하게 여겨졌던 물 자원도 사정이 악화되어 있다. 2003년 UN이 정한 연간 물 사용 가능량에 따라 풍요국가(1,700m³ 이상/

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119개 국가이고 다음은 부족국가(1,000~1,700m³/인)로서 이집트, 폴란드 등 10개 국가이며 기근국가(1,000m³ 미만/인)로 쿠웨이트, 싱가포르 등 20개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는 1,400m³로서 물 부족국가이며, 물 자원으로 따지자면 세계 125위에 해당되나 물 소비 수준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390리터로서 물 자원은 후진국, 물 소비는 선진국인 셈이다. 따라서 절약은 개인의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국가 경제 문제이자 우리 군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개선하여 경제적인 군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과 환경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

의 주범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프레온 가스 등의 온실 가스는 태양광선의 복사열을 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를 뜻하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 지구생태계의 변화, 자연재해의 증가 등을 불러일으킨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는 기온이 2.5도 상승하면 전세계 10억~2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게 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산업문명을 일으킨 선진국들인데, 안타깝게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는 가난한 섬나라, 저개발국이나 빈민국들로서,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투발루는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전 국토가 바닷물에 잠겨 국민 전체가 뉴질랜드로 집단 이주 중에 있다.

이에 1992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이 채택되었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러시아의 비준(2004년 11월)으

로 2005년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현재 38개 선진국은 2008년~2012년에 온실가스를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이자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감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세계 각국은 내년 말까지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논의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참여 압력은 한층 거세질 것이 뻔한 이치이므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의 장기 발전 방향과 부합된다는 인식하에 정부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원 단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미래 대안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006년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 국민들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나라는 석유위기 때 정부에서 가격을 통

주) IPCC :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8년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 계획이 만든 기구, '90년 이후 5~6년 간격으로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제한 국가가 아니고 가격 자체를 시장 경쟁 체제에 맡긴 대부분의 선진국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는데 우선 에너지 정책목표가 과거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이었다면 새로운 정책방향은 경제성장과 환경,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재설정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둘째로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셋째로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 환경 규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의 지속적 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유류절약 방법으로 가능한 개인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겠다. 만일 승용

차를 이용할 경우 공동 이용(Car Pool)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전기절약 방법으로는 전기기기의 사용방법을 바로 알고 써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한번 켜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켜두는데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절전모드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하거나,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해야 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로 100kwh로서, 컴퓨터의 전기 평균 소모량이 200wh이며 하루 10시간 20일 정도 사용한다면 한 달에 40kwh이고 컴퓨터가 두 대라면 전체 전기요금을 두 배로 내게 될 것이다.

세탁기의 경우 한번 돌리는데 소모되는 전력량은 세탁량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기 때문에 빨래감을 한데 모아 세탁해야 한다.

대기전력의 절감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플러그를 뽑아 전력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리모컨을 사용하는 기기는 자체 스위치를 꺼도 플러그를 뽑지 않는 한 계속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수돗물 절약 방법으로는 물 받아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세면, 양치 시 물을 틀어놓고 세면이나 양치질을 하면 30초에 6l의 물이 소비되는데 용기나 컵을 이용하면 약 5l의 물을 아낄 수 있다. 또한 빨래감을 한번에 모아 빨면 30% 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류, 전기, 수도물 절약이 생활화 된다면 에너지절약과 지구 온난화 방지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에너지절약은 단순히 억제가 아니라 불합리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을 찾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에너지절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원가절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에너지 문제는 절약정신이 기본이며 군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의 시발점은 지휘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장병의 의식이 변

화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병영생활과 부대 운영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의 낭비요소를 제거시키고 고유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에너지 사용 개념을 장병들에게 정립시켜야 하겠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병 입장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적은 양을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각자의 내면으로부터 절약의 심리를 이끌어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이 에너지절약을 선도함은 물론 효율향상을 통한 국방 예산을 점점함으로써 경제적 군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교육장교 시절



18기 사관 진윤섭

공군은 창설 당시부터 교육이 하나의 전문화된 특기로 발전하여 교육훈련의 체계,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육·해군의 귀감이 되었다. 특히 교육평가와 교관운영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타군에서 출장을 왔으며, 물자와 인원이 충분한 육군에 교관과정을 신설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결국 포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각 군의 전통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타군을 보고 나름대로 공군 교육특기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 국방참모대학 창설 당시 교수요원들을 공군대학 교관과정에서 연수시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공군대학과 훈련부대가 모여 있는 교육사령부에서 30여년의 교육장교 생활을 보낸 나에게서는 공군 내에서 교육장교는 별반 흡족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된다. 타 특기 장교들에게 교육장교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쉽고 편안하게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러나

교육훈련현장은 일면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코 편한 것만은 아니다. 교육훈련부대는 거의 일 년 내내 매일 짹 짹 시간표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정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교육생과 교관, 교육성과까지 고려하면 잠깐의 근무처가 될 수 없는 교육장교들은 항상 편치만은 않은 생활의 연속이었다. 실제 힘든 교육과목을 촉박하게 맡은 교관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까지 마시며 몇날 며칠을 준비하여 수업을 마치고 의무대 신세를 진 장교가 있었으며, 나도 미 공대 교재 번역 작업에 시일을 맞추느라 여러 날을 밤샘한 기억이 난다.

교육부대의 지휘관이 바뀌면 교육장교들은 현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인가? 현재대로 운영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교육부대에 새로 부임할 때 부대발전을 위한 업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과목의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고, 어떤 과목의 시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과정 개발절차를 너무 쉽게 또는 무시한다는데 있다. 대부분 미 공군의 교육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교육장교들은 교관과 교육생의 능력, 교육평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무조건 과정목적에 맞지도 않은 과목을 신설하려 할 때, 교관들은 이에 맞춰 교안 및 관련된 교육 준비를 하려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지는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은 필요시 언제나 개정되어야 하나 현재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는 한 선불리 변경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교육과정 개정 시 부수되는 문제 중 하나가 토요일 수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다. 초창기 우리 공군의 교육과정은 미 공군을 따라서 주 5일 시간표였다가 차츰 교육내용의 양을 중요시하여 토요일 수업이 추가되었다. 나는 양보다 질을 근거로 교육생들의 주말 여가 생활을 확보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주 5일 수업을 강력히 주장하여 일부 과정을 관철시켰다.

더 나아가 전력약화와 기강해이라는 이유로 주 5일 근무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던 시기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 5일제 시행이 전력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으며 '80년도부터 필요부서를 제외한 일반부서의 주 5일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교육평가 분야에서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 당시 교육평가가 면에서는 평균 몇 점에 누가 몇 등, 몇 점인가가 주관심사였지만 차 개념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 교관평가가 제법 내실 있게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서 교관들의 불만도 많았지만 자신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관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신중하게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안다.

교육평가분야는 업무성격상 자료정리와 통계분석업무에 남성보다 섬세한 여성군무원이 필요하였고, 이들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여 야간대학에 진학시키고 그 후 그들의 노력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두 분을 생각하면 흐뭇한 생각이 든다.

여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현역 시절 나는 공군에 여군이 없다는 것에 상당한 아쉬움을 가졌다. 나는 매년 미 공군의 잡지에 나오는 미 공군연감을 흥미있게 보곤 했

는데 미 공군은 인원, 장비, 부대규모면에서도 대단하지만 미 공군 장교 중 여군 장교가 15%를 넘고, 7명의 공군 여군 장군이 있다는 자료를 확인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여자생도를 졸업시켜 남자와 대등한 역할을 함으로써 혁신적인 면에 과감했던 공군에 교육장교들이 크게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나는 소위로서의 싱싱한 생활을 다시하고 싶다. 소위로 구대장을 하던 시절, 조종사에게 빨간 마후라가 있듯이, 우리는 흰 워커 줄에 특별한 견장과 휘장을 달고 상당히 구속된 듯 하지만 그야말로 폼나는 독불장군 같은 생활을 하였다. 우리는 훈련병들의 식당 인솔 후 식사감독을 핑계로 같이 점심을 때우곤 했는데 장교 자존심 운운하며 주의를 주시는 대대장의 훈시는 약효가 며칠 가기 힘들었고 특히 목욕탕 옆 두부공장은 우리들 영양보충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자전거 타고 가며 앞에서 오는 지프차에 경례하다가 B지구 가는 내리막길 옆 고랑에 처박혔던 일이며, 스쳐 지나가는 보급특기 소령선배께 결례하여 영창 보낸다고 어찌나 엄포를 놓는지 그 선배가 전속간 후에도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당시 교육사 예하부대의 거의 모든 교육 자료는 교재실에서 제작 배포했는데 갱지 한

장도 아까운 어려운 시절이었다. 나는 교재실장 부임 후 전쟁비축 종이는 군수사에서만 비축하면 된다고 문서해석을 하여 창고에 가득한 종이를 예하부대에 상당기간 충분히 나누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며, 수고가 많았던 교재실 여군무원들에게 매달 한번의 생리휴가를 과감히 시행하다가 주위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몇달 후 여군무원들 스스로 간청하여 취소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하였다.

한때 국방부 법령을 무시하고 3훈비 편제가 교육사에서 작사로 이관된 적이 있었다. 항공기를 보유한 부대는 모두 작사에 소속되어야 효율적이라는 설명에 ‘모든 분필은 교육사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농담을 우리끼리 속덕거리기도 하였다. 교육사를 진주로 이전할 때 우리는 장차 공군의 역할증대와 제헌국회에서 국군창설시 공군병력을 10만으로 잡은 것을 근거로 교육사의 규모를 현재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을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선진국의 사병들이 침대 생활하는 것을 보고 훈련병 내부반에 이층침대를 구비하려 하였으나 예하부대의 침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꼭 시행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지금은 퇴직하여 동기생들과 골프도 치고, 고향 선후배들과 술도 한 잔 씹하며 동

네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등 그런대로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즐기는 이면에는 교육장교 때의 생활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여 교육장교 생활을 한다면

더 멋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군인정신이 투철한 교육장교 후배들이 공군의 각종 교육부대에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건강음식

다이어트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하여

1. 토마토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암성분.



비타민 C도 풍부해 감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특히 다른 야채나 과일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2. 시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괜히 먹은 게 아니다. 시금치에



는 여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칼슘과 철분이 많고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데친 시금치 나물은 한 접시에 겨우 40kcal!

3. 견과류

땅콩, 호두, 잣, 아몬드 등에 들어 있는 비타민 E



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일주일에 2~3회, 땅콩 20알 이상 먹어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난다. ‘먹는 화장품’인 셈.

4. 브로콜리 (양배추)

슬포라판 인동 등의 성분



이 들어 있어 유방암, 대장암, 위암의 발생을 억제한다. 섬유질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식욕을 억제시키는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다.

5. 귀리(또는 보리)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킨다.



(계속)

관리특기가 가져다 준 작은 행복



49기 사관 이수연

적격심사, 하자보수. '이게 무슨 소리야?' 예산 바우처(voucher), 출납공무원. '이건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은데... 행정병이 매달 도장찍어 달라던 종이가 바우처인가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라고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급식비, 급여지급은 어떤가? 아하! 이젠 무릎을 탁! 하고 칠 차례다. '그거 관리처에서 하는 일 아냐?' 앞서 말한 적격심사라는 용어처럼 생소하면서도 요즘 같은 시대에 급식비 지급처럼 마음에 탁 와닿는 업무를 수행하는 멀고도 가까운 곳이 바로 관리처이다. 일반적으로 돈 관리 하면 관리처라고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 크게 빗겨나간 짐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공군 내에서만 보더라도 돈과 관련된 부서가 관리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처에서도 복지기금, 각종 수당업무, 전

세대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지원대 또한 관사관리비, 목욕탕 등 각종 독립채산제 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관리처에서는 부대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타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돈' 하면 '관리처'라는 이미지가 생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관리특기의 고유 업무를 교과서처럼 나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경험담을 통해 관리처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1년에 관리특기를 배정받은 이후로 7년차, 교육사 국방관리 회계과장에서부터 15혼성비행단에서의 계약업무를 거쳐 현재 민간대학으로 파견나와 회계학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다. 배움의 즐거움도 있지만, 도서관과 학교와 집을 오가노라면 어느덧 자주 만나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못내 그리울 때가 있다.

관리업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 연속이다. 행정업무의 특성상 부대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임무가 많은데 그 과정 중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 일이 가끔 있다.

출납공무원으로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장애가족을 둔 가정에 한 분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을까 싶어 고민할 때, 본부에서 복지기금을 담당하던 당시 순직소식에 조금이라도 빨리 상조회비를 지급하려고 은행에 뛰어다녔을 때, 심지어는 매월 부대원이 고대하는(?) 급식비와 시간외 수당을 빨리 지급하려는 생각에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돌아와서 인트라넷에 지급내역을 올리던 그 때조차 작은 보람으로 뿌듯했다. 좀 더 대외적으로 보면, 각종 계약업무시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을 합리적인 원가계산으로 할인하여 국고낭비를 줄였을 때, 은행 담당자와 협상하여 부대예금을 좀 더 높은 이자로 예치하여 국고수입을 늘릴 때, 또한 결국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리특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 과정이고 작은 노력을 더함으로써 국고에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를 얻어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개인적인 일을 꺼내어 보자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신랑을 만난 곳도 관리처라는 사실이다. 업무를 빙자한 연애행각이라고 관리특기 사이에선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같은 관리특기로 누리는 장점이 있다.

우선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말이 통한다'는 것이다. 내 업무에 대해 편하게 얘기를 나눌 상대가 항상 가까이 있고, 함께 특기의 발전방향과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동료로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두 번째로, 재무적 관점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이다. 혹자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관리특기라 급여내역에 대해 너무 잘 알아서 숨길 수도 없어서 딱하다지만 오히려 서로 의심할 일이 없어서 좋다.

어느 특기나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관리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입찰 및 계약 등의 부분에서는 대외업무이자 법에 정해진 절차와 룰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마찰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복식부기 도입 등 정부회계의 발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회계지식은 기본이고,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재테크 등 경제 분야에 대한 부대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경제신문을 매일 읽는 것도 전문성 확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은행보다는 관리처로 예금이자 높은 상품과 대출이자가 싼 상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직장 초년생으로서 어떤 경제습관이 필요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저축상담이라는 고유 업무가 자본주의

의 확대와 재테크의 인기에 맞물려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변화와 발전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게는 본인 스스로의 전문성과 바람직한 경제습관을 키워주고, 나아가 부대와 공군,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보람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리 분야 전체에서 보면 아직도 올챙이에

불과한 나에게는 배워야 할 점도, 겪어보지 못한 업무도 많지만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으며, 대인지원에 있어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주어진 업무인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세계가 인정한 건강음식

강력한 항암, 항바이러스 효과

6. 마늘

사스 예방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늘. 알리신과 스코르진 등은 강력한 항균물질로 식중독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장질환을 예방한다.



8. 적 포도주

자줏빛을 내는 색소에는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의 짙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몸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활성화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인성 치매도 예방한다.

10. 블루베리(또는 가지)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심장병을 예방하며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 가지의 보라색도 같은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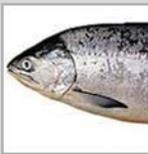
7. 녹차

폴리페놀은 발암물질의 침투를 막고 특유의 짙은 맛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



9. 연어(또는 고등어)

오메가 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고등어는 오메가 3 지방산(일명 DHA)이 연어의 2배! 이 성분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고 노



I 한·중·일 성장 동력산업의 비교



14기 사관 박종선

서 언

성장 동력 산업이란, 향후 5~10년 이후 생산 및 수출을 통하여 돈을 벌어주는 상품(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여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주력산업으로서, 정부 주도하여 국가역량을 집중시켜 추진되는 산업을 말한다.

때문에, 성장 동력 산업은 현재 국가의 주력산업에서부터 국내외 경쟁력, 기술적 변화 전망, 세계 시장 전망,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 창출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특성과 여건에 따라 차세대 성장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03년 8월부터 산자부를 비롯한 30여 개의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이 10대 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미래 경제의 중심으로 주목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즉 한국을 비롯한 경제대국 일본과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의 성장 동력산업 현황

◆ 한국의 10대 성장 동력산업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시작한지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우리정부는 60년대에는 섬유와 합판 및 가발을 포함한 경공업, 70년대에는 철강과 기

계 및 화학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을, 80년대에는 가전과 조선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조립기공산업을, 그리고 90년대에는 반도체와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핵심으로 한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 IT)산업을 성장 주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95년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8년간 2만불 장벽에 봉착, 산업 경쟁력의 정체 내지 하락 추세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대의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정부는 향후 5~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8월 관계부처 간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 발표하였다(도표 1).

도표 1. 10대 산업 세부품목 및 담당 부처

◎ 주관 ◎ 협력

10대 산업	세부구성 품목(총 38개)	담당 부처			
		산자	과기	정통	기타
디지털 TV/방송	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		◎	
디스플레이	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 소재	◎	◎		
지능형 로봇	가정용 서비스 로봇, IT기반 서비스 로봇, 극한 작업용 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	◎	◎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	◎		건교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 소자 관련 소재	◎	◎	◎	
차세대 이동통신	4C 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매틱스	◎		◎	
지능형 홈네트워크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네트워킹, 지능형 정보 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			
디지털 콘텐츠/ SW 솔루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용, 유통 시스템, 문화 콘텐츠, 임베디드 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	◎	◎	문광 해양
차세대 건전지		◎	◎		
바이오신약/장기		◎	◎		복지 농림

발표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건전지, 그리고 바이오신약/장기 분야가 10대 산업에 선정되었으며, 산업별로 총 38개의 세부 구성품목이 확정되었고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등의 담당부처도 정해졌다.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선정 이후, 과기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 기획단을 발족하고, 성장 동력 산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발굴한 49개의 기술도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으며, 정통부도 디지털 TV 등 IT 관련 신성장 동력 9개 품목을 발굴 추진하고 있고, 산자부 역시 중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조성, 국제 협력 등 세부 연구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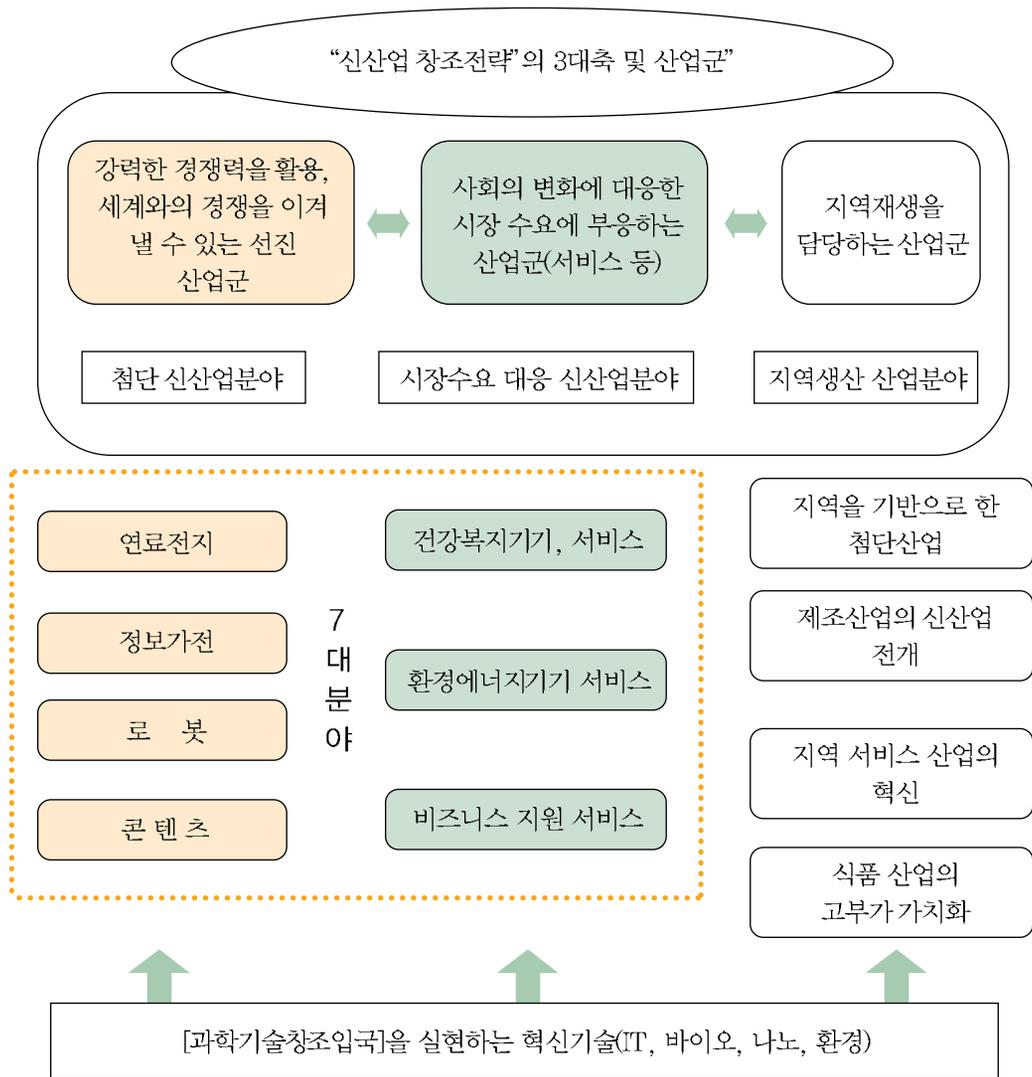
◆ 일본의 신산업추진 7대 성장 동력

일본정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배경은 과거 주력 공산품 제조 및 수출 분야에서 'Made in Japan' 신화를 유지하고,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국가 전략 차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본정부의 신산업 창조전략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환경 문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국제 경쟁력 저하, 지역경제의 침체, 그리고 한국, 중국 등 후발 경쟁국가의 추격으로부터 자국기업의 경쟁우위를 지킨다는 전략적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서 대두되었다.

신산업 창조전략 보고서의 핵심내용(도표 2)은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인 부품, 소재, 원자재 업체와 조립 가공업체 간의 전후방 연관 산업 협력 유지를 위한 첨단형 신산업군육성정책과 서비스 모델 창출 등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규제 개혁추진을 위한 니즈(Needs) 대응형 신산업군육성정책을 수립하여 7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7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는 첨단형 신산업군의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그리고 니즈 대응형 신산업군의 건강/복지기기 서비스, 환경/에너지기기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가 선정되어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7대 신산업 성장 동력 산업을 위한 4대 혁신 기술인 정보통신 기술(IT), 바이오 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공학(ET) 등을 선정하여 이들 분야 간 융합과 협조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창조전략을 수립 및 실천하고 있다.

도표 2.



◆ 중국의 10대 성장 동력산업

중국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경제 우선주의와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라는 모토하에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에 매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89년의 개방, 개혁 이후 중국경제는 연평균 9%대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구매력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3억 인구의 거대국가인 중국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향후 20년간 연간 900~1200만 명의 고용창출과 7% 전후의 고도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향후 10~20년이 자국의 대약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기초 유지 및 새로운 경제 성장 포인트 발굴을 위해 그간 다양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전략을 제시한바 있다.

그 실례로서, 1999년 8월에 발표된 '기술혁신 강화 및 첨단기술 발전, 산업화 추진 결정',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의 일환으로 2001년 7월에 발표된 '10·5 첨단기술 산업 발전계획', 그리고 2002년 6월에 발표된 '국가 산업 기술정책' 등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신산업) 육성전략이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기술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IT, BT, 신소재 등 3개 분야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수준을 보인 분야로는 IT 6개 분야(중문 정보처리기술, 지역망, 광대역 접속기술 등), BT 7개 분야(계놈서열 분석, 식물 유전자 변형, 동물 체세포 복제기술 등), 신소재 6개 분야(형상 기억재료, 나노재료 특성과 부품설계 등)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막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8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10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로서 10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도표 3. 10년간 과학기술분야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큰 핵심 기술

분야	핵심 기술
IT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나노급 칩 기술, 중문 정보처리 기술
BT	인류의 기능유전체 연구, 의학 바이오 기술, 생물 정보학 단백질체 연구, 농작물 신품종 배양기술
신소재	나노소재와 나노기술

위 도표의 자료에 의하면, 10개 핵심기술로는 IT분야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등 4개 기술, BT분야에서 인류의 기능유전체 연구 등 4개 기술, 신소재 분야에서 나노소재와 나노기술이 선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2004년 기술예측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국정방향에 부합되며, 국민 경제의 제품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합한 10대 성장 동력 산업 추진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10대 성장 동력 산업은 IT, BT, 신소재, 선진제조, 신에너지, 환경보호/지원이용, 항공우주, 농업, 현대교통, 기타 등의 분야로 분류되어 각기 구체적인 중점사업까지 확정되어 있다.

한·중·일 성장 동력 비교

한·중·일 3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선정 및 관련 정책을 추진배경과 선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선정 분야 및 관련 정책 비교

	한 국	중 국	일 본
추진 배경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돌파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최대의 인구국가로서 실업/고용문제해결 · 고도성장 지속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불황 타개책 · 인구고령화, 환경문제, 산업공동화, 국제경쟁력저하, 지역경제의 침체 등 돌파구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년 내 출시가능 Cash Cow 제품/기술 ·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정방향에 부합 · 제품기술 수요 만족 · 산업구조고도화 촉매 · 환경친화적 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가능성 · 니즈부합, 내수성장기여 · 일본클러스터에 적합 · 시장실패의 대안분야
선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전자 6개 분야 · 기계, 교통 2개 분야 · 에너지, 환경 1개 분야 · 생명, 보건 1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BT, 신소재, 선진제도, 신에너지, 환경, 항공우주, 농업, 교통 등 10개 분야별 총 134건의 세부 중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형산업 :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 Needs 대응형산업 :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 서비스

	한 국	중 국	일 본
법 령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 성장 동력 산업 종합 실천 계획 · 10대 산업별 실천계획 · 차세대 성장 동력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공업화계획(2002) · 기술예측보고서(2004) · 첨단기술 산업화중점 우선 추진분야지침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전략회의 (2002) · 산업발굴전략(2002) · 신산업 창조전략(2004)
주요 정책 /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지원 · 인력 양성 · 인프라 조성 · 국제기술 협력 ·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 기술 확산 · 생산력 향상 · 기초연구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간 협조체제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 생산성 향상 · 규제 개혁 · 지방/지역 연계 발전

이와 같이 한·중·일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은 그 선정기준에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3국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술·산업의 성장성(시장 규모), 자국의 기술경쟁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보다는 대략 5년 내외에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산업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된 산업 역시 IT, BT, 신에너지 등 미래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해, 이들 3국의 성장 동력 산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로봇 등의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 기계·전자공학 기술)도 포함하고 있는 특이점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특히 3개국의 중복되는 성장 동력 산업은 미래를 위한 3개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결 언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술 수준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 혹은 일본을 바짝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잠재 경쟁국인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대부분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서 현재의 격차가 1년 이내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기술경쟁력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 순환적 분업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 순환적 분업구조란 중국의 수출증대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혹은 무역흑자 증대로 연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 중국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동 분야에서 신규 유망상품의 중국 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시장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중국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류 등을 활용한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시회 참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적 기술선정과 상품 차별화 전략, 중국 내 독자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대 중국 무역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해결을 위한 통상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을 통해 향후 일본 등 선진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운영과 과제 추진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산업간 연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 열위에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 핵심부품, 소재산업의 원천기술 확보 방안 모색과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자체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적 육성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에서,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즉, 반도체 등 전략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여 일본 등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경쟁제품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세계 지역별로 다양한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며 경쟁제품과 차별화로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및 북미, 유럽(EU), 인도 등과의 FTA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국, 일본과의 기업 간 제휴 및 협력, 성장산업에 맞는 서비스 산업 육성,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 원가 구조혁신 등으로 샌드위치 코리아를 지혜롭게 극복하여야만 한다.

II 전쟁과 경영, 그리고 전략



14기 사관 김세영

들어가는 말

왜 이 글을 쓰는가? 전쟁과 경영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문들은 전쟁에 관한 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항상 전쟁과 국가의 안보문제에 책임을 맡아왔다. 전쟁은 지난 1천5백년 동안 인간 역사의 3분의 2를 차지해 왔으며, 20세기의 역사는 분명 전쟁의 역사라 할 만하다. 특히 한반도는 만주, 소련, 중국대륙, 그리고 일본열도와 이웃하고 있어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가 상호 충돌 또는 수렴되기도 하는 지역으로서 무수한 시련을 겪

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의 탓으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다. 그 중국가 간의 전쟁이 기록에서 확인된 것만도 32회에 달한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 싸움보다는 진 싸움이 많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전쟁 후에는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전쟁을 종결한 역사가 대부분이다. 침략자는 나쁘고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선량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량이 우리의 피해를 보상해 주진 못한다.

현재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휴전상태’이며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 117만 명의 상비전력과 남한 70만 명의 현역이 대치하고 있고 무기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2002년에는 서해교전으로 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장병이 전사하는 전투가 있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경제적 의존성이 높아졌어도 국가 상호간 이해관계의 상충 및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다

양한 분쟁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전쟁에 대하여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하버드대학의 한 국제 정치학 교수가 “한국민은 북한의 핵이 무섭지도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동료 한국 교수에게 물어보았다는 기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경영에는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과거에는 국가 안보나 국방은 군인들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력한 군사력과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소련이 왜 스스로 붕괴되고 말았는가? 현대전은 군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비군사적 작전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였다. 국가의 안보 위협은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환경적 차원 등이 동원된다. 특히 경제적인 면은 가장 위력적이다. 그래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와인버거가 말하는 소련과의 ‘조용한 전쟁’의 진실은, 사실은 집요한 미국의 소련에 대한 경제적 파괴의 결과였다.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 실현된 것이다.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리더들은 오늘도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군대 대신 경제안보의 어려운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동력은 전쟁을 하듯이 시장에서 승리한 공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등이나 2등만 살아남는 시장에서 경쟁은 전쟁과 다름이 없다.

가장 좋은 예가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사무실의 이름을 Action Alley(행동하는 길)라고 한 실제의 전쟁상황실(War Room)을 설치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의 탄력을 잃고 대학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첨단산업은 미국, EU 등의 견제를 받고, 일반 굴뚝 제품은 중국 등에 추격을 받으면서 넷크렉커에 끼어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경영인들을 죄인처럼 다루는 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그 예가 없을 것이다. 예로서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던 정치인들은 사면과 그것도 모자라 복권을 시키면서 경제인들은 제외시키는 현실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전쟁과 경영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우선 논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전쟁을 준비하면 반드시 준비된 것을 사용하려는 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지만 일리가 있다.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특히 두 주제를 연결하는 전략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과 경영 관련 전략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공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을 보면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쟁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 선진 각국들은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원거리에서 적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신무기체계들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교리, 전략, 전술들을 발전시켰다. 특히 현대는 인명의 중시와 전쟁의 실시간 중계로 인하여 전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전략적으로 마비시켜 전쟁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1년의 걸프전은 이전의 전통적인 전쟁수행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전쟁이었다. 우선 공중조기경보통제체계(AWACS), 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체계(JSTARS)와

같은 첨단전장감시체계와 F-117과 같은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들이 개발되어 전장에 투입됨으로써 적진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전략중심을 바로 공격하여 공군의 능력만으로 종전을 이끌만한 성과를 올린 전쟁이었다. 과거와 같이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야전군들간의 대규모 근접전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육군이 종전까지 전투에 참전한 시간은 100시간을 넘지 않았다. 대부분 공군의 역할이었다. 기업전략도 공군의 전략개념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쟁과 경영의 관계

최근 경영현장에서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예를 들어 ‘판매고 300억원 돌파’, ‘500만 상자 고지 점령’, ‘일본 제품의 무차별 용단 폭격’, ‘오디오 시장에서의 한판 격돌’ 등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사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영자는 전쟁을 치르듯이 경영을 하여야 살아남는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차입된 것은 용어가 많다고 하여 전쟁과 경영이 같은 것은 아니다. 전쟁과 경영의 다른 점을 살펴보자.

전쟁과 경영은 근본적인 목표가 다르다. 경영의 목표는 생산적으로 수요자 또는 소비

자의 가치를 생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부가가치의 창조인데 비하여 전쟁은 상대를 무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굴복시키는 것이다.

전쟁과 경영의 유사점은 없는가? 많이 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전쟁용어를 빌려서 각오를 다짐하는 것을 보아도 전쟁과 경영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증거이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비슷하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는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정식으로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s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이 변화하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성공했을 때 살아남는다는 것이 생존의 원리이다. 미국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도 30년이 못 되는 현실에서 금년에 202주년을 맞아 기업의 우등생이 된 듀폰이 좋은 사례이다. 전쟁 발발로 화약 주문이 폭주하면서 생산설비를 대폭 확장하였는데, 전쟁이 끝나자 과잉설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페인트, 셀룰로이드, 인조가죽 등 화약 이외의 다른 분야로도 진출하여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갔다. 문제는 조직 구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현대의 환경변화는 불안정성, 불확실성, 복잡성, 애매성으로 묘사되는데 이

에 적응하여야 하는 점에서 비슷하다.

초 긴장상태에서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곡점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비슷하다. 위기의식이 없으면 전략적인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을 볼 수 없다. 변곡점을 만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되고 성공하면 생존할 수 있다. Intel의 경우도 그랬고 IBM이나 Nissan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는 핵실험이라는 안보상의 뚜렷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응이 궁급하다.

대응전략의 수립절차와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이 비슷하다.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쟁과 관련하여 국가목표에서 대전략(국가전략), 군사전략, 작전전략, 전장전략으로 이어지는데 기업의 경우도 임무(Mission)에서부터 비전, 기업의 전반적 목표, 부서 목표, 개별성과 목표로 이어지는 점이 비슷하다.

국가 지도자와 CEO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면 이를 평가하여 전쟁지도를 통하여 위기관리를 하게 되며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큰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의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의 경우도 항상 CEO는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업의 성공 요인에 큰 영향요소가 된다.

그 이외에도 전쟁과 경영에서의 유사점은

많이 있지만 다음에 이 두 가지에 적용되는 여러 원칙과 사례에서 살펴보자.

전쟁과 경영에서 적용되는 몇 가지 원칙과 사례

사회과학에서 원칙은 너무 많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마치 두부를 벽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나름대로 전쟁수행이나 경영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원칙이란 바둑의 정석이나 당구에서 소위 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분야의 고수들의 축적된 경험을 모아 각 상황에 대하여 공식처럼 최적화된 방법론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목표(Objective)의 원칙

기업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명확한 목표를 정하여 공격하여야 한다. 전사에서 살펴보자.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의 전쟁사례를 보면 기원전 331년 10월 1일, 알렉산더는 겨우 5만이 채 안 되는 병력으로 20만 대군의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와의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승리를 했는데 그 비결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페르시아 병사들은 곳곳에서 징집된 군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다만 다리우스 왕에게만 충성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목표를 '다리우스 왕을 죽이거나 전쟁터에서 몰아내는데' 목표를 세우고 전투행동을 집중하였다. 전쟁이 시작되자 다리우스 왕을 목표로 진격을 하여 그를 전장에서 쫓아버리자 예측대로 페르시아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지리멸렬하였고 알렉산더는 승리할 수 있었다.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킴으로 승리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와든의 5개의 동심원전략(Five Strategic Rings)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이다. 그는 적을 하나의 체계로서 분석하면서 모든 전략적 목표물들은 5개 구성요소로 나누었다. 5개의 구성요소는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1)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장 내부에 위치한 지휘부(Leadership)이며, 지휘부 바깥으로 체계의 작동에 있어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유기적 필수 요소인 (2) 처리와 전환(Process)을 위치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3) 기반구조(Infrastructure), (4) 인적 자원(Population), 마지막으로 (5) 대행인(Agent)순으로 구성된다. 적의 전체 시스템에서 리더십이 무력화되거나 파괴된다면 동심원의 기능은 정지되며 그 중요성에 따라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개 동심원 모델의 핵심적인 주제는 전략 수립 시

최우선적인 관심을 적 지휘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갖는 의미는 지휘부의 파괴가 체계의 전체적인 물리적 마비를 가져오는 물론, 여타 동심원의 전략적 중심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은 부분적인 전략적 마비뿐 아니라 지휘부에 견디기 힘든 심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전략은 적국의 '힘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정확히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적의 저항 의지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0년 전 걸프전쟁 당시 미국 및 다국적 연합군은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를 이라크의 힘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파괴하는데 성공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리 후세인의 정권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전략이론가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독재국가의 경우 힘의 중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신이라고 수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만약 북한과의 전쟁을 가상할 때 북한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4월 13일 달을 향해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3호의 경험담도 목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위성의 초기 발사와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3일째 되는

날 사령선의 산소탱크가 폭발하면서 달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우주선 조종사의 생사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사령선에 남은 산소량은 15분 정도였는데 그래서 벼랑 끝에서 목표를 다시 세웠다. 짐 러벨을 중심으로 우주선 조종사와 진 클란츠를 중심으로 한 지구 전문가가 하나가 되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도전하였다. 우주 조종사는 사령선을 버리고 산소가 남아 있는 착륙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지구로 돌아갈 연료가 부족하였다. 고심 끝에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달의 중력을 튕기듯이 이용해' 그 힘을 이용하여 지구로 향하는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치밀한 계산 끝에 이 계획은 성공했다. 그런데 얼마 후 공기 필터가 고장이 났다. 조종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였다. 지구 전문가들은 우주선 안에 있는 물건을 펼쳐 놓고 임시필터를 만들었고 그 방법을 조종사에게 알려줬다. 양말, 비닐봉투, 테이프 등 잡동사니를 모아 훌륭한 생명장치를 만들었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대기권에 진입하였는데 4분간의 침묵기간이 지나고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종사 러벨의 회상에서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지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와 중요한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53년 예일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3%의 학생만이 목표를 종이에 적고 행동계획도 세웠다고 대답했다.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20년 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던 3% 학생들의 성공이 나머지 97%의 학생들보다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전쟁이나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구체화 되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목표물은 명중시킬 수는 없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역사상 가장 뼈아픈 패배를 하였다. 월맹은 '미국 여론'이라는 목표에 공격을 집중하였으나 미국은 이 전쟁에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손자도 병법에서 '범용병지법(凡用兵之法) 전국위상(全國爲上) 파국차지(破國次之) 전군위상(全軍爲上) 파군차지(破軍次之)'라 하여 '용병의 방법은 적국을 온전하게 두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의 용병이고 적국을 파괴하여 이기는 것은 차선책의 용병이다. 적군을 온전하게 두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고 적군을 격파하여 이기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하여 목표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무리 만능 운동선수 일지라도 씨름과 권

투시합에서 동시에 챔피언이 되기는 어렵다. 씨름은 체중을 늘려야 하고 권투는 체중 감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그만 식당에서 한식, 중국식, 일식을 다 잘한다는 식당과 한식이나 중국식 한 가지 메뉴로 특화된 식당 중 사람들은 어떤 식당을 택하겠는가? 우수한 제품이 가능하면 제품을 특화하고 운영의 노하우가 있으면 운영방법을 선택하여 집중화 하는 것이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선택은 다른 것을 버리는 것과 같다. 무엇을 버리고 어떤 것을 택하여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가 잘 아는 조미니 전쟁이론에 나타난 원칙을 요약하면 (1) 근원을 파괴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지렛목 역할을 하는 결정적 지점을 목표로 선택하고 (2) 전략적 및 전술적 기동을 통하여 아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작전 기지에서 목표를 연결하는 작전선을 이용하되 적의 배비가 가장 적은 최소 저항선, 최소 예상선을 이용하여 전략적, 전술적인 기동 실시하며 (3) 집중 및 기습을 통하여 적이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결정적 지점에 우리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기습적으로 집중시켜서 (4) 분산된 적을 각개 격파함으로써 적을 심리적 공황에 빠지게 하여 조직적 저항능력을 마비시키고 아군의 체계적이며 협조된 작전능력으로 분산된 적을 각개 격파하여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즉,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에서 7년 동안 연속 1등 기업으로 존경 받는 기업 GE를 보자. CEO 잭 웰치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전략이 1, 2등 사업을 빼곤 다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맞아, GE 정도면 1, 2등은 해야지... 좋은 전략이네” 하고 무심코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1, 2등이 아니라도 매출도 높고, 더구나 순이익도 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직원도 많은 그런 사업부문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회사를 왜 팔아야 되는가?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그거 판돈으로 1, 2등 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몰아주면 더욱 큰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전쟁에서도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간과 장소에 우세한 전투력을 집중해야 한다. 일단 적의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는 전투력의 상대적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 노력 통합의 원칙

현대전은 가용한 모든 전력을 통합 사용하는 노력 통합의 원칙이 중요하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연합 합동 작전 계획으로 연합

군 최고 사령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오버로드’라고 불리는 작전기간 중에 9천 척의 선박에 100만 명이 넘는 병력과 17만 대의 차량들이 상륙을 감행하였고, 바다에서 702척의 전함과 200여 척의 소해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노르망디 해안으로 병력을 수송하여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 작전은 가장 탁월한 노력 통합의 결실이었다.

크게 보면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이며 안보 동맹이나 연합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NATO의 확대나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아세안 지역 포럼(ASEAN FRF) 등이 그것이다.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지역에서의 핵무기 제거, 러시아의 신생 독립 국가(Newly Independent States)에 대한 포괄적 지원, 북아일랜드의 평화 진전 등은 국가간 노력 통합의 예이다.

경영에 있어서도 노력 통합이 중요하다. MIT의 마이클 포터는 어떤 국가는 경쟁력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는 이유를 규명한 ‘국가경쟁우위’라는 저서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들의 경쟁우위 핵심요인은 부존자원이 아니라 그 국가의 몇 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서로 역할을 통합하는 산업 클러스터란 특정지역에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 각 구성주체가 서로 연결성을 갖

고(Networking), 조직화(Organizing)하여, 자신이 담당한 역할부분을 충실히 수행 (Collaboration)하는 것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와 외부 효과를 발휘하는 통합체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기업들과 지식생산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식제공 기업), 연계 조직(지식집약 사업서비스, 브로커나 컨설턴트 등), 고객의 네트워크이다.

국가 경쟁력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산업 클러스터는 바로 이같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방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상호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합체이며 이러한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인 예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약 40개의 클러스터, 일본 도요타 클러스터, 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올루 클러스터, 독일 투트링겐 클러스터 등이 있다.

손자도 부패왕지병, 벌대국, 즉기중불득취, 위가어적, 즉기교불득합 : 친이리지(夫霸王之兵 伐大國 則其衆不得聚 威加於敵 則其交不得合 : 親而離之 천하를 제패할 국가의 군대가 타국을 정벌할 때는 적국이 군대를

소집하여 병세를 만들 수 없게 하고 적을 위협하여 타국과 동맹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 ;결속이 강하면 분리시켜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살펴본 원칙들 외에도 공세의 원칙, 기습의 원칙, 경계의 원칙 등 많은 전쟁의 원칙들을 경영과 비교하여 사례를 들 수 있지만 많은 원칙들이 전쟁과 경영에 비슷하게 적용되는 일이 많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다른 사례는 줄인다.

맺음 말

전쟁은 참혹한 것이다. 그 피해를 보더라도 20세기에 들어서 직접 전투에서 3천6백만 명이 죽었으며 그와 관련돼 학살된 수는 1억 1천9백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전후 기간에도 이 지구상에선 160개나 되는 많은 전쟁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으며 1945년에서 '90년까지 총 2천3백40주 가운데 전쟁의 총성이 멈춘 날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전사자 수만 해도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맞먹는 72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라크 전쟁지역에 현재 3,7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고 레바논에 전투병력 350명을 곧 파견하여야 하는 전쟁

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외침과 2차 대전 이후에도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많은 전사, 전상자를 내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쟁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였고 여론 선도 층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 파병 때는 국민적인 환송 행사도 생략한 채 젊은이들이 황량한 전쟁터로 떠났다. 이제 레바논으로 전투 병력을 다시 파견해야 한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관심의 기피 의식이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쟁은 선(善)과 악(惡)을 가리는 도덕논쟁이 아니라 강(強)과 약(弱)에 따라 승(勝)과 패(敗)를 가려 존(存)과 망(亡)을 판가름하는 절박한 생존투쟁이다.

우리는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말하는 군사 전문직(The Military Profession)인 장교단의 중추로서 (1) 전쟁이라는 전문기술(Expertise)과 (2) 폭력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책임(Responsibility), 그리고 (3) 사관학교 동창이며 장교단이라는 단체성(Corporateness)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현역에 있거나 예비역이거나를 막론하

고 전쟁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후손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경영은 전쟁과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과거에 비하여 현대 경영은 무한 경쟁의 틀 속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쟁이나 경영이나 자신을 알고 적을 안다는 것은 나의 약점과 강점, 적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경우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평화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환경 변화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아마도 과거의 비극과 가난이 또 다시 도둑처럼 찾아 올 수도 있다. 영원한 평화와 높은 수준의 생활의 질을 갈망한다면 전쟁의 본질과 현대 경영을 이해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 전쟁을 잊고 있으면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옛 경구는 아직도 유효하다.

좋은 글은 상상력을 남겨 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못한 내용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많은 부분에서 읽는 이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야 하는 글이 되어 매우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비행기



25기 사관 서병권

I 어둠 속에서 깨어나다

영겁의 어둠 속에서
마음으로 조차 셀 수 없었던 날들을
날기 위해 꿈꾸어왔다.

이 무거운 육신으로, 처절하게 만년의 어둠 속에
침잠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누가 깨워 저 먼 하늘로 솟구치게 할 것인가를...

II 의지만이 날게 할 수 있다

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거부해온 저 창공을
오랜 소망과 꿈이
먼저 하늘을 날고 난 다음에야

나는 비로소
나를 수 있는 형상으로만
영겁의 어둠으로부터 솟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날기 위한 꿈은 어머니였고
의지와 열정은 자손이었으니...

신은 그들의 새를 보여주었다.

III 나를 수 있는 형상으로만 비상할 수 있다

그 뜨거운 불들과 의지가 나를 깨운 후
飛上을 거부하던 신의 마음을 녹이고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으로
나를 꺾고 다듬고 어루만져 인도해

함께 조화롭지 못하면 그 누구도 먼저 나를 수 없음을
알게 하였다.

끝없는 인고와 절망이 먼저 신의 뜻이고 난 다음에
신은 날기를 허락하였다.

IV 날개의 탄생

외경의 두려움과 겸손함만이
오직 날고자 하는 의지만이
신의 뜻에 부합 하는 것임을 알고 난 후

참담한 인내와 어둠의 세월로부터
우리는 날개를 얻게 되었다.

V 비상

신의 의지를 거슬러
뜨거운 가슴으로 내뿜는 열정을 쏟아

우리는 태양과 구름에 다가가
저 대지 위 삶의 자취를 보듬게 되었으니
신은 드디어 우리와 가까이하여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날갯짓을 허락하였다.

지금 우리는 날고 있다.

또 하나의 날개



18기 사관 이봉길

어느 날 고궁 근처를 거닐다가 H갤러리 앞을 지나게 되었다. 노랑나비와 곤충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쇼 윈도우의 그림을 보고 전시실에 발을 들여놓았다. 어릴 적에 산과 들, 냇가에서 보았던 나무와 곤충들, 작은 물고기들이 하얀 벽 위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이 보였다.

잠시 그림을 마주하고 있노라니 왠지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걸려있는 그림마다 또렷이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곤충들의 모습에 아릿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나무에 눈을 달아주면 잎이 살아나고, 곤충들은 눈을 뜨고 날아다니며, 물고기들은

눈을 뜨고 우주를 여행한다.”라고 말하는 화가 노은님은 1970년 독일에 간호보조원으로 갔다가 현재 거기에서 살고 있다. 처음 기착한 함부르크의 어느 병원에 근무할 때 낯선 이국땅에서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시절 벗하던 자연물을 그리면서 모든 물체에 눈을 그려 넣었다. 화산지 속의 나무와 곤충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서로 마주보면서 외로움을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자신에게 지워진 모든 것들, 고국에 있는 가난한 가족들과 먼 이국땅에 혼자 던져진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고통을 이겨나가고 예술가로서의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말한다. “돌이켜보면 내 짐은 내 날개였다.”라고.

이상의 <날개>에서는 밀폐된 작은 방에 갇혀 살면서 생활 감각을 상실한 채 정신적으로는 지적인 세계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그는 밀실의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의 공간으로 뛰쳐나오면서 분열 상태에 빠졌던 자아가 되살



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대로를 걸어가면서 갑자기 겨드랑이가 가려워지고 머릿속에는 잠들었던 희망과 야심이 번뜩이게 된다. 그리고는 외쳐보고 싶어진다. “날개야 돌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구나.”라고

이상의 <날개>는 갇혀있는 현실세계에서 탈출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자유를 얻고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한 남자의 몸부림이다. 노은님의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서 피할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작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날개였다. 그녀에게는 정녕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있었기에 날고자하는 의지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삶의 무게를 던지고 꿈과 소망을 이루고자 비상하는 마음의 날개를.

내게도 날개가 있었다. 짧은 날 공군에 들어가서 조종사가 되었고 은빛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날아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공중에서는 양팔에 깃털을 단 것 같은 두 날개가 있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때 새로운 기종으로 바뀌어 타게 되었는데 공중에서 좌우를 돌아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항상 발아래에서 나를

떠받쳐주고 있었던 믿음직스런 날개가 보이지 않았다. 내 몸뚱어리만 풍선처럼 허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순간 어쩔 줄 모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머리 위에서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두 날개를 보고서야 뛰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있었다. 머리 위에 달린 날개(High Wing).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중에서 날개를 잃어버린 당혹감은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인간은 새처럼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 날개를 단 비행기는 지상을 떠나 공중에서 자유롭다. 눈 깜짝할 사이에 까마득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가 하면 산과 바다 위를 새처럼 날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에 탄 조종사는 그렇지 못하다. 비행이란 단지 날개가 만들어내는 3차원 공간에서의 궤적일 뿐, 조종사는 작은 유리 상자 같은 조종실에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다. 비행을 끝내고 땅 위에 내려설 때까지는 낙하산을 매고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조종실을 Cockpit(투계장 : 鬪鷄場)이라고 부른다. 뿐인가, 졸려도 눈을 감을 수도 없을뿐더러 두 손은 조종간과 추력 레버(Throttle Lever)를 움켜쥐고 두 발은 방향타 위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한 때는 하늘은 날아다니는 기분에 넘쳐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거리



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중에서는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스스로 보라매가 된 듯이 우쭐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행기 속에서는 늘 외로웠고 숨 막히는 시간을 지내왔다. 또한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누구의 손길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 떠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를 동경해 왔다.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 이마가 더 넓어지고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하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꺼칠하게 여윈 중년의 사나이가 나를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언제부터인가 비행기 속에서의 고적하고 자유롭지 못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날개는 중심을 잃고 끈이 떨어진 연처럼 허공을 맴돌다가 추락할 것만 같았다.

내 날개는 어디로 갔을까?

한 때는 창공을 날며 세상을 내려다보았던 날개, 젊은 패기와 빨간 머플러의 날개는 어

디로 사라졌을까. 돌이켜보면 나의 일터는 조종실이었고 그 속에서 오랜 세월 혼자서 일하며 날개를 벗 삼아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왔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겪는 특별한 세상경험은 물론 서로 가슴을 열고 속을 풀어내 본적도 별로 없다. 단지 금속 날개를 타고 지상을 떠났다가 다시 땅 위로 되돌아오곤 했을 뿐이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서로 부딪치며 엮어나가는 생활 속에서의 삶의 날개는 어떤 것일까?

이제 은빛 날개, 빨간 머플러의 날개는 지나간 추억 속에 묻어두자.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의 삶을 배우자.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날개가 아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과 함께 하는 또 하나의 날개, 마음의 날개를 펼쳐보고 싶다.

“내 짐은 내 날개다.”



달리고 또 달린다



32기 사관 이형길

동기생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좀 이상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즘 42.195km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많기에 그 정도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이 친구는 아예 그 상상의 거리(나에게 마라톤 42.195km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거리가기에)를 훌쩍 넘어 100km를 달린다고 한다.

이름하여 '서바이벌 울트라 마라톤'

이 친구는 1년에 4회 정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1회는 울트라 마라톤, 3회는 풀코스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즐기기 위해 뛰기 때문에 기록 갱신에 연연하지 않고 분기 1회 달린다고 합니다. 계룡대에 살고 있

는데요, 평일은 야근하기 때문에 못 뛰고 주말에 보통 고속도로 계룡진입로까지 4회 왕복하여 뒀단다.

이렇게 달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놈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생각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폐돈을 벌고 대통령을 만나는 행운을 갖지만 이 친구는 늘 "아니, 이 양반이 어디에다가 힘 다 쓰고 집에 오면 헬레레야?" 하면서 마누라한테 핀잔만 받는다고 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왜 뛰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 친구가 쓴 글을 보았다.

대청댐 서바이벌 울트라(100km) 마라톤 대회,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완주다. 지난 해에는 임관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 다짐을 했으며, 이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인내를 측정해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나를 찾는 수단으로 마라톤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중략)

밤 10시쯤(오후 5시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완주해야 하는 코스다) 30km



지점부터 일기예보가 오보이기를 바랐던 마음을 비웃듯 야속하게 비바람이 시작돼 고통이 점차 가중됐다. 이때부터 육체의 고통과 정신력의 싸움이 가중되어 왜 시작했나 하는 후회와 함께 포기하고 싶은 갈등이 시작되기도 했다…(중략)

80km 지점부터는 신발에 물이 차서 발은 물집으로 허물을 벗고 허벅지 근육은 굳어온다. 마비된 다리를 주무르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 뛴다.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중략)〈국방일보 2005. 5. 5일자〉

그 친구는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금년 4월 15일

또 대청호 울트라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답니다. 참가 이유는 친한 친구가 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꼬셨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라는데, 자기가 싫으면 뛰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마라톤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행동 양식 중에서 달리기만큼 철학적인 행위도 드물다고 한다. 그래서 달리기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체코 마라토너 에밀 자토 펙).
- 고통을 맛보지 않고, 소년에서 남자로 성장할 수 없다.
- 달리기는 내게 명상이며, 순화된 정신이고, 기분전환제이며, 영혼의 교감이다(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동메달 로레인 몰리).
- 마라톤은 매우 카리스마적인 행사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다. 드라마가 있고, 경쟁이 있고, 동지가 있고, 영웅이 있다. 달리는 사람, 그 누구라도 올림픽 챔피언을 꿈꿀 수는 없지만 마라톤 완주는 꿈꿀 수 있다(뉴욕 로드러너스 클럽 설립자 프레드 로보).

정말 주옥같은 말이다. 지금 당장 딱딱하고 제도적인 감정 단화를 벗고 탄력적이고 자유분방한 운동화를 갈아 신고 밖으로 뛰어

나가고 싶다. 포유동물은 태초에 어미의 뱃속을 나와 '뛰는 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다만 인간은 보통 출산 후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42,195km라는 마라톤의 거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뛰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운동이다.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

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아를 찾아기는 여행'으로서의 마라톤. 내 동기생(32기 사관 전종일 중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건강을 찾아서', 무엇보다도 '자아를 찾아서' 자연 속으로 힘차게 한발 한발 달려갈 것이다.



아프리카 여행기



14기 사관 허규열

'세계를 간다'라는 아프리카 안내 책자가 너털너털해질 때쯤 우리 부부는 2006년 여름 휴가를 겸하여 아프리카 여행을 시작하였다. 이전에 이집트, 모로코 등을 여행한 적이 있어 중남부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일행 12명은 홍콩을 경유하여 18시간의 길고도 지루한 비행 끝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까지 4시간 비행을 계속했다.

케냐는 58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 2800만 명의 동부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어 치안이 불안하지만

케냐만은 정세가 안정되어 있어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각국 대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한국인 체류자가 약 500여 명 정도이고 그중 250여 명 이상이 선교 목적으로 진출한 사람들과 그 가족이라고 하여 다시 한 번 놀랐다.

수도인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첫째 날은 남쪽의 킬리만자로 산과 암보셀리 국립공원, 둘째 날은 서쪽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셋째 날은 북쪽의 나쿠루 국립공원을 관광하기로 계획하였다.

첫째 날은 킬리만자로산과 암보셀리 국립공원을 향하여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사파리 관광용 차량 한 대에 6명씩으로 나누어 탑승하고 안내원 겸 운전기사 한 명이 배치되었다. 나이로비 시내에서 나망가라는 지점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거리로 도로는 포장 잘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부터 암보셀리 국립공원 내에 있는 숙소까지는 약 90킬로미터 거리인데 비포장도로여서 엄청난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 도로 옆에는 기린, 코끼리, 사슴 등을 만날 수 있어 지루하지는 않았다. 길목에 한글로 쓴 '덕천교회'



표지판이 눈에 띄어 이 오지에서도 한국의 선교사가 일구어 낸 노력들이 가슴에 와 닿았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의 호수는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말미암아 물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평평한 호수 바닥은 사파리용 자동차가 가는 길이 곧 도로였다. 500평방 킬로미터였던 호수는 300평방 킬로미터로 줄어들었고 얼룩말, 가젤 사슴, 소, 코끼리 등 동물들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초원은 점점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암보셀리 롯지에 숙소를 정한 후 오후에는 마사이 마을을 찾아 나섰다. 마사이족 마을로 가는 길은 현지 가이드가 없이는 가는 길을 찾기도 힘들지만 방문을 허락해주지도 않는다. 약 30분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약속된 마사이족을 만나게 되었다. 예전의 마사이족의 순진한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젊은 추장이 나타나서 입장료(1인당 미화 10불)를 요구하였다.

돈을 챙긴 후 마을 안으로 신호를 보내니 비교적 젊은 남녀 20여 명이 마을 입구로 나와서 환영의 춤과 노래를 시작하였다. 젊은 추장은 유창한 영어로

춤과 노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이들은 약 150여 명이 한 집단으로 살고 있으며 가족의 숫자는 약 200여 마리라고 한다. 마사이족은 아직도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자들은 가족을 돌보는 일과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어린애를 키우는 일과 소똥으로 만든 집을 단장하는 일 등 모든 잡일들은 여자들이 맡아서 한다고 한다. 그들은 주식으로 소에서 갓 짜낸 우유에 소의 목을 뚫어 피를 받아내 섞어서 먹는다고 한다.

추장은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관광객들에



〈개략적인 15일간의 여행 일정도〉

게 공개하고 마을 뒤 마당에서는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팔기도 하였다.

전날 구름으로 덮혀 있어 보지 못한 킬리만자로 산 정상은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암보셀리 공원 내에 있는 전망대로 갔다. 그러나 킬리만자로 정상은 구름에 덮혀 있었다. 잠시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사진을 촬영할 만큼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다.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은 나이로비로 되돌아 와서 서북쪽으로 자동차로 5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다. 나이로비 시내의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으로 출발하였다. 시내를 벗어나자 기꾸이족이 거주하는 농업지역에서는 옥수수 재배지가 끝없이 전개되었다.

우리는 200킬로미터나 되는 대평원을 가로질러 나뭇가지 포장도로를 이용하였다. 그곳에서부터 숙소까지 가는 길은 엉망이었다. 아예 처음부터 비포장 도로였더라면 사정은 이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번 포장했던 도로가 파손되어 갈레 조각이 되어 있어 차들이 갓길을 이용하다 보니 더욱 심하게 요동을 쳤다.

관광 5일째 되는 날 가장 많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호텔 야외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즐기는 동안 마라강에는 악어와 하마가 서로

의 영역을 지키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으며 원숭이와 새들은 관광객 주변으로 모여들어 모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호텔에서 준비해준 도시락을 신고 사파리 여행을 출발하였다. 처음 가는 곳이라 방향을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곧 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가 5대 동물로 꼽힌다. 이들은 힘이 세고 빠르고 덩치도 커서 서로가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행운이 따른다면 하루에 이 다섯 종류의 동물을 모두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팜파스 평원을 30분 정도 가로질러 갔을 때쯤 가젤 사슴, 얼룩말, 멧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약간 낮은 관목 지대가 있어 그쪽으로 이동하자 한 무리의 기린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어미와 새끼들이 한데 어울려 평화롭고 조용하게 긴 목으로 높은 가





지의 나뭇잎을 뜯어 먹고 있었다. 관목 숲속에는 치타가 새끼들과 함께 낮잠을 자다가 관광객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해오자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관광객들은 절대로 사파리용 차량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사이마라 공원 동북쪽에 위치한 마라롯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누우떼들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누우들은 2~3백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일렬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차량이 다가서면 행렬이 끊어지기도 하였으나 저만치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합류한 후에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얼룩말들이 누우들과 섞여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얼룩말이 경계병 역할을 맡아 준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자나 치타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얼룩말이 누우보다는 빨리 도망할 수 있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넓은 초원에는 나무가 없어 실 만한 그늘을 찾기가 어려웠다. 오후 2시경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후 계속하여 동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코끼리, 코뿔소, 멧돼지, 기린, 원숭이, 사슴들을 관찰하면서 이동하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개울가에 한 무리의 사자가족이 어린 새끼들과 놀고 있었으며 암사자들은 사냥을 위해 진을 치기 시작했다. 가

이드 말에 의하면 곧 사자가족의 사냥이 시작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사자가족의 누우 사냥은 TV에서 본 동물의 왕국 편과 똑같았다. 우리 일행은 사파리용 차를 타고 10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며, 오늘은 행운이 따라서 5대 동물을 모두 만나게 된 기분 좋은 날이었다.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을 뒤로하고 나쿠루 국립공원으로 갔다. 나쿠루 호수는 홍학새들의 천국이다. 호수의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개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200만 마리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홍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펠리컨, 오리, 백로, 군함새 등이 호수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호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전망대로 올라가 호수를 바라보니 홍학은 한 개의 점에 불과하고 온 호수는 밤하늘의 별처럼 홍학의 점으로 수놓은 것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다.

여행 7일째 오전에는 카렌 박물관을 방문





하였다. 카렌은 덴마크 여성으로 '아프리카의 나날들'이란 자서전적인 소설의 저자이다.

1917년부터 1931년까지 케냐에 실제로 거주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자서전 형식으로 기록하여 아프리카의 실상을 세계 각국의 독자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 후 이 소설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만들어져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세계 3대 폭포 중의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를 보기 위해 요하네스버그 공항으로부터 짐바브웨 빅토리아 공항까지 약 2시간을 비행하였다. 레인보우 호텔에 투숙한 후에 유람선을 이용하여 잠베지 강 주변을 관광하였다. 유람선은 우리나라의 시골 강변 유원지의 조그마한 선박과 비슷했다.

오후 4시경 잠비아 쪽에서 빅토리아 폭포를 관광하기 위하여 개인당 미화 30불을 지불하고 입국 및 빅토리아 국립공원 관광 비자를 받았다. 거둔 돈은 안내자가 여권과 함께 가져가더니 일사천리로 수속을 끝내었다. 그 이유는 흑인, 외국인, 아프리카인 등으로 구분하여 입장료를 차등 징수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일행을 아프리카인이나 내국인으로 처리하고 차액을 착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토리아 폭포의 잠비아 쪽은 폭이 1,200미터 정도인데 현재는 건기여서 수량이 50%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100미터 아래로 떨어

지는 물줄기는 정말 장관이었다.

물보라가 튀어 오르고 무지개와 때로는 쌍무지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천천히 걸으면서 절벽에 기대어 설명을 듣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물보라가 너무 많이 튀어 오르는 곳에서는 우산을 받쳐 들기도 하였다.

우리는 9일째 되는 날 오후 빅토리아 공항을 출발하여 남아공 남쪽 도시인 케이프타운 공항에 도착했다.

날씨는 약간 흐리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추위를 느낄 정도로 이곳은 현재 겨울로 우리와는 정반대의 계절이다. 두꺼운 겨울옷으로 바꿔 입고 관광에 나섰다. 오전에는 케이بل 마운틴을 갔었는데 구름이 시가지를 뒤덮고 있어서 시가지 구경을 할 수 없었다. 케이블카 식당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마시고 기념품 가게에서 선물을 몇 개 구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려 왔다.

우리 일행은 케이프타운 서쪽으로 약 2시간 정도 달린 후 슈텔론보슈 지역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3만평에서 5만평에 이르는 크기의 포도 농장이 380여 개나 있다고 한다. 주로 불란서계의 후손들이 포도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한 개의 농장에는 보통 150여 명의 노동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포도 수확기에는 8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오후에는 워터 프런트 상가와 항구를 관광



하고 저녁식사는 한국 음식점을 택하였는데 일식과 한식이 제공되었다. 식당 주인은 원양어선 선원으로 진출하였다가 정착하여 15년째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인들은 남아공에 약 1,500명 정도 체류하고 있으며 주로 여행사 직원, 사진관업, 일본식 음식점, 무역업 종사자 등이라고 한다.

케이프타운에서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까지는 150km이다. 이곳은 포르투갈 선원들이 희망봉을 발견한 이후 대서양과 인도양을 넘나들며 인도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인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주하여 무역선에 물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척한 도시이다. 모든 집들이 전형적인 네덜란드 스타일로 건축되어 있고 담장은 흰색으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어 파란 잔디와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도 네덜란드 후예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며 은퇴한 백인 부자들이 조용한 시골 생활을 보내기 위해 선호하는 지역이라 한다.

이곳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칼립소라는 물개 섬을 가보기로 하였다. 하우트만을 벗어나자마자 제법 파도가 있었지만 20분 정도 항해 후 물개 섬에 도달하였다.

조그마한 바위섬에 수백 마리의 물개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차 있었다.

12시경 펭귄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펭귄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많은 수의 펭귄이 있는 곳은 아니었으나 시골의 조용한 동네를 이웃하여 펭귄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곳의 한 불란서풍의 식당에서 이번 여행에서 가장 비싼 요리인 랍스터를 주문하여 포도주와 함께 근사한 점심식사를 하였다.

희망봉으로 내려가는 도로상에서는 원숭이 일가족이 도로를 점거하고 먹이를 요구하는 재미난 사건도 일어나 여행이 지루하지 않았다. 케이프타운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광버스에 탑승한 채로 등대 입구까지 10km 더 올라갔다.

인도양과 대서양의 바닷물이 만나서 서로 섞이는 장면을 보면서 왜 이곳이 희망봉(Good Hope Point)이라고 명명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16세기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선원들이 인도와의 무역을 위해 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심한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면서 이번 항해만큼은 무사하기를 기원했던 곳으로 이곳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을 Good Hope Point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행 13일이 되는 날 오후 남아공의 행정도시인 프레토리아 교외에 있는 부르트레크 기념관을 관람하였는데 남아공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기념관 내부에는 백인들의 프레토리아 개척역사가 벽면에

조각되어 있었고 지하층에는 그 당시의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포르투갈 선원에 의해 희망봉이 발견된 후 가장 먼저 케이프타운 지역에 이주해온 사람들은 네덜란드인 이었다. 이들은 무역선에 물자 공급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결국 케이프타운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 서쪽 지역인 슈텔론보슈 지역에 이주한 불란서계 사람들은 주로 포도농장 건설과 포도재배에 집중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주해온 독일계 주민들은 남비아 쪽으로 이동하여 밀 재배를 주로 하는 농장을 개척하였다. 이들 유럽인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갈망하여 이주해온 청교도들이었다.

이후 16세기에 접어들어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한 영국이 아프리카로 진출하게 되었고 막강한 해군력의 지원을 받은 영국인들은 네덜란드인, 독일인, 프랑스인들이 개척한 지역을 그들의 통치하에 두었다.

종교의 자유와 영국의 지배를 싫어하는 주민들이 동부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지금의 요하네스버그 동쪽에 있는 더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충돌하여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된다. 흑인 원주민들의 칼과 창은 총과 대포로 무장한 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푸레토리아 지역이 백인들에게 함락되고 네덜란드계 중심으로 요하네스버그에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이 나라는 초기에 재정이 궁핍하여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광이 발견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게 되고 초기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요하네스버그에 금광이 발견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지만 수많은 유럽인들이 금광을 찾아 요하네스버그로 몰려들었고 곧 다이아몬드도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요하네스버그 공화국의 재정이 튼튼해지자 영국 정부는 1902년 남아프리카 전체를





연방 공화국으로 통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국을 9개의 지방 정부로 나누어 지방자치제도로 다스리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채택된 헌법은 백인들은 참정권과 통치권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인도계 및 아시아계의 유색인들은 선거권은 갖되 통치권은 없으며 흑인은 선거권도 통치권도 갖지 못하는 인종차별 법으로서 100년간 유지되다가 1980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었다.

부르트레크 기념관 관람 후 연방의회 건물인 유니온 빌딩으로 갔으나 토요일 오후라 건물 내부 관람은 불가능하였고 외부 건물과 운동장을 돌아보다가 한국전 기념탑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념탑에는 한국전에 참가한 20명의 공군 조종사 명단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재향군인회 국제협력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직도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 중 매년 2명씩을 그 가족과 함께 방한토록 초청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했더니 모두들 깜짝 놀랐다.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느낀 점은 대륙이 대단히 넓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특히 만년설로 덮혀있는 킬리만자로를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대협곡은 북쪽의 시리아에서부터 남쪽의 케이프타운까지 장장 6,000km에 이르며 동서로는 200~300km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다. 적도 부근의 정글과 팜파스

대평원의 초원에서는 동물의 천국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곳에 거주하는 마사이족은 동물들의 생활과 유사한 유목생활로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방식이였다.

남아연방 공화국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개발되고 사회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아프리카 여러나라는 아직도 무한한 자원 보유국이다. 세계 선진국들은 그들의 자원 확보를 위해 종족간의 분쟁을 부추겨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음을 이번 여행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려면 잠에서 깨어나야만 하는데 현재의 상태로는 요원하고도 험한 길이라고 느껴졌다.

금번 케냐, 남아연방 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등 4개국 여행은 실제로는 케냐와 남아공 2개국 15일간의 일정이었다. 우리나라와는 18시간의 비행거리로 너무 멀고 경비도 적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여행 전후에 황열병 주사와 말라리아 예방약을 6주간이나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그러하듯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많은 팁을 요구하는 곳이지만 한 번쯤은 꼭 아프리카 여행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1 기생 동정

홍우회에서는 언제부턴가 경사보다 애사나 추모행사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경사스러운 행사를 더 많이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번 '07 홈커밍 행사에는 버스 한 대를 대절, 서로 독려하여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회원 대부분(21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생도시절에 가르쳐주신 구대장 김복구님과 교수부 김덕태님도 함께 모시고 예전 생도시절을 회상하면서 즐겁고도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6월 5일에는 현충문 헌화, 6월 8일에는 사천지구 공군 총령비 추모행사로 먼저가신 동기 및 공군선후배님들의 명복을 빌었다. 6월 12일에는 총동창회 운영을 위해 그간 수고한 제14차 임원들 및 새로 수고하게 될 제15차 임원들과 함께 오찬시간을 가지고 후배들을 격려하였다. 우리 홍우회원들은 건강이 다할 때까지 정열적으로 모교와 공사 총동창회를 사랑하기로 일 때마다 다짐하고 있다.





5기생 동정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5기생들은 미국에서 다섯 가족이 오는 등 총 77명의 동기생과 가족들이 홈커밍 행사와 통합하여 실시한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열병, 분열, 그리고 오찬 등 사관학교에서의 행사를 가진 후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공군회관에서 만찬과 여흥으로 회포를 푸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또한 사전 행사로 2007년 2월 20일 공사에서 50년 후배기수인 사관 55기 졸업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졸업생들과의 160여 분 동안 Forum에서 박용태, 이재우, 정재식 동문의 특강과 생도들과 대담을 하였으며 제목은 “큰 꿈을 가져라”, “사이버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더 멀리 더 높이 봐라”, “삶의 지혜”가 주제가 되었다.



8기생 동정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 시에는 걷는 시간을 두어 건강을 유지하며, 호연지기를 위한 야외활동을 연간계획으로 수립 실천하고 있다.

3월에는 청계천 걷기

4월에는 과천 자연캠프장 등산

5월에는 산업시찰을 위한 여행/홈커밍 행사 동참

6월에는 현충사(서울, 대전)에 참배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귀천(歸天)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을 먼저 간 팔진회 회원들의 명복을 빌었다.

내년에도 다시 현충일 행사를 할 수 있을까하고 모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고회를 넘긴 탓만은 아닌가 보다.



9기생 동정

입교 50주년을 맞이한 은하회 공사 9기생은 2007년 4월 부부 동반하여 옛 추억을 회상하는 진해 경주 여행을 가졌다. 진해 제왕산에 올라가 메추리시절 완전무장하고 구보하였던 마진고개, 진해시가지를 조망하면서 감개가 무량하였다. '57년도에 입교하였던 공군사관학교 자리에 갔었으나 굳게 닫힌 정문에 개발 중이라는 공고문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정문 앞에서 기념촬영만하고 경주로 출발하게 되어 못내 아쉬웠다.



1957년도 진해 공군사관학교 정문
공사9기 입교 50주년 기념 여행

경주에서는 박물관, 불국사, 안압지, 첨성대, 석굴암 등을 관광하고, 경주 최 부잣집 전통음식점 요석궁(瑤石宮)에서 전통술을 서비스로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스위스 로잔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익일 감은사지와 문무대왕을 수장하였다는 바다를 보고 역사를 탐방하는 2박 3일간의 기념여행을 다녀왔다.





14기생 동정

공사 총동창회 운영기수인 14기생은 뜻깊은 '07 홈커밍 행사가 되도록 전년도 운영기수, 전년도 기념기수, 일반기수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겸하여 운영기수 전 회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모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익일까지 행사를 가졌다.



5월 18일 홈커밍 행사를 순조롭게 마치고 오후에는 부부 동반으로 청남대와 대청댐을 관광하고, 유성 스파텔에 머물면서 만찬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익일에는 대전 현충원을 들러 먼저 간 동기생들에게 헌화하고,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여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선열들의 호국충정을 기리는 뜻있는 제2부 행사를 가졌다.





대한항공 직장동창회 체육대회 개최

공사동문 회원이 340여 명이나 되는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직장동창회에서는 2007년 6월 4일 체육대회를 하였다. 회원간의 대화기회를 늘리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여가선용 차원에서 실시하던 행사가 금년에는 가족까지 참석하여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게 하며 끈끈한 정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배구, 족구, 축구, 줄다리기, 5인 6각 뛰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다. 동문들의 대회를 격려하고 고무하기 위하여 본부장으로 있는 이영덕 회원도 동참하였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공사 동문소개(26기 사관 이철우)



편집실에서는 여러차례, 여러 사람을 통해 다음과 같이 뉴욕 지역사회에서 한국동포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익증진활동을 하고 있는 이철우(26기 사관) 동문 소식을 알게 되어 회원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 현직

뉴욕 주재 공공정책 위원회(KAPAC) 회장
 낮소 카운티 사법자문회의 위원

◆ 기능

지역사회 카운터네 사법관계 업무 자문
 Police Explorer 프로그램 관장으로 한인학생 프로그램 참여

◆ 활동

◇ 지역사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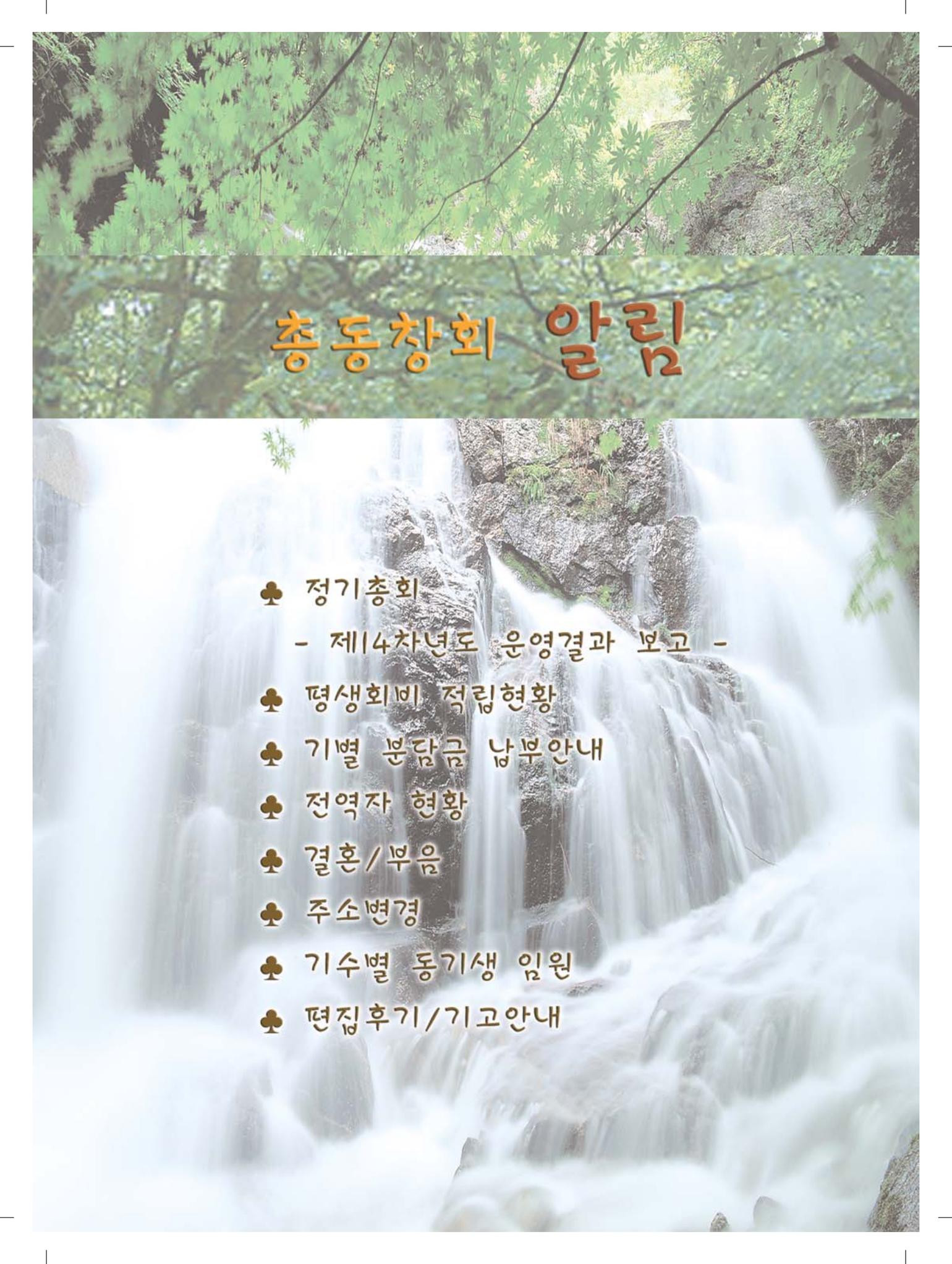
- 대 경찰요원들에게 한국의 문화(Traditional Culture)/관습(Traditional Custom)을 소개하고, 구조학적인 언어문제와 악센트와 인토네이션 문제로 능숙하지 못한 영어구사에 대하여는 주변의 학생들이나 또는 봉사기관에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 지역 내 한인 노인 환자를 위한 1차 진료기관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갖고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타 민족커뮤니티와의 협조 및 연계를 위하여 지난번 칠면조 100마리 제공에 이어 2,000달러 상당의 바비인형, 농구공을 전달했다.
- 2007년 3월 노스햄스테드 타운에 한인사회 이슈 반영
 - 첫째, 2008년 1월 13일 주미 한국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행사에서 타운정부 가 지역사회에 공헌한 한인 인사를 표창하기로 약속했다.
 - 둘째, 2007년 8월이나 9월 중에 포트워싱턴의 Bar Beach공원에서 Korean Fair (가칭)라는 이름으로 롱아일랜드 한인회 주최 축제행사를 승인했다.
이 이벤트를 통하여 한인학생들에게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한 학생들에게는 참가증서(Certificate)를 수여할 계획이며, 뛰어난 학생에게는 타운장의 표창장과 장학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 셋째, 타운정부에서 한인 학생을 위한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특별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 넷째, 타운정부 문호를 개방하여, 한인이 공무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국익증진 활동

- 2월 5일 롱아일랜드 협회(Long Island Association)에서 주관한 롱아일랜드 의회 대표자와의 비공식 면담(Private meeting with Long Island Congressional Delegates) 행사에서 ‘정신대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일본수상의 공식 사과 촉구 미 의회 결의안(H,R 121)’을 강력히 지지할 것을 촉구하여 Carolyn McCarthy 의원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 대화 채널이 없던 Tim Bishop 연방의원간은 2007년 3월 26일 Private Meeting을 통하여, 태평양 소위원회 증진 Meeks 의원과는 보좌관 Brian Simons을 수차례 접촉하여, Peter King 의원에 의해서 발의될 ‘한국의 이라크 파병 및 테러와의 전쟁 협조에 대한 미 의회의 감사결의안’에 대한 공동발의와 H.R 121에 대한 공동후원(Co-Sponsor) 논의로 Tim Bishop으로부터 99% 찬성의사를(‘99% Sure to Support’), Brian Simons에게서는 꼭 Co-Sponsor를 하도록 각별히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 반 이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Peter King 의원에 대해서는 대항하여 입후보한 David Mejias 의원을 도와 King 의원을 낙선시키는 것이 한인사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돕고자 하고 있다. 현재 David Mejias 후보는 막상막하의 경합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New York Times로부터 Endorsement를 받은바 있고, 며칠 전 미전국 민주당연합회로부터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유망지역(Red to Blue District)으로 지정받아 막강한 자금과 각종 지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인공공정책위원회도 후원금을 모금하여, 10월 26일 후원회에서 전달했다.



총동창회 알리미

♣ 정기총회

- 제14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 평생회비 적립현황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 전역자 현황

♣ 결혼/부음

♣ 주소변경

♣ 기수별 동기생 임원

♣ 편집후기/기고안내



- 제14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14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1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까지 공사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15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금년 정기총회에도 공사교장 박종현 소장이 참석하여 공사 총동창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원현황

- 임관 총인원 : 8,398명
- 현재 인원 : 7,711명
- 예비역 인원 : 2,749명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 인수	375,871,974	13차년도
14차년도 적립	69,469,059	평생회비 : 53,900,000 이자수입 : 15,569,059
적립 총액	445,341,033	인계 금액

* 조기 수납된 평생회비 33,000,000의 6개월 예금 이자수입 699,559 원 포함.

◇ 주요 역점 업무

1. 총동창회 중심 회원간 정보교류

정기총회

2.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
3. 명예계승과 모교발전 참여
4.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총동창회 발전을 도모

◇ 주요 추진 사업 현황

1. 연속사업 지속추진

- 가. 부대방문, 성무지 내실화
- 나. 친선 바둑대회, 홈커밍 행사, 조문 활동
- 다. 우수졸업생 및 자랑스러운 공사인 표창
- 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모임(2006. 8. 28.)

※ 분석 : 모든 연속사업 계획대로 실천

자랑스러운 공사인 표창 유보(부칙 제2조)

- 추천요원 없고, 수상 책임자 없다고 판단

2. 14차년도 역점사업 추진

- 가. 총동창회 동참 유도 - 대화 및 운동기회 확대
- 나. 성무지 편집방향 설정
- 다. 홈페이지 운영 내실
- 라. 회원관리 기반구축 - 명단확보 및 명부작성

※ 분석 : 계획대로 수행

◇ 주요 업무실적 분석

1. 부대방문

- 가. 공본, 공사, 작사 방문(7/13, 20, 21)
- 나. 일선부대 8비, 19비 방문(12/27, 4/5)

※ 분석 : 계획대로 순수한 격려방문 수행

2. 성무지 내실화

- 가. 회지 편집방향 설정 - 남겨야 할 글



정기총회

- 전회원이(1~55기) 읽을 글
- 공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글

나. 회지 증면 : 103쪽에서 150쪽으로

다. 기고자 초청 간담회(2007. 1. 24.)

라. 원로선배님과의 대담(2007. 4. 6.)

※ 분석 : 전 동창회(1~55기) 회원기고로 구성

특집으로 34호에서는 전·평시 작전 및 훈련경험을

35호에서는 교육환경 변화와 생도생활 및

일반분야 업무수행 경험담에서의 교훈 유도

3. 친선 바둑대회

가. 2006. 11. 22. 공군회관에서 실시

나. 참가인원 : 50여 명

다. 개인전/단체전(토너먼트 방식), 다면기 운영

※ 분석 : 단체전으로 화합과 팀워크를 다졌으며, 다면기로 회원들의 기력 향상을 유도

동문회원 상품찬조와 다수회원 참가로 대회분위기가 고조됨.

4. 홈커밍(Home coming day) 행사

가. 2007. 5. 18.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

나. 참가인원 : 약 1,000여명

다. 기념식, 열병, 분열, 오찬

라. 기생별 행사

※ 분석 : 열병 및 분열 행사 시 35기생들의 분열 동참

해외 참석동문에게 Air Show 사진증정

5. 경사/애사 활동

가. 경사- 자녀 결혼 68명

나. 애사- 회원 10, 회원가족 23명

※ 분석 : 홈페이지에 게시 및 애사 시 조기지원

정기총회

6. 우수졸업생 표창 및 해외유학 회원 격려금 지원

가. 공사 총동창회장상 수여 - 소위 이재환(3. 14.)

나. 해외유학 회원 격려금 지원(2명) - 신규 사업

유재호(3기) 동문의 격려금 \$1,000 - 1명

총동창회장 격려금 100만원 - 1명

※ 분석 : 동창회장상 - 순금 10돈 금메달 수여

7. 홈페이지 운영내실(www.kafaaa.or.kr)

가. 홈페이지 미비점 보완

- 홈페이지 영문 철자 교정

- 애경사 게시판을 경사와 애사로 분리

- 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연결

※ 분석 : 홈페이지 접근용이 및 취업, 교육, 생활정보 획득가능

8. 총동창회의 활동에 동참을 유도

가. 현역후배 임원기수 대담(2006. 8.)

나. 대한항공 조종사와의 운동(2006. 8.)

직장 동창회 행사 참석(2006. 12.)

다. 예비역으로의 전환기수와 대담(2006. 12.)

라. 1기 선배님과 오찬(2007. 1.)

※ 분석 : 상호정보교류, 이해증진, 친목도모

평생회비 납부 - 5,400만원(예년 1,200만원)

9. 호국 안보활동

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성명 발표(2006. 8.)

나. 6. 6 국민대회에 참가(2007. 6.)

다. 2007. 6. 25 행사(장충체육관)

※ 분석 및 대책 : 제한된 인원 참가 - 능동적인 동참이 요구됨.



정기총회

10. 조직운영관리

- 가. 총동창회 회원명단 획득(1~55기)
- 나. 비품교체(Computer, Camera, Heater)
- 다. 사무실 이전(공군복지단 제대군인지원실, 14평)

※ 분석 : 동창회 명부작성 기틀 마련, 행정 필수비품 구비

◇ 심의의결 안건

- 안건 1. 14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 안건 2. 15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 안건 3. 15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 운영금 현황

1. 운영금 조성(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14기 찬조	4,000	4,000	
기별 분담금	1,580	1,580	6~34기 완납
회원/특별 찬조금	330	460	+130
광고비	500	1,034	+534
이월 운영금	200	200	
소 계	6,610	7,274	+664
생도 다과		300	각 기생 찬조금
총 계		7,574	+964

2. 회원/특별 찬조

성 명	금 액	비 고
김 성 일	300만원	공군참모총장
유 재 호	90만원	3기 사관
김 진 억	30만원	2기 사관
이 기 현	20만원	13차 회장
서 동 열	10만원	공군전우회장
김 흥 래	10만원	10차 회장

정기총회

3. 운영금 집행현황

구분	순번	세부 항목	예산	지출	비고
사업비	1	총동창회장상	1,000,000	890,000	55기 소위 이재환
	2	자랑스런 공사인 표창	500,000	이관	동문 해외유학비 지원
	3	50주년 및 홈커밍 행사	2,000,000	3,894,000	5기 사관(06.11.15.)
	4	친선 바둑대회	2,500,000	1,357,400	상품 100만원 찬조
	5	성무지 발행	6,000,000	7,381,230	발송/수고료, 기고자
	6	부대 방문	3,000,000	3,468,100	5개 부대
	7	조문 활동	1,500,000	897,700	
	8	동창회 참석 유도활동	3,000,000	2,464,700	아시아나 계획 취소
	9	3사 총동창회 교류	2,000,000	1,199,000	
	10	정기총회	4,000,000	4,000,000	예산액
	11	이사회	2,000,000	1,277,000	
	12	간담회	3,000,000	3,195,300	
소 계			30,500,000	30,024,430	475,570
운영비	13	배지 제작	200,000	0	
	14	친목단체 화환	800,000	1,250,000	인접 및 유관단체
	15	해외동문 우편료	500,000	700,200	미주 동부, 서부
	16	비품 구입	600,000	1,805,000	컴퓨터, 카메라
	17	사무실 임대료	2,000,000	1,214,590	토지/건물 임대료 등
	18	사무실 운영비	6,000,000	5,186,000	
	19	인건비	21,400,000	21,400,000	
	20	이월금	2,000,000	2,000,000	15차년도 이월
	21	예비비	2,100,000	5,561,160	기타수입 대체
소 계			35,600,000	39,116,950	-3,516,950
계획 대비			66,100,000	69,141,380	-3,041,380
추가비	22	안보도서 구입		500,000	총회 참석자 배부용
	23	사무실 이전		605,000	이전비용/칸막이 설치
	24	동문해외유학지원		2,000,000	3기 유재호 90만원 포함
	25	홈커밍 생도 선물		3,000,000	각 기생회 찬조금
	소 계				6,105,000
총 계			75,740,000	75,246,380	잔액 : 493,620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200,000원입니다.
-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 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평생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완납기수

1~21기 완납

평생회비 적립현황

◇ 14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06. 12. 16. ~ 2007. 06. 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명단
16	55	55	0	김익래, 남상춘, 유재덕, 이종수, 전창성, 조한동, 진일범, 최경섭, 한상구, 함종하
17	59	59	0	김대영, 김덕년, 김영호, 김종락, 박원청, 손병남, 이영태, 이창민, 장기선, 정구호
20	98	98	0	강기왕, 구춘수, 권병석, 김영주, 김종곤, 김종목, 김태선, 김팔수, 김하년, 김호동, 류재열, 문석곤, 문태일, 박무관, 박병규, 박병도, 박병철, 박용우, 송원섭, 연제영, 윤경훈, 이기동, 이동근, 이보훈, 이상원, 이성언, 이성태, 이화수, 임성남, 전동준, 정성권, 조수복, 조홍래, 최병철, 최상일, 최수길, 최창수, 태진수, 허만성, 홍민, 홍위선
21	97	97	0	강석춘, 강수근, 권이현, 김부연, 김영곤, 김정봉, 김종철, 김현식, 남궁순호, 남현균, 문병주, 박순재, 백인철, 변재호, 신문식, 안연진, 유수길, 유재홍, 윤동현, 이경모, 이권호, 이정원, 이종기, 임봉섭, 전태근, 정동희, 정삼연, 조성준, 최범식, 최천락, 황일서
22	103	61	42	권영락, 김종세, 김준현, 부중배, 안중엽, 연철봉, 오원용, 이승희, 이용구, 이희용, 전병만, 정왕립, 정상교, 주형철, 황병호
23	107	55	52	강성철, 김동명, 김재용, 김종열, 김진걸, 류연도, 서구범, 신용필, 유재복, 이강무, 이영욱, 이인기, 이정욱, 채홍원, 최종창
24	127	119	8	강일규, 강임구, 경인수, 권영우, 김규선, 김기욱, 김남수, 김수원, 김언용, 김영선, 김영조, 김영한, 김완창, 남위진, 박승락, 변현태, 서성훈, 손동주, 송한복, 신철, 엄상영, 오승춘, 유광원, 유원봉, 유지왕, 윤동열, 이남진, 이상만, 이성재, 이용길, 이정근, 이정원, 이준우, 이해청, 임인구, 임호순, 전윤환, 정명훈, 정인성, 정진도, 정철원, 조길현, 조진경, 최봉선, 표상수, 한성주, 황군택
25	124	44	80	김동진, 조성구, 최형기
26	120	51	69	공진구, 김용홍, 김유상, 김인호, 문필암, 박천규, 박화영, 오문영, 윤병학, 은진기, 임락봉, 전병구, 정영빈, 정진기, 진주원, 최광우, 황정선
27	124	30	94	구명수, 김병산, 김상도, 신용탁, 정동철, 최영순
28	121	73	48	강승구, 김관호, 김달재, 김동수, 김명현, 김명환, 김영석, 김재훈, 박종복, 박철규, 오상희, 이상천, 유길형, 윤국진, 이정찬, 이명우, 이상욱, 이석원, 이재필, 임성욱, 임종춘, 장대홍, 전덕수, 정덕호, 정동학, 정형래, 조규형, 지윤규, 천홍우, 최병주, 최상일, 탁효수, 함선필, 현성규, 홍성표, 홍순협
29	141	65	76	강동운, 구용우, 김광수, 김규진, 김순노, 김홍은, 남승우, 문병규, 박재복, 양철환, 윤정용, 윤한두, 윤항재, 이남진, 이두희, 이명길, 이승호, 이유인, 이인섭, 정대경, 정덕용, 정재순, 차영현, 최용준, 홍원표
30	154	42	112	권혁승, 박국서, 윤기성, 이학주

평생회비 적립현황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31	166	46	120	강운성, 김남호, 김수복, 문승주, 박승필, 박우일, 박해룡, 배순근, 손상준, 오재현, 이병묵, 이상호, 이왕근, 이제한, 이 준, 장춘석, 전병승, 황명균, 황중서					
32	168	23	145	김석운, 김정룡, 김진호, 박동창, 박승룡,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원인철, 이건완, 이종선, 정만해, 최재영, 하성룡					
33	173	30	143	김수태, 김유정, 김유현,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성용, 백호달, 오창규, 윤준로, 임경수, 최현국					
34	165	15	150	박홍식, 서희창, 이성호					
35	252	16	236	강성구, 강정운, 신형철, 엄태화, 윤재룡, 이지원					
36	255	9	246	오형식					
37	251	7	244	기노신, 김연규					
38	233	12	221	강재성, 공도현, 김성준, 박종환, 박창규, 성규철, 윤보정					
39	221	14	207	김병선, 김재권, 최진원, 허윤구					
40	241	12	229	김중기, 김현수, 이만우					
41	239	3	236						
42	274	21	253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태우,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철, 온재섭, 이강녕, 이지호,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270	3	267						
44	216	5	211	전용성					
45	211	19	192	강영운, 광기훈, 김구일, 금기호, 김범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궁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조충석, 채 원, 황성연					
46	227	1	226		47	201	0	201	
48	192	103	89		49	199	1	198	
50	193	1	192	안성민					
52	203	0	203		53	202	0	202	
54	193	0	193		55	196	0	196	
합	현재인원 : 7,779			납부인원 : 2,186			미납인원 : 5,593		

※ 14차년도 납부자 : 536명(2007. 6. 현재) - 상반기(163명), 하반기(373명)

- 평생회비를 납부하셨으나 기수를 기재하지 않으신 김동수(12/27), 박상진(1/31) 회원은 기수를 통보하여 주시고, '06/12/21 납부하신 회원은 기수와 성명을, 29기 김(1/30)으로 납부하신 회원은 성명을 총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02) 823-1091

- 1/2 납부자 29기 박춘기, 42기 김창진, 33기 최병호 회원은 '07년 2월 1일부로 평생회비가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만원을 추가입금 해주셔야 완납 처리가 됩니다.

평생회비 적립현황

◇ 2006. 12. 15.까지 납부자 현황

기수	납 부 자 명 단
22	강수준, 강원호, 김명대, 김병근, 김은기, 김인식, 김장호, 김정근, 김재승, 김철구, 남궁혁, 남백우, 노장갑, 노창래, 류양수,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손중열, 송인선, 심강운, 오봉진,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강현, 이경환, 이광희, 이영하, 이용익, 이원필, 이정석, 임영옥, 임인빈, 장영현, 장현섭, 정갑순, 정 양, 조영기, 최병운, 최승열, 최호준, 한영렬, 한용섭, 한종호, 홍재근
23	강치행, 강희창, 구분담, 권오봉, 김정순, 김상문,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창환, 김형선, 박성순, 박정배, 박종철, 박종화, 이계훈, 이동호, 이상진, 이수현, 이영덕, 이은수, 이정환, 윤남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장창연,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정희균, 정희진, 조원건, 최상익, 최주식, 최진수, 하창호, 한규섭, 함경만, 허일영
24	강철혁, 고재봉, 권오석, 권태환, 공윤석, 김광목, 김동진, 김득환, 김명익, 김상철, 김신원, 김익경, 김재철, 김태열, 나용곤, 나재남, 노성래, 류동수, 민경식, 박동문, 박상목, 박종현, 박준홍, 박진열, 백영남(A), 백영남(B), 백운호, 설중일, 신승덕, 신진섭, 송광호, 송기백, 안인규, 안창수, 안빈용, 염경식, 오연근, 유상양, 유영홍, 이기용, 이만휘, 이봉운, 이월중, 이영재, 이영중, 이용상, 이운상, 이장세, 이정진, 이재강, 이철순, 전남재, 전복진, 정남주, 정성화, 정점조, 정필훈, 조현규, 주신호, 주종수, 천두봉, 최규철, 최삼조, 최재호, 최재희, 최종용, 최홍진, 하원훈, 허봉재, 현일수, 홍순화, 황원동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권, 권용국, 김국휘, 김병용, 김상진, 김진태, 김종흙, 김정렬, 김종원, 김찬환, 김호식, 류홍규, 박용규, 박우성, 박춘한, 서상철, 성신모, 손명환, 심재명, 양해구,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윤학수, 이귀형, 이석찬, 이석호, 이성우, 이성재, 이승구, 이정표, 인선석, 임우규, 장래환, 장희태, 최미락, 최승규, 하왕규, 홍건표
26	강충순, 강희규, 기예호, 김세창, 김성식, 김태영, 문길주, 박성남, 박성보, 박인규, 박중석, 배충영, 변종돈, 성삼식, 송길수, 심상철, 오범석, 오희석, 이봉준, 이상길(A), 이상길(B), 임시영, 오중기, 유지훈, 윤덕중, 임상현, 전성관, 전영구, 조정호, 조희연, 채재승, 최병학, 최지수, 허종순
27	고덕규, 고용하, 구분괘, 권영철, 권오성,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경규, 박준형, 박창권, 박한진, 손태용, 신해철, 신현기, 이무섭, 이수철, 이영만, 이계훈, 임판식, 최동환, 한병국, 한정렬, 홍성은
28	김남수, 김도호, 김명호, 김영철, 김인동, 김주연, 김학수, 김항수, 김형철, 박경진, 박민환, 방명환, 서근영, 선기훈, 신영덕, 안재모, 유태일, 윤범여, 윤 우, 음종민, 이정석, 이명환, 이성길, 이용표, 이재원, 이태윤, 조민식, 조현제, 이태용, 정재부, 최상일, 최승관, 최치규, 하태직, 한창환, 황신섭, 황위준
29	강명홍, 김정호, 김석중, 김성전, 김영권, 김영본, 김영철, 김원규, 김희영, 김용희, 김철생, 나충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심평기, 오승관, 오영봉, 오한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전동기, 정남범, 조병호, 최상철, 최성욱, 최승철, 표상욱, 한봉규, 한봉완,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30	강구영, 강성호, 강지순, 고영문, 구 정, 권규홍, 김무겸, 김성용, 김세명, 김원규, 김용환, 김종선, 김진완, 박재현, 박종완, 박호성, 서희석, 손한섭, 신완희, 심인태, 양승주, 염동선, 이경달, 이연수, 이종돈, 이지영, 장덕진, 장석현, 장현동, 정경두, 정규호, 정 수, 조보근, 조영봉, 차주섭, 채덕상, 채종목, 최성규, 한상덕
31	강정환, 김동철, 김시완, 김철승, 김홍준, 마권용, 박형운, 방은상, 신기균, 신재현, 유병길, 유보형, 이선호, 이수완, 임봉수, 장동현, 장영익, 정석환, 정재형, 조승관, 조현기, 조환기, 천상필, 최병섭, 최승준, 허기주, 현용희

평생회비 적립현황

기수	납 부 자 명 단
32	김성환, 김영수, 김현곤, 박호영, 신익현, 심부수, 윤석준, 전종일, 최원기
33	박삼남,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심동섭, 유준종, 위강복, 이성우, 이정재, 이동교, 이재홍, 장경식(B), 장병노, 정영철, 정희주, 조성호, 한상균
34	감수봉, 강우석, 김학준, 손 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종, 정상길, 정찬영, 조현상
35	강규식, 김부국, 김종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온용섭, 이영배, 임채현, 최병오
36	김보현, 김성균, 김응문,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이준모, 임이철
37	이동훈, 이준혁, 이재섭, 진광호, 최기명
38	김정수, 신보현, 윤상보, 이정호, 장창열
39	강진구, 권성범, 김용희, 김정훈, 이재욱, 임정구, 임중택, 최정모, 최한규, 홍봉선
40	강정현, 김재형, 김진일,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길주, 이현희, 황희철
41	김민호, 송창희, 임장석
42	박세훈, 이범기, 이준재
43	고경덕, 오동식, 이종원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정희두, 하동열
46	장순천
47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정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50	
51	
52	
53	
54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534-653630
예금주 : 김주식(제15차 총동창회)

- ◇ 기별 분담금이란 총동창회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기수에게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당연직 이사기수(제15차년도 운영기수 : 7~35기)에서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주는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7~14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15~35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총동창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운영기수가 총동창회를 담당하는 시기인 매년 7월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7.01.31.	준장	오연근	조종	24	'07.03.31.	소령	이정희	조종	38
	준장	이영종	조종	24		소령	김승규	조종	39
	대령	이석호	조종	25		소령	안성석	조종	39
	대령	이상대	항공통제	27		소령	윤현식	조종	39
	대령	우석하	보급수송	30		소령	임승곤	조종	39
	소령	최대호	보급수송	33		소령	강경철	조종	40
	소령	송명철	인사행정	33		소령	김태현	조종	40
	중령	조규진	조종	35		소령	박상현	조종	40
	소령	공도현	조종	38		소령	배진환	조종	40
'07.02.28.	준장	신승덕	조종	24		소령	신용수	조종	40
	대령	손동주	조종	24		소령	이용섭	조종	40
	중령	김명훈	정훈	27		소령	임영수	조종	40
	대령	양정훈	인사행정	28		소령	정재영	조종	40
	대령	이윤수	항공통제	28		소령	최명식	조종	40
	소령	김상훈	정훈	33		소령	최정호	조종	40
	소령	김성관	시설	34		소령	권남호	조종	41
'07.03.31.	대령	김남수	조종	24		소령	김재한	조종	41
	대령	김수원	인사행정	24		소령	김왕겸	조종	41
	대령	이준우	인사행정	24		소령	김 훈	조종	41
	대령	정인성	조종	24		소령	남종희	조종	41
	대령	표상수	조종	24		소령	박종성	조종	41
	대령	황군택	조종	24		소령	신연식	조종	41
	대령	홍석두	무기정비	25		소령	예성욱	조종	41
	중령	전원규	조종	27		소령	오경석	조종	41
	중령	엄경원	조종	32		소령	이민우	조종	41
	소령	김보영	조종	38		소령	이승호	조종	41
	소령	김현배	조종	38		소령	이영모	조종	41
	소령	윤상보	조종	38	소령	이진수	조종	41	
	소령	이연호	조종	38	소령	임채경	조종	41	
	소령	이정웅	조종	38	소령	정광섭	조종	41	

전역자 현황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7.03.31.	소령	최민석	조종	41	'07.04.13.	대장	김성일	조종	20
	소령	하상균	조종	41	'07.04.30.	소장	부중배	조종	22
	소령	하홍용	조종	41		소장	윤성기	조종	22
	소령	강민규	조종	42		중령	김만회	교육	28
	소령	김성진	조종	42		소령	서완석	교육	35
	소령	김지영	조종	42	'07.05.31.	대령	신성환	교육	26
	소령	김홍준	조종	42		소령	김철수	조종	37
	소령	박이삼	조종	42		소령	최동성	조종	40
	소령	이기용	조종	42		소령	김영권	조종	42
	소령	이상우	조종	42		소령	오익환	방공포병	42
	소령	이동호	조종	42	'07.06.30.	대령	김완창	조종	24
	소령	이성철	조종	42		대령	이수억	조종	29
	소령	장용성	조종	42		중령	김조진	교육	33
	소령	정두현	조종	42		소령	조성호	조종	39
	소령	정성윤	조종	42		소령	홍동진	조종	39
	소령	조성준	조종	42		소령	김중호	조종	41
	소령	조영대	조종	42		소령	김영호	항공시설	41
	소령	조철혁	조종	42		소령	백규진	조종	42
	소령	차지영	조종	42		소령	석형균	조종	42
	소령	최진원	조종	42		소령	신민식	조종	42
	소령	최은동	조종	42	소령	임현수	조종	42	
	소령	허민영	조종	42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령	현승기	조종	42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2007. 1.~6.)

월	기수/성명/관계
1월	13기 윤재명 장녀, 17기 상석곤 장남, 19기 장희천 차남, 21기 배민섭 장남, 21기 장성태 차녀, 22기 남궁혁 장남, 22기 박재근 장남, 24기 김동진 장녀
2월	15기 양승묵 장녀, 19기 엄영성 장남, 19기 이송호 장녀, 21기 이승남 장녀, 22기 유양수 장남
3월	12기 이주진 차남, 18기 광조휘 장남, 18기 고정훈 장녀, 19기 신명남 장녀, 21기 박건웅 장녀, 21기 정한철 차녀, 21기 최범식 장남, 22기 김정근 차녀
4월	20기 박용우 차녀, 20기 이석규 장남, 21기 김영학 장녀, 22기 김종세 장녀, 22기 민형기 장남, 22기 오지영 장남, 24기 강임구 장남, 24기 권태환 장남
5월	18기 강재필 장녀, 21기 문병주 차남, 21기 유규병 장남, 22기 김동학 차남, 24기 성도홍 장녀
6월	20기 이치훈 장남, 21기 강남식 장남, 21기 전태근 차녀, 22기 이동익 장남, 24기 이상세 장녀, 24기 유광원 장남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1월 14일	3기	전복규	별세	2월 22일	19기	박규복	부친상
3월 3일	2기	이상면	별세	2월 27일	1기	김순경	부인상
6월 2일	2기	이지영	별세	3월 27일	24기	정진도	장모상
1월 12일	17기	이규희	부인상	4월 25일	20기	이용주	장모상
1월 23일	37기	최기명	장모상	4월 27일	21기	유근국	장인상
1월 30일	19기	박창용	모친상	5월 6일	24기	조현규	부친상
2월 4일	20기	김정기	모친상	5월 14일	10기	이영호	모친상

※ 총동창회장 명의의 조기를 보내 전 회원의 조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본인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 한해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까지도 해당됩니다.
- 국내 어디에라도 당일엔 전달 가능하니 총동창회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에는 사무총장 017-729-2431이나 직원에게 연락 요망)

주소변경

(2006. 10. ~ 2007. 6. 15.)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	김영수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4-8	422-230	032-347-1219
2	김진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435호	463-940	031-914-3082
2	김판석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아) 120-502	138-786	402-9922
2	박재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리버타워(아) 1405	150-971	785-8586
2	박재훈	대구 남구 봉덕2동 1141 효성타운 203-806	705-751	053-476-5329
2	오일환	서울 강남구 도곡동 1차 I-park(아) 105-1101	137-858	3463-0061
2	우기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건영캐시빌(아) 805-2003	448-538	031-889-8296
2	유수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431호	463-802	031-713-5969
2	이원복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제1동 1127-5 송학하이트빌 1011	442-835	031-233-7176
2	이원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52 수지자이(아) 104-1102	448-140	031-889-7705
2	이주용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강촌마을 한신(아) 210-1703	410-716	031-903-5999
2	장기용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3-17 401호	137-060	3471-0621
2	조일동	경기 용인시 상현동 853 현대2차(아) 207-504	448-130	031-266-8927
3	박우식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4 은하수 청구(아) 102-603	435-757	031-386-2130
3	백정석	경기 김포시 풍무동 서해(아) 106-901	415-753	031-988-1437
3	이용준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 2-522	138-240	421-4261
5	김홍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레이크펠리스 130-401	138-220	2602-1134
5	오혜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2 현대하트웰 102-401	440-816	031-242-4580
5	전윤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LG5 차빌리지 501-1103	448-537	031-265-5070
9	박종권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휘미리(아) 304-1403	138-769	409-3209
10	김정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 114-402	142-776	6229-3707
10	손동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17-9 202호	463-835	031-708-3250
10	송창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2-1 우성3차(아) 20-401	137-773	6241-4575
10	최태석	경기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동부(아) 115-902	465-712	031-792-4100
11	김광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13	476-804	031-775-1885
11	김정남	경기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339	469-832	011-495-6089
11	박수길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정발마을 건영1단지 102-205	410-350	031-816-0196
11	한영석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91 푸르지오(아) 127-1204	157-773	6091-5556
12	나광수	경기 안양시 평안동 899-2 현대4차(아) 201-701	431-794	031-388-5176
15	김종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8 로데오현대(아) 101-610	135-120	544-8336

주소변경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5	안형균	서울 노원구 상계1동 벽운(아) 104-1302	139-745	951-7172
15	이호재	서울 강남구 삼성2동 7-3 래미안삼성2차(아) 104-901	135-092	545-4948
16	강무송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현대아이파크 201-1204	449-843	031-264-4246
16	김문기	서울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 5-707	137-765	533-0577
16	김성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6-6 원원제3차유동화(유)	137-872	011-890-1908
16	김신흥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부영(아) 602-1304	412-270	031-815-6059
16	김정갑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십리 30-28	476-822	031-774-3502
16	김익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3 금강빌라 2-203	135-090	549-0190
16	박성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4 신성은하수빌라 102-102	463-500	031-715-8976
16	유재덕	경기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 213-1703	415-748	031-983-7317
16	이선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364 후피골농장	250-804	010-2286-5802
16	이성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벽산(아) 603-602	463-927	031-702-8761
16	이재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 72-1301	135-788	548-5868
16	정준식	경기 김포시 풍무동 양도마을 서해(아) 103-401	415-070	031-998-4250
16	조창조	경기 가평읍 금대리 55-15 “호숫가쉼터”	477-803	031-581-2140
16	최양웅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14 산남4차 주공(아) 403-208	361-150	043-283-5737
16	함중하	서울 마포구 염리동 521 LG마포자이(아) 102-1703	121-090	3272-1742
18	김중하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태영(아) 102동 1601	411-311	031-925-5582
18	김현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35 중앙하이츠빌리지 106-302	463-470	031-726-3705
18	천기광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우성3차(아) 1-802	135-807	3461-8843
19	고순형	제주도 제주시 연동 262-31 태림(아) 702호	690-813	064-742-2338
19	김명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원로얄듀크(아) 301-601	446-976	031-889-8829
20	강기왕	충남 계룡시 금암동 금암주공(아) 203-503	320-912	042-545-9642
20	권병석	서울 강남구 대치2동 511 미도(아) 105-703	135-775	016-626-5130
20	김삼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42 아이파크 102-1003	449-985	031-276-7769
20	김영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앙하이츠빌 102-1102	126-725	817-5331
20	김우식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3차(아) 306-1301	152-773	2871-7817
20	김원춘	대전시 중구 태평동 422-7 버드네(아) 113-1302	301-780	042-524-4134
20	김팔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코아루(아) 4303-904	446-916	031-286-6371
20	김호동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8 대방1차 e-편한세상(아) 103-1101	156-020	6267-1649
20	문석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7-5 린하우스 201호	135-907	501-5215
20	문태인	서울 강서구 화곡3동 화곡 푸르지오(아) 125-304	157-773	2065-2655

주소변경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0	문태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삼성래미안(아) 107-1401	121-070	712-8057
20	이치훈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10 신라하이츠 나-401	476-823	010-5585-3377
20	조태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코오롱(아) 2104-1901	412-220	031-938-0376
22	부중배	서울 성북구 정릉4동 e-편한세상(아) 111-504	136-744	010-5085-9595
22	이용구	경기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 213-604	415-748	031-988-3996
22	정갑순	서울 관악구 신림7동 1735 관악산휴먼시아2단지 229-1502	151-910	6347-9635
23	이영옥	대전시 서구 월평동 누리(아) 113-1203	302-280	042-485-6735
23	채홍원	충남 계룡시 금암동 우림(아) 104-302	321-900	042-841-2831
23	최주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백현마을 동일하이빌 2113-1101	446-753	031-693-2563
24	강일규	서울 노원구 공릉2동 태능현대(아) 17-401	139-780	973-7724
24	설증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610-1502	305-509	042-933-2819
24	신철	경남 진주시 주약동 금호석류마을(아) 102-1301	660-770	055-759-9404
24	오연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80 EL샤롯데 601호	150-050	010-5081-5745
24	임호순	대전시 중구 오류동 삼성(아) 4-1005	301-758	042-536-4855
24	유광원	충남 계룡시 금암동 신성 미소지움(아) 204-802	321-900	042-841-2280
25	윤양로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10-10 효성(아) 1203	152-844	867-7668
26	김인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 319 신일(아) 105-1302	440-726	010-5073-7300
26	오문영	서울 광진구 구의3동 209-64 202호	143-821	446-3460
26	오범석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51 푸르지오(아) 101-402	664-942	010-7318-3355
26	임락봉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30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114-703	446-562	031-287-3230
26	진주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7 동신(아) 705-202	412-020	031-966-2514
28	김학수	서울 성동구 마장동 현대(아) 105-1902	133-753	2295-2911
29	이장근	인천 서구 연희동 684-15 연희빌라 A동 301호	404-836	032-538-5180
32	김진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다정환마을 쌍용(아) 2118-703	420-030	032-226-1415
33	임경수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선비(아) 209-1604	306-776	010-5073-4324
34	이성호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밤가시건영빌라5단지 501-204	411-759	031-916-3963
34	정찬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 24-307	135-785	511-4875
37	김연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2동 강촌마을8단지(아) 805-703	410-717	031-907-8655
42	최진원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비잔티움 2단지 705호	411-817	031-906-1895
45	손종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국방대학원(아) 203-204	412-706	010-5072-6747
45	하승호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17-24 함양주택 301	152-781	839-1046

※ 우편물 반송이 너무 많습니다. 주소 변경시 총동창회 사무실로 꼭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수별 동기생 인원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1기	회장	최규순	533-2485 011-253-3154	14기	회장	이용석	031-716-7702 011-9052-1714
	총무				총무	석영우	592-3509 011-888-3509
2기	회장	이원의	031-889-7705 016-368-9130	15기	회장	권기동	031-3971-3794 010-3035-3794
	총무	성창현	031-712-1078 016-609-1078		총무	최용환	031-397-2280 018-337-5784
3기	회장	정규혁	031-283-0742 011-232-1526	16기	회장	최명상	795-4230 011-253-4230
	총무	김필원	713-2139 (사)2266-1852		총무	박영기	016-767-5054
4기	회장	조시중	031-233-6750 010-2224-6750	17기	회장	장호근	011-712-0290
	총무	조봉구	856-2714 011-233-6243		총무	이철희	011-252-4989 (사)6298-8282
5기	회장	정재식	031-262-6793 019-318-6793	18기	회장	천기광	3461-8843 017-428-5045
	총무	손정희	855-3231 010-3164-8531		총무	구세환	2065-7401 017-516-0600
6기	회장	이방택	031-287-6276	19기	회장	이강욱	534-5150 016-203-6561
	총무	김원근	584-4827 016-268-4827		총무	김영철	031-978-5864 017-676-2591
7기	회장	강상원	031-265-1790 010-7747-1797	20기	회장	김성일	010-7186-0910
	총무	신덕식	031-903-3629 010-2209-3629		총무	서일수	043-294-5325 010-5075-0897
8기	회장	윤대봉	031-962-7174	21기	회장	이찬	010-5073-5220
	총무	백상희	521-6398 011-725-5171		총무	조오현	6735-6035 019-233-5015
9기	회장	한광희	502-2398 011-330-2398	22기	회장	민형기	031-274-3241 010-5071-5410
	총무	이강홍	031-458-2665 011-758-8811		총무	정갑순	3662-9070 011-303-9677
10기	회장	서진규	032-326-1243 016-695-2135	23기	회장	이계훈	920-3000 017-284-5736
	총무	송창수	031-264-4575 011-229-6901		총무	류연도	011-9349-1332
11기	회장	박용이	031-264-3152 011-211-8121	24기	회장	박종현	921-6000
	총무	심기섭	031-304-7108 011-9095-7108		총무	최규철	010-5076-4630
12기	회장	강영식	6268-8877	25기	회장	윤용현	010-5073-5062
	총무	엄수남	358-4386 016-275-4386		총무	이정표	010-5079-0801
13기	회장	이정호	780-7216 011-9374-7217	26기	회장	분길주	010-5078-3903
	총무	김진석	3473-5219 011-9974-5219		총무	오중기	010-5073-5197

기수별 동기생 임원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27기	회장	권오성	920-6200	42기	회장	이종서	010-5072-3318
	총무	홍진기	019-267-3514		총무	이동현	010-5071-0446
28기	회장	최차규	920-2103	43기	회장	오동식	010-5081-3798
	총무	박철규	010-5073-6980		총무	이종원	010-5071-3633
29기	회장	이명길	010-5073-5461	44기	회장	고준기	010-5071-5479
	총무	정덕용	010-5073-6961		총무		
30기	회장	박국서	017-235-4244	45기	회장	윤혁준	010-5081-4438
	총무				총무	김대환	010-5081-0315
31기	회장	김정철	010-5078-7035	46기	회장	김용진	010-5075-8473
	총무	한상훈	010-5085-4402		총무	서정민	010-5073-7005
32기	회장	신익현	010-5073-6507	47기	회장	이영진	921-6311
	총무	송인수	010-5085-9195		총무	문성훈	936-7990
33기	회장	정남진	010-5074-4612	48기	회장	고종진	937-4817
	총무	최현국	010-5075-6293		총무	원기탁	010-9577-5401
34기	회장	박원서	010-5076-7878	49기	회장	이정영	053-989-5032
	총무	김학준	010-5077-3434		총무		
35기	회장	이동규	920-2113	50기	회장	송준협	010-5079-1724
	총무	박종연	010-5082-7610		총무	전수진	010-5085-5299
36기	회장	손경수	010-5083-0436	51기	회장	유진규	011-9152-0451
	총무	유문근	010-5072-1349		총무	김성경	010-5081-6461
37기	회장	염성진	010-5074-9997	52기	회장	유영광	010-5082-6668
	총무	이경봉	010-5071-2831		총무	이동제	010-5083-0452
38기	회장	윤병호	010-5073-7801	53기	회장	장지용	010-4503-4640
	총무	김경민	010-5073-2186		총무	윤종성	016-9373-0402
39기	회장	홍봉선	010-5074-2935	54기	회장	조원기	017-541-6266
	총무	김재권	010-5076-4877		총무	권선영	011-9481-5689
40기	회장	한경환	010-5079-7834	55기	회장	이재환	016-627-3037
	총무	김중기	010-5085-8293		총무	강수정	011-9787-9173
41기	회장	이형현	010-5071-6092	※ 임원 변동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823-1091			
	총무	이광조	010-5085-0341				

편집 후기

운영차수 초기에 편집방향 설정, 편집일정 수립으로 2번째 소식지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업무의 양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무겁다는 평이 있어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글을 보내주신 분들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지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교재창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인>

기고 안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걸쳐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생활 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6호 성무지 원고는 2007. 10. 31.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07. 7. 1.

발행인 : 이억수

편집인 : 김길상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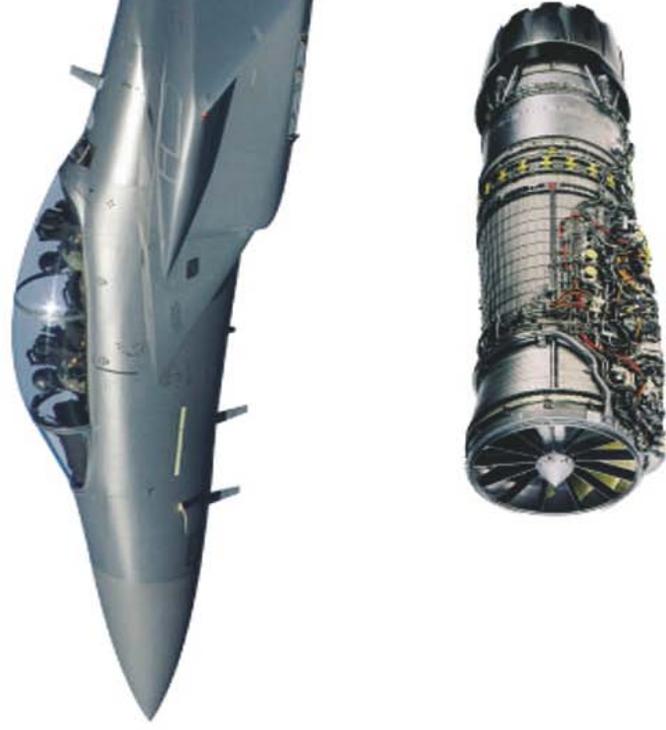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사서함 5-1호
(공군복지단 내) (우 156-600)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Now at a
theater near you



F110 engine
power for the F-15K



imagination at work





한국석유공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한국석유공사와
함께하면

U
Happy

CMYK

